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 목 차 | Contents

I. 연구 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범위	6
II. 전국 서원·향교 관련 활용 사업 현황	15
1.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현황	15
2. 향교·서원 활용사업 관련 동향	24
III. 무성서원의 변천과 특징	35
1. 무성서원의 연혁	35
2. 무성서원의 특징	45
IV.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61
1. 태산선비문화권	61
2. 역사문화 자원 활용	71
V. 결론	137
참고문헌	143
부록 1. 무성서원 관련 자료 현황	149

■ 표목차 | Contents

〈표 1-1〉 2019년 9대 서원의 관람객 현황	4
〈표 1-2〉 역사문화자원의 성격과 대상	10
〈표 1-3〉 정읍시 고현내면 역사문화자원화 현황	10
〈표 2-1〉 유네스코 한국 등재유산 목록	15
〈표 2-2〉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유형	24
〈표 2-3〉 2020년 전라북도 향교·서원 참여 지자체 현황	26
〈표 2-4〉 연도별 전국 서원·향교 참여 현황	27
〈표 3-1〉 무성서원 연혁	35
〈표 3-2〉 칠보 지역의 원사 및 정각	55
〈표 4-1〉 태산선비문화권의 주요 문화재 현황	64
〈표 4-2〉 태산선비문화권의 비지정문화재 현황	65
〈표 4-3〉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	71
〈표 4-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	74
〈표 4-5〉 무성서원 관련 고문서·근현대문서 분류	82
〈표 4-6〉 현판의 제작 연대 분포(주련 제외)	84
〈표 4-7〉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	87
〈표 4-8〉 세계유산 가치에 공헌하는 ‘한국의 서원’ 무성서원 등재기준 충족도	89
〈표 4-9〉 태산선비문화원 추진 현황	90
〈표 4-10〉 칠보물테마유원지(전시관) 2017·2018년 월별 관람객 수	134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무성서원 전경	3
〈그림 1-2〉 1872년 태인현 지도와 고현내의 확대도	8
〈그림 1-3〉 대동여지도의 태인, 정읍, 고부	9
〈그림 2-1〉 유네스코 한국의 서원 등재 과정	17
〈그림 2-2〉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배치도	18
〈그림 2-3〉 소수서원 위치	18
〈그림 2-4〉 병산·옥산서원 위치	19
〈그림 2-5〉 도동·남계서원 위치	20
〈그림 2-6〉 필암서원 위치	21
〈그림 2-7〉 무성서원 위치	22
〈그림 2-8〉 돈암서원 위치	22
〈그림 2-9〉 돈암서원 연택트 유물 전시관	23
〈그림 3-1〉 무성서원의 연혁 1	36
〈그림 3-2〉 태인신잠선생영상	38
〈그림 3-3〉 서원등록	40
〈그림 3-4〉 무성서원의 연혁 2	41
〈그림 3-5〉 병오창의 기록화	43
〈그림 3-6〉 최치원	45
〈그림 3-7〉 정극인 동상	50
〈그림 3-8〉 2011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상춘곡'	51
〈그림 3-9〉 고현동향약	52
〈그림 3-10〉 송정십현도	54
〈그림 4-1〉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태산선비문화권 소개	62

〈그림 4-2〉 신(新) 태산선비문화권	63
〈그림 4-3〉 태산선비마을 문화관 전경	68
〈그림 4-4〉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전경과 전시실	69
〈그림 4-5〉 칠보물테마파크유원지 조감도영조 어진	70
〈그림 4-6〉 영조 어진	72
〈그림 4-7〉 황현 초상	72
〈그림 4-8〉 최익현 초상	72
〈그림 4-9〉 칠광도	73
〈그림 4-10〉 무성서원원지 1884년본	76
〈그림 4-11〉 무성서원 관련 문서류 시기 현황	79
〈그림 4-12〉 무성서원 관련 자료 사료성격 현황	80
〈그림 4-13〉 무성서원 관련 자료 매체 유형 현황	80
〈그림 4-14〉 무성서원 관련 자료 시기 현황	81
〈그림 4-15〉 영벽정 현판과 번역문	85
〈그림 4-16〉 영벽정 현판 번역문	85
〈그림 4-17〉 전라감영 선화당의 디지털 병풍과 관련 조형물	86
〈그림 4-18〉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건물동과 방문자 수	91
〈그림 4-19〉 무성서원 일대의 하천	92
〈그림 4-20〉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95
〈그림 4-21〉 난정의 위치	96
〈그림 4-22〉 현재 난정의 모습	97
〈그림 4-23〉 고지도에 보이는 유상대	97
〈그림 4-24〉 칠보물테마유원지의 유상대	97
〈그림 4-25〉 칠광도의 유상대	98
〈그림 4-26〉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의 조형물	98
〈그림 4-27〉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금강의 조형물	99
〈그림 4-28〉 진안 원영장 마을 꽃잔디 축제 관련 사진 및 안내도	102
〈그림 4-29〉 정극인선생 묘	103
〈그림 4-30〉 시산사	105

〈그림 4-31〉 필양사	105
〈그림 4-32〉 김영상투수도	106
〈그림 4-33〉 현재의 동각	109
〈그림 4-34〉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 입구	110
〈그림 4-35〉 덕신 학교 원경	110
〈그림 4-36〉 송산 증덕에서 바라본 고현내	111
〈그림 4-37〉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조감도	112
〈그림 4-38〉 구절초 테마공원의 전망대	112
〈그림 4-39〉 원촌마을 사업 계획도	114
〈그림 4-40〉 동편마을 사업 계획도무성서원 뒷편	114
〈그림 4-41〉 전라감영 선화당 미디어 파사드 공연	116
〈그림 4-42〉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117
〈그림 4-43〉 만경강 대야면 움서감서 쉼터	117
〈그림 4-44〉 현가루	118
〈그림 4-45〉 무성서원 뒷편	118
〈그림 4-46〉 무성서원원지의 향음주례도	120
〈그림 4-47〉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123
〈그림 4-48〉 무성서원 둘레길(2020년 12월 현재)	125
〈그림 4-49〉 무성서원 일대 둘레길 코스(안)	130
〈그림 4-50〉 문화재 야행 심사기준	133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19년 7월에 대한민국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제향(先賢祭享)과 학문연구를 위해 사람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자 향촌 자치 운영기구. 즉, 유교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도서관 기능, 공론의 장소 등의 성격을 가진 곳
 -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고 정형성을 갖춘 건축문화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 OUV)' 충족¹⁾

〈그림1-1〉 무성서원 전경



※ 출처 : 정읍시청

- 전북의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경남(남계서원), 경북(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대구(도동서원), 전남(필암서원), 충남(돈암서원) 등이 등재

1) 「'조선 성리학의 요람' 서원 9곳, 세계유산 된다」, 『한국일보』, 2019년 5월 14일(<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41031372702?did=DA&dtype=&dtypecode=&prnewsid=>), 2020년 5월 12일 검색.

○ 정부 차원의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고양

- 최근 중앙 정부에서도 서원·향교 활용사업을 실시하는 등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고조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을 통한 국가보조사업 진행 : 문화재청의 ‘서원·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만들기 사업’, 서원연합회 등의 ‘전통문화 체험 관광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유교문화활성화 사업’

○ 무성서원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무성서원은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에 비해 풍경·자연환경·건축물 등에서 약점을 보여 관광객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역사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9개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과 함께 공존하여 양반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상징성 보유
- 9개 서원의 관광객 수를 분석하면 소수서원 > 병산서원 > 도산서원 > 돈암서원 > 남계서원 > 도동서원 > 옥산서원 > 무성서원 > 필암서원 순으로 8번째로 관람객 수가 적음²⁾

〈표 1-1〉 2019년 9대 서원의 관람객 현황

서원명	소수	도산	병산	옥산	도동	남계	필암	무성	돈암
관람객 수	343,445	315,844	322,342	16,417	37,000	76,938	10,867	22,751	14,536

- 반경 2Km이내에 6개의 사우(祠宇), 최치원 관련 유적지, 정극인 동상, 방각본 전시관,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 등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밀집되어 있음
- 간접 영향권에는 구절초 테마공원, 김명관고택, 칠보수력발전소, 내장산, 태인향교, 피향정 등의 자원도 있음
- 따라서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집적화하는 작업을 통해 관광자원화할 필요성 있음

○ 무성서원 일대의 보전자산 실태 및 여건 파악

- 조선 후기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정읍지역의 대표적 서원이었고, 1865년 대원군의 서원 훼철로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전라도의 도원(道

2)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https://www.tour.go.kr/>) 참조 및 문화재청 확인 자료(2020년 6월 17일)

院)·수원(首院) 역할 수행

- 을사보호조약에 반발하여 이듬해(1906)에 최익현·임병찬 중심으로 전라도 유생들이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항일투쟁의 장소
 - 무성서원 관련 고서·고문서·고지도·서화(칠광도·송정십현도) 등 보전자산 목록 파악 및 이를 통한 문화 콘텐츠 방안 모색
 - 장소성을 공간과 지역으로 확장하여 원촌마을, 동편마을 등 고현내의 역사문화 자원 개발
 - 김회련고문서(보물)·태조원종공신왕지(보물)·태인고현동향약(보물) 외 각종 문화재자료 집적
 - 태인방각본, 최치원 관련 유상대, 상춘곡 등 역사문화 자원의 실태 조사
 - 전라도 최고의 유교 중심지였던 무성서원 및 고현내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
- 선비문화권 관광 발전의 계기 마련
- 정읍시는 태산선비문화권 개발 추진 중. 여기에 무성서원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특성화 방안 등 수립
 - 주변 성황산과 동진강 등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아이템 제공
 - 지역교육과 문화의 플랫폼으로 발전
 - 태산선비 문화사료관, 방각본 전시관, 농촌체험마을로 활동 중인 태산선비마을 등의 인프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재청, 환경부 등의 관련 사업 아이템 제공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 통시적 분석

- 1차 사료인 『무성서원원지』(1884)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변천 및 특징 분석
 - 문헌조사를 통한 무성서원의 변천 및 특징 분석
 - 전문가 인터뷰와 현지조사를 통한 무성서원과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

■ 공시적 분석

- 고지도·문헌·현재 남은 유산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비물리적 자료의 유형화
- 보물·지방문화재·인물·향토설화 등의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한 체계적으로 수집·분류
- 특화장소 선정 및 관련 자료 집성

■ 도내외 사례 분석

- 중앙 정부의 서원·향교 활용사업 관련 동향 파악
-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사업 파악
- 무성서원 현재 사업 분석

■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지역성을 탐구하여 다양한 자원의 특성 도출
-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원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기본방향 설정
- 역사문화 자원의 특징을 토대로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
-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2) 연구범위

■ 협의의 범위

- 무성서원의 배향인물들인 최치원과 신잠,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의 활동은 비단 서원뿐 아니라 고현내 지역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고현내(古縣內)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 시간 범위 : 과거 - 현재
- 공간 범위
 - 고현내(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와 와우리, 시산리, 반곡리를 통합하여 부르는 옛 지명)
 - 이 공간을 본 보고서에서는 신(新) 태산선비문화권으로 명명
- 연혁³⁾
 - 백제 대시산군(大尸山郡)
 - 신라 태산(大山 ; 泰山)군
 - 고려 태산(太山 ; 泰山)군. 이때 치소는 지금의 칠보면 시산리에 있었음
 - ※ 태산군 범위 : 현재의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웅동면, 태인면 남부, 북면의 동부
 - 조선 초(1409년 ; 태종 9)에 주변의 인의현(仁義縣)을 병합하여 한 글자씩 따서 태인현(泰仁縣)으로 개칭. 치소는 여전히 칠보 시산리 일대
 - ※ 인의현 범위 : 현재의 태인면 북부, 신태인읍, 감곡면
 - 1416년(태종 16)에 치소가 태산군과 인의현의 접경인 당시의 거산역(지금의 태인)으로 옮기고, 이 때문에 당시까지 태인 현내는 예전의 현내라는 의미로 고현내(古縣內)로 불리게 됨. 따라서 이때 ‘고현내’라는 명칭이 처음 생김
 - 일제강점기의 지방통치 제도 개혁 : 1914년에 태인군은 정읍군, 고부군과 함께 정읍군으로 통합. 이때 고현내면, 남촌일변면이 합쳐져 칠보면이 됨. 고현내의 마을들은 이때 무성리, 와우리, 시산리, 반곡리로 편제

3) 이강오,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15-17쪽 참조.

〈그림1-2〉 1872년 태인현 지도와 고현내의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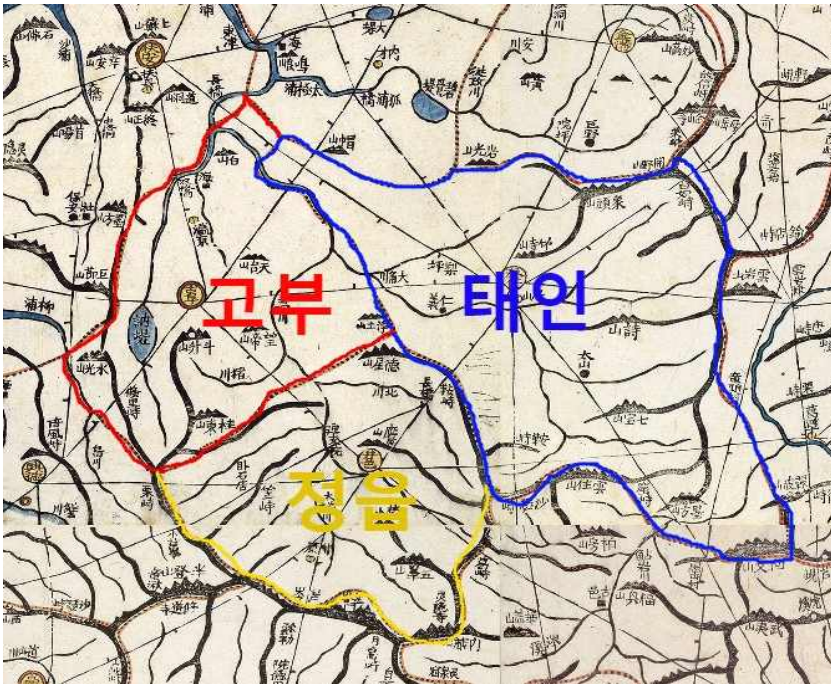


※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고현내를 확대한 지도를 보면 유상대와 무성서원, 용계서원이 보이고, 동진강과 시산, 성황산이 그려져 있다. 또한, 송산, 동변, 서변, 원촌 등의 마을 이름도 보인다.

■ 광의의 범위

- 조선시대의 태인현(泰仁縣)
- 공간 범위 : 현재의 정읍시 신태인읍, 감곡면, 북면, 산내면, 산외면, 용동면, 칠보면, 태인면
- 태인현의 현치(縣治)로 태인향교, 동헌, 피향정, 김명관 고택, 칠보담, 구절초 테마 공원 등을 보유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확장할 때 언급

〈그림1-3〉 대동여지도의 태인, 정읍, 고부(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 역사문화자원의 성격과 대상⁴⁾

- 문화재청의 문화적 자산을 ‘문화재 → 문화유산 → 문화자원’ 순으로 범주화 함.
여기에 역사문화자원을 적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2〉 역사문화자원의 성격과 대상

구분	수량	명칭
(지역) 문화재	가치성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지역) 역사문화유산	보존성	비지정문화재로 보호·관리되는 역사 유산 :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
(지역)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재+역사문화 유산+역사문화자원	잠재성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괄하며 향후 문화재, 문화유산 등으로 보호 관리될 수 있거나,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자원 ●공간적 자원 ●시간적 자원

- 본 연구 대상에서 포괄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위의 범주에 맞추어 분류

〈표 1-3〉 정읍시 고현내면 역사문화자원 현황

구분	수량	명칭	
유형문 화재	보물	3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칠보면 시산리), 김회련 고신왕지(칠보면 시산리), 고현동 향약(칠보면 남전길)
기념물	사적	1	무성서원(칠보면 무성리)
시도유형문화재		3	무성리석불입상(칠보면 무성리), 무성리삼층석탑(칠보면 무성리),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칠보면 무성리)
문화재 자료		2	송정(칠보면 무성리), 남천사(칠보면 시산리)
문화재		9	
문화유산		3	한정(정읍시향토문화유산 2호), 필양사(정읍시향토문화유산 2호·국가보훈처지정현충시설), 용계서원(정읍시향토문화유산 5호)
역사문화유산		3	
기타 역사문화자원		20	영당, 후송정, 시산사, 송산사, 감운정, 유상대, 정순왕후 유지비(송계성 유히비), 고현동각, 연시각, 도봉사, 김후진유히비, 정극인 동상, 정극인 생가터, 정극인 묘, 방각본전사관, 칠광도, 송정십현도, 송정수계지도, 향음주례도, 호호정유히비
기타 자원		7	칠보물테마파크, 태산선비문화사료관, 태산선비마을, 칠보수력발전소, 연꽃

4) 박미선,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활용방안」, 『지역과 문화』 5-4, 2018, 92-93 쪽 〈표 2〉 인용.

	생태연못, 자란내 생태공간, 당산나무
역사문화자원	27
합 계	39

- 본 연구 범위에는 가치성이 높은 문화재 9개, 보존성을 가진 3개의 역사문화유산, 잠재성을 가진 27개의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당수는 무성서원을 비롯한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고, 일부 불교관련과 생태, 문화 시설 등이 있음
- 이 지역은 무성서원에 배향된 최치원과 신잠, 정극인 등의 인물과 직접·간접적인 자료가 풍부하지만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따라서 무성서원을 비롯한 옛 고현내를 범주로 하여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하고, 역사문화자원화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 있음

Ⅱ

전국 서원 · 향교 관련 활용 사업 현황

1.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현황

2. 향교 · 서원 활용사업 관련 동향

II. 전국 서원향교 관련 활용 사업 현황

1.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현황

1) 유네스코 한국 등재유산

- 유네스코 등재유산이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기초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
-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총 50개가 지정됨

〈표 2-1〉 유네스코 한국 등재유산 목록

대분류	중분류	자원목록	
세계유산 (14)	문화유산	석굴암 및 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경주 역사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 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한국의 서원(2019)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복합유산	없음	
기록유산(16)		『훈민정음(해례본)』(1997) 『조선왕조실록』(1997) 『승정원일기』(2001) 『불조지자심체요철』 하권(2007) 조선왕조 『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2013)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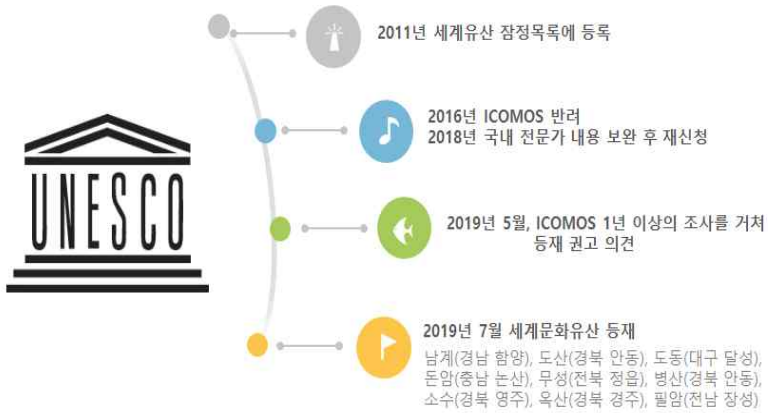
무형유산(20)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연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2010)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2010)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2010)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2011) 줄타기(2011) 한산 모시짜기(2011)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2012)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한국의 전통 레슬링 : 씨름(2018)
----------	--	---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⁵⁾

- 2019년 7월 소수·남계·옥산·도산·필암·도동·병산·무성·돈암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포함되어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형성된 서원으로 신청과 보완 과정을 거쳐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약 8년이 소요
- 제출된 등재 기준 기술문은 다음과 같음
 - “신청 유산은 한국 서원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건축유형을 정형화하는 노력들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을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물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 ‘한국의 서원’에 해당하는 9개 서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 관리
 -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현상변경 행위도 계획단계부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규제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에 근거 보존지역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

5)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2020, 37쪽.

〈그림 2-1〉 유네스코 한국의 서원 등재 과정



향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 유네스코 등재 이후 한국의 서원 현황

■ 경북 영주 소수서원

〈그림 2-2〉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배치도

- 지정번호 : 사적 제55호
- 건립연대 : 1542년(중종 37)
- 사액연대 : 1550년(명종 5)
- 배향인물 :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 활용사업
 - 서원 근교에 소수박물관과 영주 선비촌이 있음. 이 세 곳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 관람권 운영
 - 소수박물관, 소수서원을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특별기획전 개최
 -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과 소수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 세계유산축전으로 <제향으로 올라가는 사연>으로 향지(鄉祠) 진행



■ 경북 안동 도산서원

〈그림 2-3〉 소수도산서원 위치

- 지정번호 : 사적 제170호
- 건립연대 : 1574년(선조 7)
- 사액연대 : 1575년(선조 8)
- 배향인물 : 이황, 조목
- 활용사업
 - 2002년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설립. 공무원, 대학생, 학부모 등 선비 문화 체험
 - 세계유산축전의 개막식이 도산서원에서 시작됨. 경축 음악회에서 도산 12곡 합



창과 판소리 등 음악 판타지 및 <도산서원, 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는 전시회 개최

- 관광안내판, 도로 표지판 정비
-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2020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한 전국 사진 촬영, 백일장 대회, UCC 공모전 준비

■ 경북 안동 병산서원

〈그림 2-4〉 병산옥산서원 위치

- 지정번호 : 사적 제260호
- 건립연대 : 1613년(선조 8)
- 사액연대 : 1863년(철종 14)
- 배향인물 : 류성룡, 류진
- 활용사업
 - 서원 본래의 기능인 강학과 제례기능을 살린 서원스테이 운영
 - 중·고등학생, 일반인 대상 “세계유산 인문캠프 및 강학”의 인문캠프
 - 세계축전 프로그램으로 <서애 선생의 나라 사랑> 주제로 충효 기행 체험 진행



■ 경북 경주 옥산서원

- 지정번호 : 사적 제154호
- 건립연대 : 1572년(선조 5)
- 사액연대 : 1574년(선조 7)
- 배향인물 : 이언적
- 활용사업

- 2014-2017년 문화재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참여
- 유치원, 청소년, 가족단위 대상으로 ‘차(茶)향 가득한 옥산서원’ 프로그램 운영. 다례, 생활예절, 율놀이, 옥산서원에서 독락당까지 유유자적 선비트래킹
- <동방의 지혜, 세상을 밝히다>는 주제로 회재 이언적을 다루는 한중 학술대회 개최

■ 대구 도동서원

- 지정번호 : 사적 제488호
- 건립연대 : 1605년(선조 38)
- 사액연대 : 1607년(선조 40)
- 배향인물 : 김굉필
- 활용사업
 - 2014-2017년 문화재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참여
 - ‘도(道), 동(東)에서 꽃피다’ 프로그램 운영. 마음수련, 전통예절 등 서원체험과 강좌, 전시체험, 포럼 운영
 -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 주제로 과거제 재현행사와 부대행사, 전통의상 체험, 전통 민속공연, 전통무예 시범 등 운영

<그림 2-5> 도동남계서원 위치



■ 경남 함양 남계서원

- 지정번호 : 사적 제499호
- 건립연대 : 1552년(명종 7)
- 사액연대 : 1566년(명종 21)
- 배향인물 : 정여창, 정온, 강의
- 활용사업

- 2016년 90억원을 들여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정비
- 문화재청 주관, “문화유산 유유자적” 중 남계서원 벽송사를 대상으로 ‘깊은 산골 단청이야기 운영
- <일두 정여창 선생을 그리며> 주제로 서예와 한시 백일장 개최

■ 전남 장성 필암서원

- 지정번호 : 사적 제242호
- 건립연대 : 1590년(선조 23)
- 사액연대 : 1662년(현종 3)
- 배향인물 : 김인후, 양자징
- 활용사업

〈그림 2-6〉 필암서원 위치



-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강독회 진행
- 관내 초등학교 대상 백일장
- 삼양사 후원으로 장학사업 운영했으나 현재 중단
- 유네스코 등재 이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 없음
- 다만 외형보다 내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 ①필암서원 소재지 청소년 인성교육 ②장·노년층의 선비정신 함양교육 ③인근 3km이내 서원, 향교 사이에 ‘가칭’ 서원길’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산책길로 활용
- 2020년 7월 세계유산축전으로 <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을 주제로 김인후를 소개하는 전시, 서예체험 진행

■ 전북 정읍 무성서원

- 지정번호 : 사적 제166호
- 건립연대 : 1615년(광해군 7)

- 사액연대 : 1696년(숙종 22)
- 배향인물 :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 김관

〈그림 2-7〉 무성서원 위치



- 활용사업
 - 문화재청 주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 강좌, 서원 스테이, 강학당 운영, 유교문화 답사
 - 국립전주박물관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기획전시
 -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축전의 일환으로 〈무성서원-KBS 국악한마당〉 진행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무성서원 원지(1884년) 번역 및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연구 추진

■ 충남 논산 돈암서원

- 지정번호 : 사적 제383호
- 건립연대 : 1634년(인조 12)
- 사액연대 : 1660년(현종 1)
- 배향인물 :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그림 2-8〉 돈암서원 위치



- 활용사업
 -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꾸준히 활용사업 진행
 - 대표적으로 2014년 어린이, 초·중·고 대상 인성교육 (예절프로그램)
 - 세계유산축전으로 〈사람됨을 위한 정성〉을 주제로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

마당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돈암서원, 세대를 잇다>는 온라인 특별전 개최

<그림 2-9> 돈암서원 언택트 유물 전시관



※ 출처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2. 향교·서원 활용사업 관련 동향

1) 문화재청,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소관기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 지원내용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발굴, 운영 예산 지원
-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사업유형 및 국고보조금 지원 범위

〈표 2-2〉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유형

구 분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사업기간	1년차(신규)	2-4년차	5년차 이상
지원금액 (지방비 포함 총액)	국비 3천만원 이내 (6천만원 이내)	국비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국비 1억원 이내 (2억원 이내)

※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의 경우라도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경우 신규사업으로 분류

- 경제적 효과⁶⁾
 - 2018년 기준 향교·서원문화재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0억원
 - 고용유발 효과는 495명, 관람객 수는 169,007명으로 조사됨
- 추진목적
 -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확립과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①생생문화재 ②향교·서원 ③문화재야행 ④전통산시문화재 ⑤고택·종갓집으로 분류

6)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유자적(290선)』, 2019, 5-6쪽.

- 이 중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 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 향교와 서원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생기 넘치는 곳이자 인문정신 청소년 인성의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곳이라는 상징성 확보

○ 추진방향

- 창의적 사업 발굴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
- 지역 소재 향교와 서원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
- 이를 통해 교육·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문화 향유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컨설팅, 홍보 지원 등 운영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 유도

○ 사업내용

- 향교·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 등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발굴·운영
- 체험형 : 유교의례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비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 교육형 : 인성·예절 교육
- 답사형 : 관련 역사인물과 연계유적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문화재 누림길·즐김길
- 공간활용형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 등 교육문화 행사와 지역민을 위한 국악공연 등



○ 전라북도 현황

- 2020년 전국 113곳의 향교·서원이 참여. 이 중 전북은 11개 지자체에서 참여
- (16년) 4개 → (17년) 8개 → (18년) 9개 → (19년) 10개 → (20년) 11개로 점차 증가
- 2017년 국비 2.7억원에서 이듬해 2.9억원, 2019년에는 6억원 확보

〈표 2-3〉 2020년 전라북도 향교·서원 참여 지자체 현황

연번	시·군	대상 문화재	사업명
1	전주	전주향교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함께하는 전주향교
2	군산	임피향교	자연의 이치를 느끼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말하다
3	익산	함열향교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락(樂)
4	정읍	무성서원	최치원 사상과 현가루의 풍류를 찾아서
5	남원	남원향교	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
6	김제	김제향교	배우고, 맛보고, 불러보고, 즐기는 '4락(樂) 김제향교'
7	완주	고산향교	고산유생, 효를 전하다
8	무주	무주향교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다
9	장수	장수향교	긴 물, 긴 역사 장수향교
10	임실	임실향교	어이! 유생(儒生)! 유생(乳生)!
11	순창	순창향교	조선시대 선비들, 순창향교에 모였네!

○ 연도별 참여 전국 서원·향교 현황

〈표 2-4〉 연도별 전국 서원·향교 참여 현황

(단위 : 개수)

연도	시도	참여 향교·서원	시도	참여 향교·서원
2014	서울특별시	1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2	광주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도	4
	강원도	2	충청북도	2
	충청남도	3	전라북도	3
	전라남도	7	경상북도	3
	경상남도	5	제주특별자치도	3
	2014년 도합	38		
2015	서울특별시	1	부산광역시	1
	대구광역시	2	광주광역시	2
	대전광역시	2	인천광역시	2
	울산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9	강원도	6
	충청북도	2	충청남도	9
	전라북도	5	전라남도	8
	경상북도	9	경상남도	7
	제주특별자치도	3		
	2015년 도합	71		
2016	서울특별시	1	부산광역시	1
	대구광역시	2	인천광역시	2
	광주광역시	3	대전광역시	2
	울산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0	강원도	8
	충청북도	3	충청남도	9
	전라북도	5	전라남도	12
	경상북도	8	경상남도	6

연도	시도	참여 향교·서원	시도	참여 향교·서원
	제주특별자치도	2		
	2016년 도합	77		
2017	서울특별시	1	강원도	7
	부산광역시	1	충청북도	4
	대구광역시	3	충청남도	10
	광주광역시	3	전라북도	8
	대전광역시	2	전라남도	10
	인천광역시	2	경상북도	12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8
	세종특별자치시	2	제주특별자치시도	2
	경기도	11		
	2017년 도합	87		
2018	서울특별시	1	강원도	8
	경기도	12	충청북도	5
	부산광역시	1	충청남도	9
	대구광역시	3	전라북도	9
	광주광역시	3	전라남도	12
	대전광역시	3	경상북도	14
	인천광역시	2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2	제주특별자치시도	2
	세종특별자치시	2		
2018년 도합	95			
2019	서울특별시	1	강원도	10
	경기도	11	충청북도	5
	대구광역시	3	충청남도	8
	광주광역시	2	전라북도	10
	대전광역시	2	전라남도	14
	인천광역시	2	경상북도	16

연도	시도	참여 향교 · 서원	시도	참여 향교 · 서원
	울산광역시	2	경상남도	7
	세종특별자치시	1	제주특별자치시도	3
	2019년 도합	97		
2020	서울특별시	1	강원도	9
	경기도	14	충청북도	7
	대구광역시	3	충청남도	12
	광주광역시	2	전라북도	11
	대전광역시	2	전라남도	13
	인천광역시	1	경상북도	18
	울산광역시	2	경상남도	13
	세종특별자치시	2	제주특별자치시도	3
	2020년 도합	113		

2) 한국서원연합회, “향교·서원 활용 실태”

■ 한국서원연합회⁷⁾

- 전국 서원의 전통 정신문화를 되살리고자 결성한 사단법인
- 서원 활용사업으로 2006년 서원스태이 사업, 2011년 전국서원대회 개최
- 한국의 대표적 서원 9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단’ 운영

■ 사업개요

- 목적
 -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전통보존 및 민족성 고취
 - 서원 기능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
 - 서원 공간의 활용 및 대중화
 - 전통 교육의 체험과 인성 함양
 - 지방문화재 홍보 및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

■ 서원 활용 체험프로그램

- 서원스태이 사업
 - 기간 : 매년 여름·겨울방학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성균관
 - 대상 : 초·중·고교생, 가족단위, 외국인 등(참여 예상인원 3,000여 명)
- 서원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별 서원의 특성을 살린 고유의 체험 교육 실시
 - 공모대상 : 서원연합회 가입 이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서원 및 서원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서원

7) 서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eowonstay.com/>) 참조하여 정리

- 공모자격 : 교육대상자 1회당 50명 이내 350명 이상 유치

○ 서원대회

- 매년 서원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서원운영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원대회 개최
- 대상 : 각 서원장 및 대표자(300여 명)
- 장소 : 성균관

○ 교재 제작

- 매년 전국 각 서원 방문객과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자료집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
- 전국 서원 대상으로 신청 가능

Ⅲ

무성서원의 변천과 특징

1. 무성서원의 연혁

2. 무성서원의 특징

Ⅲ. 무성서원의 변천과 특징

1. 무성서원의 연혁

1) 무성서원의 간략한 연혁

■ 무성서원과 관련된 연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3-1〉 무성서원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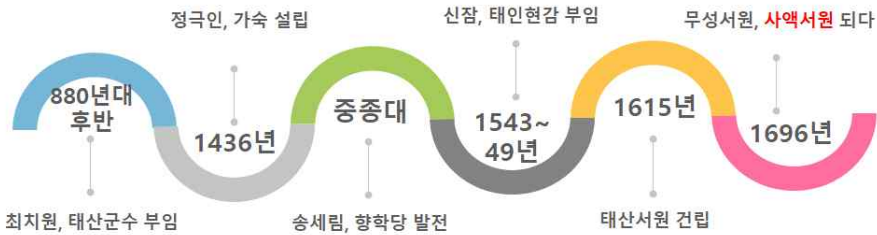
연번	연도	주요내용	근거
1	880년대 후반	최치원 부임. 고려시대에 주민들이 월연대 아래에 생사당 건립	무성서원원지 상 원우위치, 현가루창건기
2	1400년대 중반	정극인이 가숙을 세움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3	1483(성종 14)	생사당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	원우위치 태산사사적
4	1510(중종 5)	송세림이 가숙을 향학당을 발전. 강당과 동서재 건립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5	1549(명종 4)	신잠 배향(추정) ⁸⁾	원우위치 영천신선생비문
6	1615(광해 7)	태산서원 창건	연려실기술 사전전고
7	1630(인조 8)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추배	
8	1675(숙종 1)	김관 추배	
9	1696(숙종 22)	무성으로 사액	원우위치 강당중창기 강수재중수기
10	1783(정조 7) / 1784(정조 8)	최치원 영정 이안 및 중수	1783년 무성서원 중수일기

8) 신잠은 1544-1549년까지 태인현감으로 재직하였고, 그가 이임한 후 백성들이 사당을 세웠다.

11	1868(고종 5)	서원철폐령에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	고종실록
12	1884(고종 21)	무성서원원지 간행	무성서원원지서
13	1906(광무 10)	병오창의	
14	1930	무성서원원지 간행	무성서원원지서
15	1968	사적 지정(제166호)	문화재청
16	201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문화재청

2) 무성서원의 건립과 변천

〈그림 3-1〉 무성서원의 연혁 1



■ 최치원의 부임과 태산사 건립

-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에 유학을 한 뒤 885년에 귀국. 시독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事) 등의 중앙관직을 수행했으나 골품제의 한계에 승진하지 못하고 지방관이 됨
- 최치원이 정확히 언제 태산군수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880년대 후반으로 추정⁹⁾
- 최치원이 태산에서 선정을 베풀고, 그가 다른 지역으로 부임하자 지역민들은 생

9) 이재운의 연구는 886년(정강왕 1)에 태산태수가 되었다고 보았다.(이재운, 『崔致遠의 生涯 研究』, 『전주사학』 3, 1995, 28-29쪽) 실제 『고운집』에서는 “당 희종 관제 2년 7월에 헌강왕이 세상을 떠났다. 선생을 시기하는 자들이 조정에 많았으므로 외방으로 나가 태산군 태수가 되었다.”라고 하여 886년으로 적시하였다.(『고운집』 「사적」, 가승)

사당을 세웠고, 고려시대에는 월연대 아래에 사당을 세움¹⁰⁾

〈사료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태인현

- [명환] 신라 최치원(崔致遠) : 치원이 스스로 서쪽에서 배워 얻은 바가 많다고 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장차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였으나, 쇠해가는 나라의 정국은 의심과 시기가 많아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드디어 외직으로 태산군 태수가 되었다.



■ 정극인의 향학당

- 정극인(1401 - 1481)은 1401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나 1436년에 처향(妻鄉)인 태인으로 이주
 - 1436년(세종 18) 대규모 불사를 일으키는 것에 반발하여 태학생(太學生)을 이끌고 부당함 항의하다가 함경도로 귀양. 풀려난 뒤 처향인 태인으로 귀향
 - 낙향 후 1451년(문종 1)까지 교육활동에 집중. 즉, 글방(가숙; 家塾)을 열어 인근의 자제들을 모아 가르침. 이것이 훗날 송세림에 의해 향학당(鄉學堂)으로 발전. 이후 향학당은 태산사와 합쳐지며 무성서원의 토대. 따라서 정극인의 가숙은 무성서원 설립의 중요 토대

〈사료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태인현

- [학교] 『신증』 향학당(鄉學堂)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 정언 정극인(丁克仁)이 처음에 사шат집 서당으로 설치하였는데, 후에 현 사람 송세림(宋世琳)이 그 제도

10) 하지만 『무성서원원지』(1884)에 태산사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음. 文昌侯崔先生視蒙之邑山有伽椰·詩山 臺有月延·流觴 先生杖履 觴詠之所 而絃歌遺風 百世不泯 鄉人立祠于月延之下矣.(원우위치) ; 在羅朝出宰是縣 卽其時泰山郡 以昔子游之治 爲治氓俗不變 儒化蔚興其歿也 郡人立祠寓慕歷麗代入.(絃歌樓創建記)

를 확장하여 강당을 세웠고, 동서쪽에 재사(齋舍)가 있는데, 항상 학도들을 모아 가르치고 훈계하였다.

■ 신잠 배향¹¹⁾

- 신잠은 1543년(중종 34)
- 1549(명종 4)까지 6년간 태인 현감 재직
- 신잠은 기근에 구휼 등 업무 능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태인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신잠이 간성군수로 이임한 뒤 백성들은 그를 위해 생사당과 선정비를 세우고, 신잠과 그의 아내 등을 조각으로 만들어 태인의 성황산 성황당에 모시고, 최치원과 합향

〈그림 3-2〉 태인신잠선생영상
(출처 : 정음문화원)



■ 서원의 태동

- 1615년(광해 7)에 태산서원 건립
 - “무성서원(武城書院) : 만력 을묘년(1615)에 세웠으며 을축년(1696)에 사액하였다.”¹²⁾
 - 사우의 역할로 태산사, 강학 기능의 강당, 서원운영 등을 위한 고사(고직사) 등을 갖춘 것으로 보임
 - 이때 최치원과 신잠을 배향

11) 박정민, 「영천자 신잠의 생애와 활동-태인현감 시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9, 2020.

12) 『연려실기술 별집』 권4, 사전전고, 서원 ; 『전고대방』 권4, 서원향사록.

■ 추가 배향

- 1630년(인조 8)에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을 추가 배향
- 1675년(숙종 1)에 김관 추가 배향
- 그 결과 무성서원은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 7명을 배향한 곳이라는 상징성 가짐

■ 사액서원

- 1696년(숙종 22) 사액서원으로 공인
 - 사액서원 : 국가의 인정을 받아 서원의 이름이 쓰인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하사받은 서원으로 해당 서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 하지만 지방 사람들의 정치·사회적 기구로 정착되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
 - 1695년(숙종 21) 12월 1일에 도내 유림들이 청액소를 올리기로 합의
 - 1696년 1월 5일에 사액서원으로 청하는 상소를 올려 11월에 사액서원으로 인정
 - 서원의 이름으로 ‘무성(武城)’, ‘태산(泰山)’, ‘남천(南川)’이 물망에 올랐으나 무성으로 결정

〈사료 3〉 『서원등록』 숙종 22년 정월 초9일

-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서원에 사액(賜額)을 청한 것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전라도(全羅道)의 생원(生員) 유지춘(柳之春) 등의 상소를 보니, ‘신라[羅朝]의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은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으로 혼란한 때를 만나 태산군(泰山郡)으로 출보(出補)되었으니, 태산군은 바로 오늘날의 태인현(泰仁縣)입니다. 최치원의 유풍(遺風)과 여운이 백대의 오랜 기간에도 없어지지 않아 고을 사람들이 함께 모의하여 하나의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삼았고, 또 일찍이 이 고을의 수령을 지낸 자 중에 본조(本朝)의 선정신(先正臣) 신잠(申潛)을 그 사우에 합향(合享)하였으며, 향현(鄉賢) 중 정언(正

言) 정극인(丁克仁), 좌랑(佐郎) 송세림(宋世琳), 진사(進士) 정언충(鄭彦忠), 목사(牧使) 김약묵(金若默), 진사 김관(金灌)을 배향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의 덕행과 학업이 고인(古人)에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후학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미 제사를 지내었으나 아직 사액(賜額)의 은전(恩典)이 시행되지 않아 사림들이 모두 애석해하고 있으니,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신속히 사액하여 사우를 빛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최치원의 도학은 우리나라에서 뛰어나 이미 성묘(聖廟)에 배향하였고, 신잠이 학문을 흥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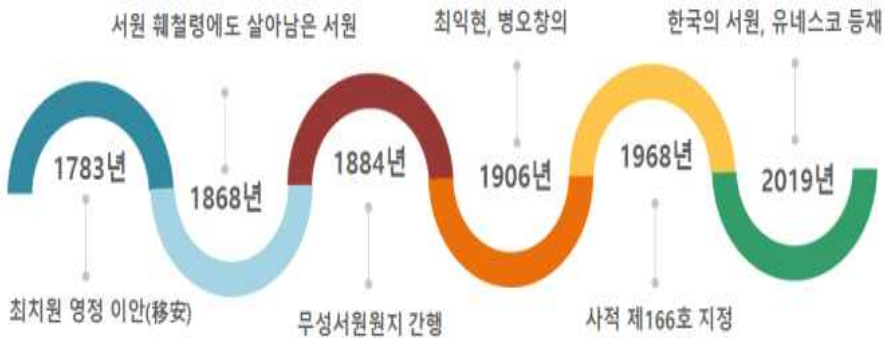
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우뚝하게 유교(儒敎)의 교화가 있었던 것은 오늘날까지도 고을 사람들에게 그 은덕이 미치고 있습니다. 향현의 경우에 있어서 정극인 이하 5인은 모두 학식이 뛰어나 칭송할 만하여 많은 선비들이 사우를 건립하여 제사 지내니, 선현(先賢)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우를 건립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한 중첩해서 설립한 곳이 없으니, 그들의 청원에 따라 사액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지만 일이 포장(褒獎)하는 중요한 은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35년(1696) 정월 초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심평(沈桴)이 담당하였는데, 특별히 사액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

〈그림 3-3〉 서원등록



- 사액서원이 되면서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하사 받음¹³⁾
- 보통 원생의 정원은 사액서원이 20명, 비사액서원이 15명이었지만,¹⁴⁾ 무성서원은 최치원이라는 거두를 모시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사액서원보다 많은 30명의 특혜 받음¹⁵⁾
- 동년 11월 23일에 사액사(賜額使)로 예조 좌랑 류격이 와서 연액례(延額禮)를 치름
- 이러한 맥락에서 강당에 걸려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 편액에 ‘병자(1696)년 11월에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
- 사액 이후 원장에 영의정 남구만이 취임하며 격이 높아짐

〈그림 3-4〉 무성서원의 연혁 2



■ 최치원 영정 봉안

- 1783년(정조 7)에 영호남 유림들은 공론으로 경상도 하동 쌍계사(雙溪寺)에서 소장하고 있던 최치원의 영정을 후손인 최항대의 집으로 모셨으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자 모셔오기로 함

13) 복호(復戶) 3결과 보노(保奴) 30명 지급, 원생의 정원 30명을 받았다. 『무성서원원지』 상, 연액기사)

14) 남원의 노봉서원은 1697년에 사액을 받으며 복호 3결, 원생 20명, 보노 20명을 받았다. (강지혜,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2, 2013, 214쪽)

15) “서원의 하재유생(下齋儒生) 인원수가 많고 적음을 헤아려 임금님 앞[榻前]에서 결정하여 이미 사액서원은 20명으로, 사액 받지 못한 서원은 15명으로, 문묘종향(文廟從享)된 유현(儒賢)의 서원(書院)은 30명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제도(諸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성서원원지』 상, 원생관문)

- 최치원을 배향한 대표적 서원인 무성서원으로 이안한 것
- 1784년(정조 8)에 최치원 영정을 이안(移安)하고 봉안(奉安)
- 영정 봉안을 위해 사당 중수하고 가져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
- 관련 내용은 『중수일기』와 『무성서원원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재현 가능함

■ 대원군의 서원 철폐

-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주도로 전국에 47개 서원만 남기고 철폐 지시
- 무성서원은 전라도에서 장성의 필암서원, 광주 포충사와 함께 훼손되지 않은 서원
- 이후 전라도 유림의 도원(道院)·수원(首院) 역할을 수행
 - 1887년 2월부터 1906년 2월까지 전라도관찰사가 원장을 수행
 - 전라남북 유림의 지원으로 현가루를 창건(1891년)할 정도로 전라도의 대표 서원 역할 수행
 - 이후 다른 서원의 복설(復設)·설단(設壇)·효자·열녀 등의 포장(褒章)을 위한 통문을 올리는 역할 등을 수행

■ 『무성서원원지』 간행

- 1883년(고종 20)에 무성서원의 송정순과 김형식을 비롯한 운영진은 서원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작에 돌입
 - 『무성서원원지』를 간행하여 사람들에게 최치원의 문장과 도덕을 알리고자 함
 - 같은 해 당시 전라도관찰사였던 김성근에게 서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락
- 1884년(고종 21)에 무성서원원지를 판각하여 개간
 - 상·하 2책으로 구성
 - 관련 내용은 무성서원원지 서발(序跋)과 1884년에 제작된 ‘무성서원원지개간기’ 현판 등에 실려 있음
 - 세계문화유산 9개 서원 가운데 가장 빨리 서원지 개간¹⁶⁾

16)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표 1〉 참조

■ 병오창의와 항일운동

○ 1905년(광무 9) 11월 17일에 일본의 강압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을사늑약 체결

-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 박탈
- 일본은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 설치
- 조선은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발판

○ 1906년(광무 10) 6월 4일에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킴

- 임병찬(태인), 고석진(고창), 최제학(진안) 등과 호남의병 결성

〈그림 3-5〉 병오창의 기록화(출처 : 태산선비사료관)



- 거의(學義)에 앞서 고종에게 의병을 일으킨 이유와 명분, 투쟁 목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창의도적소(倡義勦賊疏)」를 올림

- 최익현은 무성서원에서 80여 명의 선비와 함께 거의를 역설하고,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킴(병오창의)

- 태인, 정읍, 순창 등을 차지했으나 관군과 대치하다가 해산함
- 호남의병을 처음 일으킨 구심점으로서 역사성 가짐

■ 『무성서원원지』의 중간(重刊)

○ 1930년에 김인기 등이 주도로 『무성서원원지』를 다시 간행

- 1884년에 『무성서원원지』를 개간 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 험가루를 만들고, 관찰사가 원장이 되었으며, 원우를 증수하고, 최치원 영정을 새로 이모(移摹) 하여 봉안 등

- 1925년에 다시 서원지를 증보하기로 결정하여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 증보하여 2책으로 출판

- 1930년 1월 28일에 김인기가 저작 겸 발행자로 광주 남진인쇄소에서 발행

■ 사적 지정

-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2. 무성서원의 특징

1)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 최치원의 초기 생애

○ 당나라 유학과 관료

- 857년(문성왕 19)에 신라 왕경인 경주 출생¹⁷⁾ 〈그림 3-6〉 최치원(857 - ?)
-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 조기 유학
-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반공과(賓貢科 ;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에 합격
- 877년(헌강왕 3)에 을수현위(종 9품)의 관직으로 시작
- 880년에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 고변(高駘)의 휘하에서 약 4년간 서기직(書記職)으로 종사
- 880년에 그 유명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작성하여 문명(文名)을 날림



○ 신라의 관료로

- 885년에 사신 자격으로 신라에 온 후, 신라 조정으로부터 시독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事) 등의 중앙관직을 수행
- 골품제의 한계로 승진하지 못하고, 헌강왕 사후 지방관직 수행
- 태산군(泰山郡 ; 지금의 전북 태인) · 천령군(天嶺郡 ; 경남 함양) · 부성군(富城郡 ; 충남 서산) 등지의 태수 역임
- 894년에 진성여왕에게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올려서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
- 시무책 덕분에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인 아찬(阿飡)까지 올랐지만 정치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함
-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전국을 유람하였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갔다고 하나 그 뒤 행적은 알 수 없음

17) 이의 전북 군산의 고군산군도에서 태어났다는 의견도 있다.

■ 최치원의 태산군수 부임

○ 태산군

- 태산군은 백제대 대시산군(大尸山郡)이었으나 통일신라 시대(경덕왕 16년)에 행정 명칭이 태산군으로 변경
- 태산군은 인의현, 정읍현, 거야현(김제 금구)을 거느린 큰 고을. 치소는 현재의 칠보면 시산리 일대로 추정
- 880년대 후반 최치원은 태산군수로 부임¹⁸⁾

○ 유상곡수의 실현지 유상대(流觴臺)

- 유상대는 중국 동진(東晉)대 353년(영화 9)에 왕희지가 절강성 소흥현의 난정(蘭亭)에 있던 유상곡수의 연회(流觴曲水宴)에서 유래한 것
- 유상대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면 술잔이 떠다니는 곳
- 관련 설화와 각종 기록 등에 최치원이 유상대에서 유상곡수를 실현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음

〈사료 4〉 최고운과 거북¹⁹⁾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 동쪽 기슭에 송정이 있고, 송정 아래에는 지금의 칠보천 냇물이 부딪쳐 흐르기 때문에 패여서 쏘(소[沼])를 이루고 있었다. 쏘가 있는 냇가에 거북이 모양의 하얀 바위가 있어 이것을 백구라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좀 더 내려가서 지금 칠보 장터쯤 되는 거리에 파란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어 이것을 푸른 거북이라는 뜻으로 청구라 했다. 백구의 바위에서는 여름 철이면 술상을 차려놓고 천렵(川獵)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거북이 바위는 천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신라 말 최고운 선생이 태산(泰山)군수를 재임하며 산의 살(殺)을 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그 동안 병난(兵亂)이나 천재가 없었다 한다. 지금 송정 아래로 흐르는 '자라내'라 흔히 부르고 있는데 이는 '거북이'(자라와 비슷함) 바위로 말미암

18) 한민족대백과사전은 890년이라고 함. 최치원(<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7711>) 2020년 6월 10일 검색.

아 생긴 이름인 것이다. '자라내'는 병신년(丙申年 ; 1830년경) 홍수로 물길이 밖으로 돌아 빠지는 바람에 거북이 바위는 흘러 내려온 모래에 묻혀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거북이 바위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의 칠보천은 1930년대 섬진강 칠보발전소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호안 공사로 물길이 새로 형성된 것이다.

- 현재 남은 기록상 유상대에 대한 가장 빠른 것은 정지유(1456-1526)의 시 "시산(詩山) 아래 유상대가 있다. (유상)대의 위쪽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대 아래에는 굽이도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고운 최선생이 만든 곳으로 선생의 유품이 계곡과 돌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예전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하였다"²⁰⁾라며 최치원이 이를 만들었음과 마치 곡수가 있는 듯 표현한 사례 있음
- 이를 토대로 1682년에 현감으로 부임한 조상우가 유상대에 바위를 쌓아 증축한 뒤에 작은 비석을 세움²¹⁾
- 1735년의 대홍수로 유상대가 폐허가 되고, 조상우가 세운 비석의 위치조차 파악 안됨
- 1794년에 현감으로 부임한 조항진이 다시 복구했지만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함. 현재 조항진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이 감운정 옆에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알아 볼 수 없음
- 1910년에 석지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에도 유상대와 관련 그림 있음
-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의 발굴 결과 약 300㎡ 규모의 단일 암반이 감운정과 노휴재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표면에 요철(凹凸)까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²²⁾

■ 최치원의 배향

○ 동방 유학의 유종(儒宗)을 배향

- 1020년(현종 11)에 고려 현종은 최치원을 문묘에 배향하고, 4년 후 '문창(文昌 ; 문

19) 구술자 : 은희보(75세), 구술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5일 칠보면, 조사자 : 김영수, 김용린, 윤정현(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전북의 구비설화』, 2017, 850-851쪽 <표 2> 인용.)

20) 詩山下流觴臺 臺上嘉木叢列 臺下曲水縈廻 此乃孤雲崔先生之所創也. 遺風依然若存於水石林木之間 余由是感慕 每有遠遊之志矣.(『月城世稿』 권2, 遊瑞石山記)

21) 『무성서원원지』 상, 유상대비문.

22) 전북문화재연구원, 『유상대지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6, 정음시.

장이 빛나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림. 이로써 최치원은 동방 유교의 시조라는 평가를 받음²³⁾

- 태산 태수에 임명되었던 최치원의 선정에 감복한 지역 주민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사당 건립
- 이후 주민들은 최치원이 태산을 다스린 것을 공자의 제자인 자유(子遊)의 치적과 비견. 자유가 다스린 곳이 바로 무성인데 공자가 무성을 지나다가 현가(絃歌)의 소리를 들었다는 일화가 논어에 나옴. 여기에서 무성이라는 단어 유래

〈사료〉 『논어』 양화편

'공자께서 무성에 가서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들으셨다'

(子之武城 聞絃假之聲)

○ 관련성 제고 노력

-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받은 주요 근거가 바로 최치원을 배향했기 때문
- 이후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 영정을 봉안하고, 『계원필경』을 개간하였으며 문루 이름도 현가루(絃歌樓)로 지으며 유종을 배향한 곳이라는 상징성 가짐
- 『무성서원원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원 설치는 무성서원에서 시작되었고, 문화의 창엽 역시 최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의 교화와 관련된 것이 중국의 백록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자부할 정도

■ 호남 제일 정자, 피향정 조성²⁴⁾

○ 최치원과 피향정

- 피향정(披香亭)은 앞면 5칸, 옆면 4칸으로 된 단층 팔작지붕으로 보물 제289호 태인현 소재지였던 태인면에 위치하였고, 호남 제일 정자라는 평가를 받음
-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부임했을 때 연지(蓮池)에 피향정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고운집』에 피향정 이야기 없지만, 태인에 연못을 파고 연을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23) 『무성서원원지』에서는 “이학(理學)의 유종(宗主)가 되었다(爲理學之宗儒)”라고 평가하고 있다.(무성서원원지 상, 칠현사적, 1930)

24) 정훈, 「정읍 피향정(披香亭) 제영시(題詠詩) 연구」, 『국어문학』 52, 2012년 참조.

〈사료 6〉 고운집 사적

'태인에 연못이 있다. 선생이 본군의 수재로 있을 때 연못을 파고 연을 심었다고 한다'

(泰仁有蓮池 先生幸本郡時所鑿池種蓮云)

- 실제 최치원이 건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600년대 문헌에 등장

○ 최치원의 기억 공유

- 후대의 문장가들은 피향정과 최치원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각종 시를 지어 최치원과 이곳의 관련성을 부각. 예) 김종직(1431 - 1492)이 '태인의 연지가에서 최치원을 생각하다(泰仁蓮池上懷崔致遠)' 등이 있음
- 최치원이 피향정을 건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호남 제일 정자의 위상을 갖는 서사에 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

〈사료 7〉 김종직(1431 - 1492)의 시(『점필재집』 권21)

태인의 연지가에서 최치원을 생각하다(泰仁蓮池上懷崔致遠)

할계(割雞)하던 당일에 맑은 덕행 전파했기에 割雞當日播清芬

가시나무에 난새가 앉았다 하였네 枳棘棲鸞衆所云

천 년 전에 시 읊던 혼을 어디에서 찾을까 千載吟魂何處覓

일만 송이 연꽃에 일만의 고운이로다 芙蓉萬柄萬孤雲

2) 선비문화의 중심지

■ 흥진에 못처, 고현내 사람들과 함께한 정극인

○ 정극인의 초기 생애²⁵⁾

- 1401년(태종 1)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
- 1417년(태종 17) 소과 장원
- 1429년(세종 11) 생원시 입학 후 성균관 입학
- 1437년 처향인 태인 고현내로 귀향

〈그림 3-7〉 정극인 동상(태산선비사료관 앞)



○ 관직 진출

- 1451년(문종 1) 광흥창 부승으로 입사 한 후 1470년(성종 1)까지 관리의 삶
- 1453년(단종 1) 식년시 정과 13위로 급제
- 주로 주부·박사·교수·훈도 등 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
- 1470년에 고령을 이유로 사직

○ 고현내 주민과 함께 유학의 실천을 꿈꾸다

- 1437년에 처가가 있는 태인 고현내로 귀향하여 초가삼간을 짓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우현(不憂軒)'으로 명명함
- 가숙을 열어 가족과 고을의 자제를 모아 가르쳤고, 이 가숙이 후에 무성서원의 모태가 됨
- 고현내 주민을 교화하고,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을 설립
- 지역에 은거하며 고현내의 풍경을 중심으로 각종 시문과 가사 문학 등의 작품을 남기며 안빈낙도의 삶을 실현
- 칠보면의 7개의 보물(七寶)²⁶⁾에 정극인과 관련된 것이 무려 3개나 있음. 바로 무성

25) 『무성서원원지』 상, 칠현사적.

26) 칠보면의 7가지 보물은 ①태인 고현향약(보물 제1181호), ②분충거의(奮忠學義), ③무

서원, 상춘가곡, 고현향약임

○ 가사문학의 효시²⁷⁾

-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후세에 미친 영향이 큰 작품
- 정극인이 낙향한 후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느끼고 자연을 완상하며 안빈낙도하는 모습을 노래
- 후세에 미친 가사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
- 그 가치 때문에 고전 문학 등에서 배우고, 수능 시험에서도 두 차례나 출제(2002학년도, 2011년도)²⁸⁾
- 정극인의 『불우현집(不憂軒集)』 권2에 실려 있음
- 내용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구성. 제1단락은 산림에 묻혀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을 '풍월주인(風月主人)'으로 배치하고 상춘의 공간적 배경 노래, 제2단락은 봄 경치를 완상하며 '물아일체'의 흥취에 젖어든 정황, 제3단락은 산수구경을 하며 술을 벗하며 누리는 풍류생활을 단면을 노래, 제4단락은 현실초월의 경지를 '무릉도원'에 견주면서 자연귀의에 빠짐. 제5단락에서 청몽명월을 벗 삼아 안빈낙도를 노래함

〈그림 3-8〉 2011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상춘곡'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들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분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름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저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회(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뜻으로 그려냈나 [A]
 초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야 다들쓰나.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숲.

○ 고현향약의 창시²⁹⁾

- 1475년(성종 6)에 고현내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정극인이 고현향약(古縣鄉約)을

성서원(사적 제166호), ④공신록권(보물 제437호·438호), ⑤상춘가곡, ⑥왕비유지, ⑦ 화경폭포(화경폭포)이다.

27) 박영주, 「사대부 가사의 선구자, 불우현 정극인」, 『오늘의 가사문학』 3, 2014.
 28)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홀수형'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suneung.re.kr/boardCnts/list.do?type=default&page=8&m=0403&C06=&boardID=1500234&C05=&C04=&C03=&C02=&C01=&s=suneung>) 2020년 6월 10일 검색.
 29) 이강오,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13-14쪽.

제작·실시

- 관권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향당의 자치적 향약으로 한국에서 가장 빠름. 이황과 이이의 향약보다 90년 앞섬
- 시산리 남전마을 입구에 정극인의 신도비 있음. 마을 안에는 고현향약의 설립을 기념하고 이의 영구 지속을 상징하는 고현동약비석과 동약의 실천 도장인 동재(=동각)이 세워져 있음

〈그림 3-9〉 고현동향약



※ 제공 : 정읍시립박물관

- 이웃끼리 계를 조직하고 서로 도와 그 마을을 인(仁)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 향음주례의 방식 정비. 즉, 고을의 선비와 주민들이 모여서 예의를 지키며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는 공동체 행사
- 이후 1977년까지 유지된 고현향약과 관련 자료(29책)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3년에 보물 제1181호로 지정. 원래 동각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정읍시립박물관에서 보존 중

■ 지역의 교육과 마을의 약속

- 고현내 선비들의 특징은 향선생(鄕先生)으로 그 지역에서 높은 명망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역민과 학문 등을 공유

- 무성서원의 나머지 배향인물인 송세림(1479-1519)과 정언충(1479-1557), 김약목(1500-1558), 김관(1575-1635)은 모두 고현내 출신의 인물들로, 진사시나 문과에 합격. 또한, 이들은 향약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송세림은 정극인의 가숙을 향학당으로 발전. 강당과 동서재(東西齋)를 세우고 학도들을 가르침. 특히, 김약목이 그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 합격한 인물로 지역의 교육이 잘 계승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송세림은 1510년(중종 5)에 정극인의 「동중향음서(洞中嚮飲序)」의 발문을 작성하고, 그 뜻을 계승
- 정언충과 김약목, 김관 등은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향약을 통해 마을의 풍속을 교화하고 더불어 살아감
- 무성서원에 배향된 인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지역에서 교육 받고, 향약에 가입하여 자치적으로 마을을 유지


자생적 선비문화의 배양



홍진에 못처, 고현내 사람들과 함께 한 정극인

- 처향인 고현내로 낙향 후, 가숙 설립
 - 무성서원의 토대
-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의 배경
 - 고현향약 실시
 -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향약

선비문화 전통의 계승



지역의 교육과 마을의 약속

- 송세림 : 가숙을 향학당으로 발전 (강당, 동서재 건립)
- 향약에 가입하여 자치적인 마을 유지
- 정언충, 김약목, 김관에 계 계승하여 지역에서 교육과 자치 계승

은일자중



안빈낙도와 은일자중의 선비들

- 7광 : 1613년(광해 5) 계축옥사에 반발하여 고현내에서 김대립 등 7명이 유유자적
- 10현 : 1621년에 새로운 5명이 추가
- 7광 10현과 관련 고사가 남아 있음
- 칠광도, 송정수계지도, 송정십현도

■ 안빈낙도와 은일자중의 선비들³⁰⁾

- 고현내의 ‘은일자중(隱逸自重)’하는 선비들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7광(狂)과 10현(賢)’
- 칠광(七狂)은 1613년(광해 5)의 계축옥사(癸丑獄事)에 반발하여 고현내에 은거한 김대립, 김응빈, 이탁, 이상형, 김감, 송치중, 송민고 등 7명의 미치광이를 의미
- 이들 중 김대립과 김응빈, 이탁, 김감, 송치중까지 5명은 태인 출신
- 십현은 1621년 8월에 김대립과 이상형이 빠지고 김관, 김정, 양몽우, 김급, 김우직이 추가. 이들은 기존의 5명과 함께 구계(舊契)의 수정 모임을 가지고 시를 짓고 지냈고, 10명의 현인이라는 뜻으로 십현이라고 함
- 칠광과 십현에 대한 고사 혹은 설화가 고현내에 남아 있음
- 칠광과 십현과 관련된 유적이 송정, 영당, 후송정 등에 남아 있고, 특히 송정의 영모당에는 <칠광도>, <송정수계지도>, <송정십현도> 등의 그림이 있음
- 1910년에 어용화사 채용신이 <칠광도>와 <송정십현도>를 새로 그림
- 이러한 선비문화의 선진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많은 서원과 사우, 정각을 보유
- 선비문화의 문화적 전통이 남아 고현내를 ‘조선 유학의 시발지(始發地)’ 혹은 ‘호남 사림의 중심지’라고 평가한 연구도 있음³¹⁾

<그림 3-10> 송정십현도



30)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2020.

31) 오병무, 「韓國儒林의 발생과 정읍 태산-최치원의 유상대(流觴臺)를 중심으로-」, 『태산 문화조명 학술대회 발표문』, 2000.

〈표 3-2〉 칠보 지역의 원사 및 정각³²⁾

정각명		위치	관련 인물	비고
서원	무성서원	무성리 원촌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연충, 김약목, 김관	사적, 세계문화유산
	용계서원	시산리 동편	최서림, 김정호, 은정화, 한백유, 김습, 유종홍	정읍시향토문화유산
사우	남천사	시산리 삼리	김후진, 안의, 손홍록, 김만정	문화재자료
	도봉사	시산리 삼리	김회련	
	송산사	무성리 원촌	김대립, 김응윤, 김정, 김감, 김급, 송치중	
	시산사	무성리 원촌	최익현, 김기술, 김직술	
	필양사	무성리 원촌	김영상	정읍시향토문화유산
각	동각	시산리 삼리	정극인 등	향약 관련 문서 보물
	연시각	시산리 삼리	김회련	김회련 관련 문서 보물
	어사각	시산리	김도연	현재 옹동면 비봉리로 이건
정	감운정	시산리 송산		
	송정	시산리 삼리	칠광십현	문화재자료
	영벽정	시산리 송산		
	영성정	무성리 원촌		
	한정	무성리 원촌	김약회	정읍시향토문화유산
	허곡정	무성리 원촌	김행건	현재 없음
	호호정	무성리 원촌	김대립	현재 없고 유허비만 있음
	후송정	무성리 원촌	십현	

32) 조성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지역 중심지의 역할 변화와 지리적 관성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 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2006, 579쪽) 이외 많은 정려비각, 유허비 등이 있다.

3)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다. '분충거의(奮忠擧義)'의 고장

■ 조선왕조실록의 수호

○ 태인 출신의 안의와 손홍록

- 안의와 손홍록은 태인에서 출생
- 안의와 손홍록은 태인의 대학자 일재(一齋) 이항(李恒)³³⁾에게 동문 수학

○ 조선왕조실록을 지키다

-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기전과 전주사고에 모셔져 있던 태조어진과 제사용 물품, 조선왕조실록 등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보존
- 다른 지역의 사고에 보관되던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일본군에게 침략당하여 불타 없어졌지만, 오직 전주사고에 남아있던 조선왕조실록만 보존되어 조선 전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음
- 손홍록과 안의는 실록을 지키면서 관련 내용을 기록한 『임계기사(壬癸記事)』를 작성하였고, 이 자료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료를 지켜냈는지 알 수 있음
- 조선왕조실록은 태인 지역 선비들이 지켜낸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들의 국가를 향한 '절의'와 '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 이러한 특수성으로 1997년 10월 1일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
- 후손들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1676년(숙종 2)에 남천사(藍川祠)를 건립하여 이들의 '분충거의(奮忠擧義)'를 기리고 있음
- 이는 지역에 면면히 내려오던 선비정신과 관련 있음

■ 왜란과 호란의 참전

○ 임진왜란과 태인 출신의 활약

- 송상현은 고부 출신으로 동래부사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최전선에서 결사 항전했으나 순국
- 김재민도 고부 출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킴. 김천일, 고경명과 함께 3대 인물로 인정되며 웅치전투 등에 참전. 여기에는 고부뿐 아니라 태인, 정읍 일대의 의병도 참여

33) 남고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 백광언은 태인 출신으로 어머니 상중 임진왜란을 당하자 태인에서 수 백명의 의병을 모았고, 전라관찰사 이광의 선봉장이 되어 용인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순국

○ 고현내 출신의 활약

- 김후진과 김대립 등 고현내 출신은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여 장성 남문 의병으로 참가. 이외 각종 물자를 의주의 행재소와 고경명의 의병소, 명나라 군진 등에 보냄³⁴⁾
- 전덕린은 백광언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용인 전투에서 함께 순절. 사후 모충사에 배향
- 송지순도 쌀 500석을 이산보(李山甫)의 군영에 보냄
- 김관과 김정은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김장생에게 호응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군량을 모으는데 정성을 다함
- 김감은 병자호란 때 성현찰방으로 출전. 삼전도의 굴욕 이후 고향으로 돌아옴

■ 의병 활동의 중심지

○ 병오창의와 항일운동³⁵⁾

- 1905년(광무 9)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여기에 분개하여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남
- 최익현은 을사 5적의 처단을 주장한 ‘청토오적소(淸討五賊疏)’를 올림
- 1906년 3월 15일에 최익현은 고석진과 임병찬을 만나 호남의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무성서원으로 떠남
- 1906년 6월 4일에 무성서원의 강회(講會)를 하면서 창의(倡義)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항일의병을 일으킴. 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으로 평가 받음
- 동년 6월 11일에 일제가 조선의 진위대를 앞세워 공격하자 최익현은 동족끼리 상잔은 불가하다며 의진을 해산시키고 그와 핵심 인물 13명이 체포. 최익현은 대마도에 유배되어 이듬해 순국
- 핵심 인물 13명에 고현내의 김기술이 포함되었고, 후일 『병오창의일기』를 써서 당시의 기록을 남김. 재판 결과 그는 태(笞) 100도(度)의 형벌을 받음
- 1907년에 태인의 유림들은 최익현을 기리기 위하여 태산사(泰山祠)를 건립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훼손됨. 1970년에 후손들은 최익현과 김기술, 김직술을 시산사(詩山祠)에 배향

34) 한문종, 「임진왜란 시기 장성 남문 의병의 활동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35) 강길원, 「勉菴 崔益鉉의 丙午倡義」 『전북사학』 26, 2003.

- 1992년 12월 10일에 정읍지역 유림들이 병오창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무성서원에 '병오창의기적비'를 건립
- 매년 6월 4일에 무성서원에서 병오창의 기념 행사 거행

<p>조선왕조실록의 수호</p>  <p>'분충거의'(奮忠擧義)</p> <p>-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고현내의 손홍록과 안의는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보존</p> <p>-관련 내용은 <임계기사>로 기록</p> <p>-후손들은 남천사 건립</p> <p>-국가를 향한 '절의'와 '충성'을 보여주는 사례</p>	<p>왜란과 호란 참전</p>  <p>의병 활동의 실천</p> <p>-임진왜란에 김후진과 김대립 등 고현내의 선비들이 참전</p> <p>-장성 남문 의병에 참가하고 각종 물자 제공</p> <p>-정묘호란에 김장생이 소모사가 되자 김관이 호응하여 군량을 보내는 등 활약</p>	<p>호남 최초의 의병</p>  <p>병오창의</p> <p>-무성서원은 철폐되지 않은 서원으로 '도원' 역할 수행</p> <p>-을사늑약 후 최익현은 1906년에 호남의병을 모으기 위해 무성서원으로 향함</p> <p>-무성서원의 강회에서 창의를 호소하고 의병을 일으킴</p> <p>-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p>
--	--	--

IV

역사 · 문화 자원화 방안

1. 태산선비문화권

2. 역사문화 자원 활용

IV.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1. 태산선비문화권

1) 태산선비문화권의 재설정

■ 기존의 태산선비문화권 설정

○ 태산선비문화권 용어의 성립

- 태산선비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정립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 2000년 11월 10일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태산선비문화 조명 학술대회” 실시. 여기에서 오병무 교수는 ‘한국유학의 발생과 태산’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태산선비문화권에 대한 개념을 처음 주장³⁶⁾
- 이후 2002년에 『“태산선비문화권” 개발계획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개념 확립
- 동학농민전쟁 문화권과 태산선비 문화권은 상충되는 문화권으로 조화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어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 설치를 실시 주장
- 공간적 범위를 정읍시 칠보면 일대로 하고, 대상 지역에 칠보·태인·북면·용동·산내·산외면 등으로 선정. 즉, 조선시대의 태연현 일대로 범위 설정
- 태산 선비문화의 명칭 설정 : 한국유학의 시발지이자 호남사림의 중심지로 선비 문화를 꽃피웠던 곳. 해동 유학의 창시자 고운 최치원이 나말에 태산(太山, 현 칠보면 일대)에 태수로 도입하여 유교주의적 교화를 이곳 주민들에게 베풀고, 유상곡수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한시문학과 시가문학, 유학 발전에 기초를 다져 놓은 데에서 기인함. 따라서 절조와 온후를 겸비한 선비 기질의 유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유학적 선비 인맥이 형성. 올곧은 선비·절의 정신의 중심지로 이후 실천궁행의 구국이념으로 임진왜란시 창의와 한말의 의병거의 등 선비정신의 실천적 중심 도장으로 지역성을 부각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이 특징³⁷⁾

36) 「태산선비문화 재조명」, 『전북도민일보』, 2000년 11월 19일.(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522&replyAll=&reply_sc_order_by=1)

37) 정읍시, 『“태산선비문화권” 개발계획 연구』, 2002, 171쪽.

○ 태산선비문화권

- 현재 정읍시청은 관광코스 중 하나로 내장산 일원,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태산선비문화권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나절, 하루, 이틀 코스를 개발
- 태산선비문화권을 “정읍 동북권역을 관광하는 코스로 보물 제 289호인 피향정을 비롯하여 신라말의 유현인 고운 최치원과 조선시대 태인현감이던 신잠을 기리는 무성서원, 옥정호 일원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라고 소개
- 정읍시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 패널 등은 “호남 지방에서 선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정읍의 칠보, 산내, 산외, 옹동, 태인, 북면을 일대로 선비문화의 중심지”라고 소개

〈그림 4-1〉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태산선비문화권 소개



※ 태산선비마을영농조합법인은 태산선비마을을 무성리(원촌·은석마을)와 시산리(건흥·시기·송산·남전·동편·복호·행단마을)로 정의³⁸⁾

○ 한계점

- 정읍시에서 정의하는 태산선비문화권은 자동차로만 움직일 수 있는 등 동선이 먼 단점이 있고, 하나의 테마로 묶기에 난감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광의의 태산선비문화권과 협의의 태산선비문화권을 재설정해야할 필요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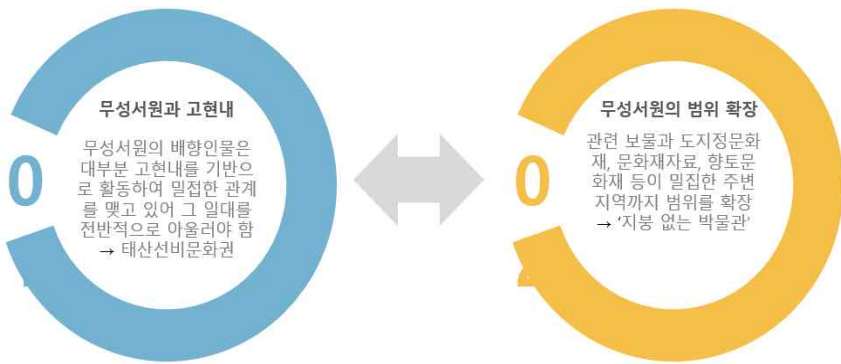
38) 태산선비마을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소개글.(<http://www.taesanin.com/html/intro.html>) 2020년 10월 7일 검색.

■ 태산선비문화권의 재설정

○ 신(新) 태산선비문화권의 설정

-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브랜드 파워와 선비문화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무성서원이 포함된 고현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태산선비문화권으로 정립 필요

〈그림 4-2〉 신(新) 태산선비문화권



- 무성서원을 고현내 일대의 거점으로 하고 주변의 자원을 특화장소로 만들 필요 있음.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은 대부분 고현내를 기반으로 활동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곳을 관리했던 문중들도 이와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함
- 고현내 가운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자원의 밀집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칠광도'에 포함된 지역을 태산선비문화권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
- 따라서 칠보면 무성리, 시산리, 와우리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 필요 있음
- 향후 태인, 산외, 산내, 북면, 용동 등 조선시대 태인현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이곳과 관련 있는 정읍, 순창, 고창 등으로 문화권 확장 가능성 타진

2) 태산선비문화권의 역사문화 자원화

■ 문화재 현황

- 칠보면 무성리·시산리·와우리 일대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지정문화재 3건, 문화재자료 2건 등 총 9건의 주요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 무성서원(사적),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김회련 고신왕지, 고현 내향약(보물)
 - 전라북도지정문화재 : 무성리석불입상, 무성리삼층석탑, 도강김씨 훈도공파 증종 고문서(시도유형문화재)

〈표 4-1〉 태산선비문화권의 주요 문화재 현황³⁹⁾

구분	지정번호	명칭	위치	비고	
유형문화재	보물	437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칠보면 남전길 18-13	조선 태조4년(1395) 도봉사 연시각 보존
		438	김회련 고신왕지	칠보면 남전길 18-13	조선 태조 4년(1395), 태조 6년(1397) 도봉사 연시각 보존
		1181	고현동 향약	칠보면 남전길 90	최초의 향약 고현동약좌목, 태인향약안 등 29 책 동각에 보존
기념물	사적	166	무성서원	칠보면 원촌1길 44-12	세계문화유산 유교
국가지정문화재 소계		4			
도지정문화재	유형 문화재	157	무성리석불입상	칠보면 무성리 434-1	불교유적
		158	무성리삼층석탑	칠보면 무성리 434-1	불교유적
		212	도강김씨 훈도공파 증종 고문서	칠보면 무성길 167-61	교지(教旨) 4점, 교첩(敎牒) 3점, 분재기(分財記) 1점

구분	지정번호	명칭	위치	비고
문화재 자료	133	송정	칠보면 무성리 264	칠광십현 관련
	154	남천사	칠보면 남전길 34-13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손홍록과 안의 배향
도지정문화재 소계	5			
합 계	9			

- 칠보면 무성리·시산리·와우리 일대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지정문화재 3건, 2건의 문화재자료를 보유한 곳으로 작은 공간에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

■ 비지정문화재 현황

- 칠보면 무성리·시산리 일대에는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외에도 다양한 비지정 문화재 자료를 보유
- 이 가운데 용계서원과 필양사, 한정은 정읍시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 지역적으로 무성리와 시산리에 17개씩 동일하게 분포
 - 유형별로 누정 9개로 가장 많고, 정려 6개, 금석문 6개, 서원과 사우가 5개, 회화 4점, 문집 1, 성지 1, 사적 1, 능묘 1로 구성되어 있음
 - 누정과 정려, 서원과 사우 등 선비문화와 관련된 자원이 많음
- 특히, 무성서원과 관계 깊은 지역의 도강 김씨, 여산 송씨, 영광 정씨 등의 유적과 유물도 많음

〈표 4-2〉 태산선비문화권의 비지정문화재 현황

연번	명칭	유형	위치	성격	비고
1	용계서원	서원·사우	시산리 동편길 41-3	제례·교육	정읍시향토문화유산
2	필양사	서원·사우	무성리 원촌1길 14-10	제례	정읍시향토문화유산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39) 정읍시청 홈페이지 '문화유산' 참고 정리.

연번	명칭	유형	위치	성격	비고
3	한정	누정	무성리 원촌1길 14-10	교유	정읍시향토문화유산
4	시산사	서원·사 우	무성리 산 4	제례	태산사 관련
5	송산사	서원·사 우	시산리 산 4	제례	칠광십현 관련
6	도봉사	서원·사 우	시산리 886	제례	연시각과 함께 있음
7	영모당	누정	무성리 산 4	기타	칠광도, 송정십현도 봉안
8	불우현 정극인 묘	능묘	무성리 은석마을		
9	불우현 묘정	누정	무성리 은석마을	제례	
10	송정	누정	무성리 산 4	교유	
11	후송정	누정	무성리 원촌마을	교유	간재 관련
12	영성정	누정	무성리 원촌마을	교유	
13	호호정	누정	무성리 원촌마을	교유	현재 없고, 호호정유허비만 있음
14	감운정	누정	시산리 송산마을	교유	
15	영벽정	누정	시산리 송산마을	교유	
16	송인지 효자정려	정려	시산리 동편마을	효열	
17	김기혁 효자정려	정려	시산리 동편마을	효열	
18	나주나씨 열녀정려	정려	시산리 720	효열	
19	해주오씨 열녀비	정려	시산리 송산마을	효열	
20	사세효 열정비	금석문	시산리 남전마을	효열	도봉사 입구 (①영인 안동권씨, ②김용혁, ③의인 양천허씨, ④김하술 도강김씨 효열려)
21	함평이씨 효자정려비	정려	시산리 남전마을	효열	?
22	정순왕후	금석문	시산리 동편마을	기념비	단종비

연번	명칭	유형	위치	성격	비고
	태생유지비				
23	고현동각	사적	시산리 남전마을	향약	고현동 향약 보관
24	무성리 고비군	금석문	무성리 500	기념비	무성서원 앞에 위치
25	시산리 고비군	금석문	시산리 남전마을	기념비	고현동각 앞에 위치
26	유상대 유적비	금석문	시산리 583-3	기념비	유상대 위치(1970년 재건)
27	의사 김천술 순정비	금석문	시산리 남전마을	기념비	항일 순절
28	김후진 유허비	금석문	시산리 남전마을	기념비	
29	최치원 영상	회화	무성서원	기록물	무성서원
30	무성서원원 지	문집	무성서원	기록물	무성서원
31	칠광도	회화	송정 영당	기록물	칠광십현
32	송정십현도	회화	송정 영당	기록물	칠광십현
33	송정수계지도	회화	송정 영당	기록물	칠광십현
34	무성리 산성	성지	무성리	행정	삼국시대 축조

3) 문화시설 현황

■ 태산선비마을

- (건 립) 2012년 12월 17일
- (주 소)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한옥체험관/숙박시설 갖춘)
- (주요내용)
 -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어촌 인성향교, 마을기업,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받음.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에절다례와 선비놀이, 떡 만들기 프로그램이 가장 호응도가 높음
 - 태산선비마을 시설 및 권역은 농림부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민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 있음
 - 시설은 위탁이며 소유는 정읍시임. 정읍시청 마을활력팀과 5년씩 계약·운영 중임. 본 마을사업은 영농조합으로 마을회(마을 법인)와는 성격이 다름

〈그림 4-3〉 태산선비마을 문화관 전경



자료 : 태산선비마을 홈페이지(http://www.taesarin.com/board/bbs/board.php?bo_table=photo&wr_id=33&page=2)

■ 태산선비문화사료관(구 향토문화사료관)⁴⁰⁾

- (건 립) 1998년 12월 22일
-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원촌1길 12-3 송산선비문화사료관(760평)
- (주요내용)
 - 정읍의 동부권에 위치하였으며 태산선비문화권역의 예술, 민속, 서원, 사우 등 중요 문화자원을 소개
 - 태산선비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실 갖춤. 무성서원, 사우, 효열·정려, 누정 등에 관한 대형 사진자료와 영인본, 30여 점의 유물을 전시

〈그림 4-4〉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전경과 전시실



자료 :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culture/board/view.jeongeup?boardId=BBS_0000001&menuCd=DOM_000000601003000000&paging=ok&startPage=1&categoryCode1=AA01&categoryCode2=BB13&dataSid=524)

40) 정읍시청 홈페이지 '정읍관광' 참고 정리; 연합뉴스, 칠보면 향토문화사료관 개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4633>) 2020년 12월 14일 검색.

■ 칠보물테마유원지

- (개 관) 2010년 3월 12일
- (주 소)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52,447㎡)
- (주요내용)
 - 종합안내소, 물테마파크체험전시관(2층 규모), 야외물놀이장(어린이풀장/유아풀장), 바닥분수, 상춘곡 테마공원, 동진강 생태공원 등 물놀이시설과 공원을 갖춘 테마파크
 - 물품보관소, 수유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또한 갖췄으며 2019년 시비 2억원으로 파손된 바닥보수, 편의제공을 위한 탑승계단 그늘막 설치 등 총 5개 사업 실시
 - 칠보물테마유원지는 ‘피향정,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 섬진강 수력발전소, 옥정호’와 더불어 정읍시 4대권역별 관광 중 <태산선비문화권>으로 묶임

〈그림 4-5〉 칠보물테마파크유원지 조감도



자료 :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culture/index.jeongeup?menuCd=DOM_000000604005004000)

2. 역사·문화 자원 활용

1) 기초자료 집성 및 문화재 지정

■ 칠광도의 활용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⁴¹⁾

- 『무성서원원지』 「지산처사 장서기」에 따르면 안재호는 자신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함.⁴²⁾ 이를 토대로 무성서원에 최소 수백 권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소실되어 문화재청 조사 결과 한국의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 자료가 가장 적음⁴³⁾

〈표 4-3〉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

서원명	소수	도산	병산	옥산	도동	남계	필암	무성	돈암
소장자료 합계	6,256	10,747	5,004	6,256	127+	1,241	929	57	1,941

- 관람객 수 또한 2019년 기준 9개 서원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소수, 병산, 도산서원이 압도적으로 방문객 수가 많으며 남계, 도동, 무성, 옥산, 돈암, 필암서원 순
 - 방문객이 많은 경북의 서원은 수려한 경관 뿐 아니라 서원 관련 자료도 많이 남아 있어 활용과 홍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다른 8개의 서원에 비해 부족한 문헌자료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시각적 효가가 큰 채용신(蔡龍臣)의 ‘칠광도(七狂圖)’ 적극적 활용과 홍보
 - 칠광도는 비단 위에 채색된 회화자료로 무성서원 일대 경관이 그려짐
 - 작가는 어진화사(御眞畫師) 채용신으로 그가 그린 영조 어진(보물 930호), 황현 초상(보물 1494호), 최약현 초상(보물 1510호) 3개는 보물로 지정됨

41) 박정민,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26, 2020

42) 有慕賢興學之心 家藏書冊累百卷 留藏于院中 以爲講習之資 莊脩之寶 猗歎欽哉.(『무성서원원지』 「지산처사장서기(芝山處士藏書記)」)

43)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9-10쪽

- 인물화에 뛰어나 1910년에는 정읍의 태인 지역에 거주하며 항일운동가인 김직술, 임병찬, 김영상 등의 초상도 그림
- 채용신은 전북 출신이자 대한제국기 전후 최고의 화가로 그의 화풍은 인물화 뿐 아니라 화조화와 산수화에서 뛰어난 사생력을 보여준다고 평가 받음. 또한 고종의 어진을 그려 어진화가와 초상화로 이름을 널리 알림
- 어진화사는 왕의 초상을 그린 화공. 채용신은 고종(高宗)의 어진을 그린 인물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가문의 세거지가 전북이고 1900년대 이후에는 전주, 익산, 태인 등지에서 일생을 보낸 전북의 인물

〈그림 4-6〉 영조 어진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4-7〉 황현 초상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4-8〉 최익현 초상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 칠광도는 110년 전, 1910년 당시 무성서원과 일대 주변 경관을 세밀하게 표현
 - 칠광이란 1613년에 광해군의 폭정에 반발하여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은거한 7명(김대립, 김응윤, 김감, 송치중, 송민고, 이상형, 이탁)을 의미
 - 칠광 중 한 명인 송민고가 그린 칠광도를 토대로 1910년에 채용신이 모사한 것이 현재 전해지는 칠광도
- 1910년 당시의 건물배치는 현재와 유사. 특히 태산사, 내삼문, 강당, 현가루, 우측의 강수재는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음
- 칠광도에서 무성서원이 위치한 현재의 원촌마을과 가운데 동편·남전마을, 하단에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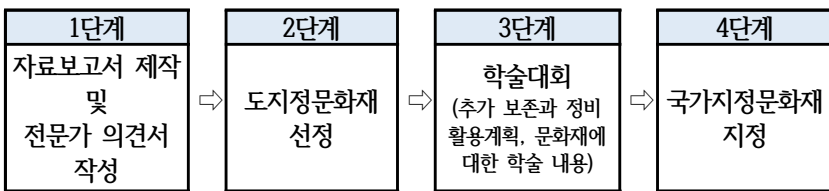
〈그림 4-9〉 칠광도(제공 : 정읍시립박물관)



산마늘은 현재와 같은 양상. 이를 통해 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됐음을 알 수 있음

- 무성서원 외 후송정, 송정과 영당, 유상대 터, 동각, 연시각, 남천사, 호호정유허비, 석불입상 등 칠광도 속에서 다양한 유적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와 시산리의 문화재 자료 및 문화유산이자 향후 역사문화자원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자원
- 한국의 9개 서원 가운데 전근대 그림 자료가 전승된 경우는 드물. 도산, 남계, 필암, 무성서원만 그림자료가 전해지나 이 중 남계와 필암서원은 서원지에 건물 배치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산수화 형태로 전하는 것은 도산과 무성서원 밖에 없음
- 도산서원도는 강세황이 그린 실경산수화로 1970년에 보물로 지정됨.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는 퇴계 이항의 유거지인 계상서당을 그린 그림으로 1973년에 보물로 지정됨
- 반면 칠광도는 도산서원과 같이 무성서원의 건물 위치와 크기, 당대 고현내 일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칠광, 최치원과 같이 지역과 관련된 관념적인 인물도 묘사함. 이는 사료가 부족한 무성서원과 주변 마을에 대한 연구의 기초 및 활용자료로 이용 가능한 토대
- 칠광도는 회화 및 역사성, 지역사 등 여러 면에서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이므로 이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 있음

(표 4-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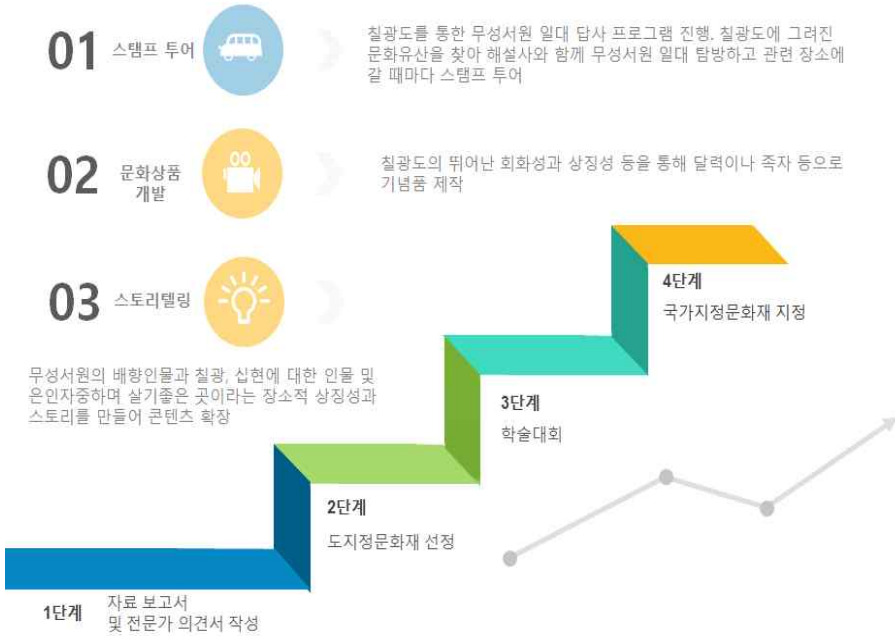


-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은 소장자료가 부족하고 마을 안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이 수려하지 못한 지리적 약점이 있으며 관람객 수 또한 저조함. 이를 타계하는 방편으로 전북 출신 어진화사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를 활용할 필요 있음
- 칠광도가 가지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그림 속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이

현대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무성서원 가이드맵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이 외 칠광도가 가지는 뛰어난 회화성과 역사성의 의미를 짚어 보물로 승격시키고 이를 홍보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도산, 병산서원에 비해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무성서원을 알리고 관람객 동인의 수단으로 이용

○ 칠광도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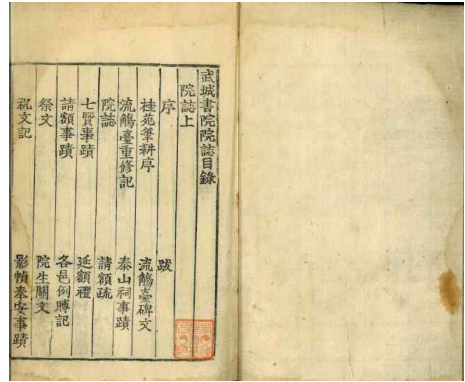


■ 『무성서원원지』의 활용과 문화재 지정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가장 빠른 서원지 간행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과 함께 남계서원(1935·1962), 도동서원(1997), 돈암서원(1958), 소수서원(2007), 옥산서원(1993)만 서원지가 남아 있음
- 이수환의 연구에 의하면 1884년에 제작된 『무성서원원지』는 이들 서원 가운데 가장 먼저 서원지가 편찬되었음⁴⁴⁾
- 이 책은 1884년이라는 정확한 간행 기록이 있고, 편찬자 등도 확인됨. 아울러 당대의 사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작성되었기에 충분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할 가치가 있음

〈그림 4-10〉 무성서원원지 1884년본
(제공 : 정읍시립박물관)



○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는 자부심

-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현재까지 합치된 의견이 없음. 다만 최초의 사액 서원은 1550년에 사액 받은 소수서원임. 이는 주세붕이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것에서 유래. 이 때문에 많은 블로그, 기사 등에서는 소수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라고 오해하고 있음
- 1884년에 무성서원원지를 간행한 이 지역 인물들은 서원의 시작은 바로 무성서원에서 시작되었다고 인식 그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유종(儒宗)이라고 할 수 있는 최치원과 연관성을 들고 있음
- 이는 서원지를 창건할 당시 무성서원이 주자가 건립한 백록동 서원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데 기여

〈사료 8〉 무성서원원지 서(『무성서원원지』 권1, 1930)

우리 동방에서 서원의 설치는 대개 본원(本院)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문학의 창업 역시 선생에서 시작되어 무성서원이 세상의 교화와 관계되는 것이 당

44)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표 1〉 참조

나라의 백록동(白鹿洞) 보다 못하지 않다.

我東書院之設 蓋自本院始 文學之創 亦肇自先生 則斯院之有關於世教者 不下
於唐之白鹿洞

- 사액서원으로 지정된 과정의 세밀함
 - 1696년(숙종 22)에 사액서원으로 지정
 - 사액서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실시한 관련 문서 및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음
 - 1695년 11월에 생원 유지춘을 필두로 수 십명의 유생들이 무성서원에 모여 도내에 알리고, 12월 1일에 무성서원에서 모임을 하여 1696년 1월에 상소를 올리고, 2월 9일에 숙종의 윤험을 받아 11월 23일에 연액을 받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
 - 그 결과 다른 서원과 달리 '무성'으로 사액을 내리고, 복호 3결, 보노 30명이 지급 되고 원생은 30명으로 정해짐
 - 심지어 연액할 때 각 읍에서 낸 물품의 목록까지 기재되어 있음
 - 이를 통해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는 과정의 일면을 알 수 있음
 - 특히, 연액례는 사액서원이 되는 의식 절차를 세밀하게 기재한 것으로, 다른 서원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내용임. 향후 무성서원의 대표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 최치원 관련 중심지로서 근거 기능
 - 신라 말 최치원이 태수로 재임하며 이 지역은 최치원과 관련된 서사들을 만들어 나감
 - 무성서원은 최치원을 배향한 곳으로 상징성을 갖게 되며 후일 경상도 하동 쌍계사에 있던 최치원 영정을 보관하는 계기
 - 이처럼 최치원 영정의 환안과 이안 관련 내용이 무성서원원지에 기재되어 있음
 - 문창후최선생영정봉안사적(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영정봉안시 정장(影幀奉安時呈狀), 영정 봉안일기(影幀奉安日記), 영정 봉안축문(影幀奉安祝文), 원우단확중수기(院宇丹牘重修記), 이안축문(移安祝文)
 - 또한, 최치원이 만들고 노닐었다고 전해지는 유상대와 관련된 중수비문 등도 원지에 기재되어 있어 복원 등에 참고가 됨
 - 이를 통해 향후 전북의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강소성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 있음
-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원규(院規 ; 학칙)

- 무성서원은 과거 공부를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 보다 수신하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
- 주색(酒色)과 잡기(雜技)를 금지하고 학문에 정진할 것
- 무성서원의 교육 목표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

〈사료 9〉 원규(『무성서원원지』 권2, 1884)

1. 성현의 글이나 성리설이 아니면 서원에서 펼치고 읽지 마라. 사서(史冊)는 들여오기를 허락한다. 과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데서 익히도록 한다.

一 非聖賢之書 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院中 史冊許入 若欲做科業者 必習於他處

1. 서적을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주색(酒色)은 문 안으로 들일 수 없다. 잡기(雜技)를 행해서는 안 되고 형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一 書籍不得出門 酒色不得入門 雜技不得行 刑罰不得用

○ 현재와 부합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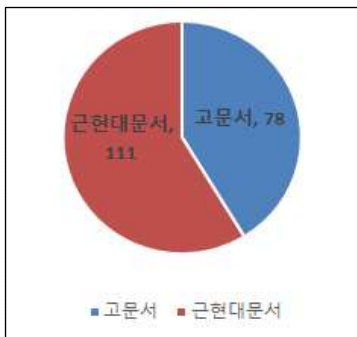
- 성인지 감수성 :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말, 농담이나 오만한 말, 여색을 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⁴⁵⁾이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고 있었음
- 영호남 교류의 장(場) : 하동 쌍계사에 유학의 종주인 최치원의 초상화가 남겨져 있다는 데 영호남의 유생들이 분개하여 본손인 최항대의 집에 모셨음. 이후 최항대의 집도 쇠락하였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무성서원에서 봉안하기로 결의. 이를 통해 이전에는 영호남이 대립을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의명분이 있다면 서로 협력했던 일을 알 수 있음
- 관련 내용을 안내판 등에 기재하고, 관련 스토리텔링을 통해 선비문화가 고루하다는 이미지 탈피

45) 不言淫媒媒戲慢評論女色.(『무성서원원지』 권2, 1884)

■ 무성서원의 고문서·고문헌·전적 실태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교넷, 한국학자료센터, 호남 기록문화시스템, e뮤지엄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무성서원 관련 자료를 추출
 - 이혜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2012)를 바탕으로 무성서원 소장 자료 뿐 아니라 무성서원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문서, 방문자 기록, 서원과 관련되어 발생 사항을 기록한 각종 문서, 전적, 무성서원 일대가 그려진 회화자료를 포괄하여 조사함
 - 또한 무성서원이 사액 받기 이전의 명칭인 태산서원, 인근 동각의 고현동향약도 아울러 조사 대상으로 삼음
- 전체 296건이 조사됨.⁴⁶⁾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 79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수집됐으나 무성서원 관련 자료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음
 - 국편에서 진행한 ‘전북 정읍시 지역사 조사 수집 자료’의 일환으로 상당한 자료가 수집됐으며 일부 ‘전북 김제시 지역사 수집자료’에도 무성서원 자료가 있음. 그 다음으로 한국학자료센터에 59건 자료가 있으나 그 중 2건은 국편 전자자료관에서도 볼 수 있음
 - 각 기관마다 문서명, 정리기재 방식이 상이함. 무성서원의 위상에 걸맞는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료 정리 기준(안)과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필요
- 시기적으로는 근현대, 자료군으로는 문서류가 가장 많이 조사됨

〈그림 4-11〉 무성서원 관련 문서류 시기 현황



구분	내용	비중(%)
시기	근현대자료	78.7
자료군	문서류	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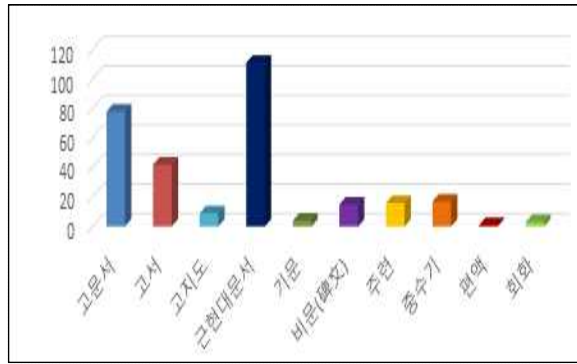
46) 관련 목록은 별표 참조.

○ 사료성격 구분

- 고문서의 하한(下限)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견해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제와 문서식이 바뀌기 때문에 1910년 이전까지로 파악함. 본 보고서에서도 1910년까지를 고문서, 이후 작성된 문서는 근현대문서로 분류
- 고서는 무성서원의 운영현황과 내력을 잘 보여주는 『무성서원원지』와 무성서원 소장 고서가 대상
- 고지도 및 회화는 무성서원이 기록됐거나 그려진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
- 기문, 비문, 주련, 편액, 중수기는 무성서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정리

구분	건수
고문서	78
고서	42
고지도	9
근현대문서	111
기문	4
비문(碑文)	15
주련	16
중수기	17
편액	1
회화	3
합 계	296

〈그림 4-12〉 무성서원 관련 자료 사료성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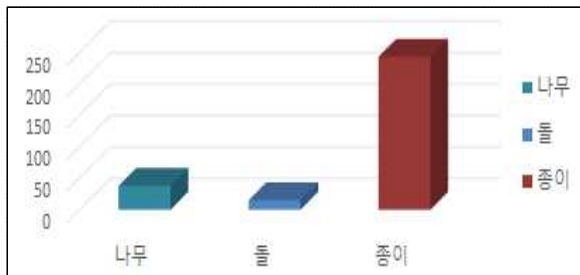


○ 매체 유형

- 고문서, 고서, 고지도, 근현대문서, 회화자료가 다수 종이자료로 존재함
- 무성서원에 15기의 비석과 비석각이 존재하며 주련, 기문 등 나무자료도 38건 차지

구분	건수
나무	38
돌	15
종이	243
합 계	296

〈그림 4-13〉 무성서원 관련 자료 매체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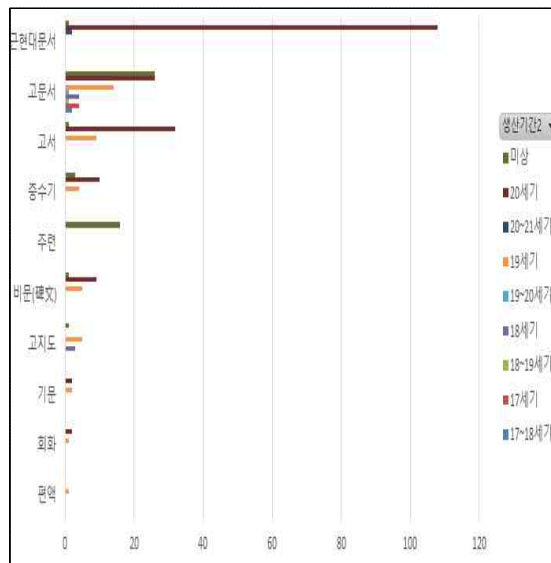


○ 시기 분석

- 가장 이른 시기 자료는 1607년 태산서원을 참배한 사람들의 방명록인 심원록으로 이 자료는 50년간의 참배자가 기록되어 있어 통시적으로 방문객의 신분, 목적 등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음. 또한 1609년부터 1778년까지의 심원록도 현전하고 있음
- 1618년, 1622년의 태산서원 유생안 이외 1636년 태산서원이 사액을 받아 “무성서원”으로 명명화 되는 과정에 있었던 중요 사안이 정리된 연액기사도 존재함
- 17-18세기 자료는 소량이나 통시적으로 서원의 방문객을 살필 수 있는 자료와 연액 관련 실물 문서가 남아 있음. 무성서원원지, 연대기 사료와 교차점검을 통해 일련의 사액 받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여 중요한 자료
- 가장 많은 자료의 시기는 20세기로 총 189건이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19세기 자료가 41건 존재하여 전체 77.7%에 해당. 1900년대 초반 고문서부터 근현대문서, 고서, 비문, 중수기, 편액 등 자료군도 폭 넓음
- 종합적으로 무성서원 자료의 시기적 특징은 사액과 관련된 초창기 자료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서원의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자료가 조선시대 전 시기를 관통하여 존재함

구분	건수
17세기	4
17-18세기	2
18세기	7
18-19세기	1
19세기	41
19-20세기	1
20세기	189
20-21세기	2
미상	49
합 계	296

〈그림 4-14〉 무성서원 관련 자료 시기 현황



○ 고문서/근현대문서 내용분석

- 문서류 총 189건 중 78건(41.3%)이 고문서이며, 근현대문서는 111건(58.7%)로 근현대문서가 과반이상 차지

〈표 4-5〉 무성서원 관련 고문서·근현대문서 분류

구분	분류	건수	합계
고문서	통고; 통문	29	78
	과거·임용; 망기	12	
	소송·청원; 상서	6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6	
	소송·청원; 상언	6	
	기록류; 명단류; 유안	4	
	증빙·공증; 원문	3	
	기록류; 명단류; 기타	2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2	
	관혼상제; 제문	1	
근현대문서	통고; 통문	54	111
	과거·임용; 망기	11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5	
	관혼상제; 시도기	5	
	명령·보고; 고목	5	
	기록류; 치부류; 회계	3	
	기록류; 기타기록류; 기타	3	
	기록류; 명단류; 계안	3	
	기록류; 명단류; 기타	3	
	기록류; 치부류; 치부	2	
	소송·청원; 상서	2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2	
	과거·임용; 임명장	2	
	기록류; 절목류; 절목	2	
	기록류; 치부류; 전답안	1	
	근현대시기문서; 군지	1	
	기록류; 규약류; 향약	1	
	명령·보고; 품고	1	
	근현대시기문서; 증서	1	
	사부; 지리류	1	
	서간; 간찰	1	
관혼상제; 제수물목	1		
식민시기문서; 증서	1		
총 합계		189	

- 고문서에서 통문이 29건, 근현대문서에서는 54건으로 공통적으로 통문이 가장 많이 현전함. 대부분 당시 효자, 열부 등을 널리 표창하자는 내용이거나 족보 편찬, 서원휘철령 이후 설단(設壇)하는 문제 논의, 사당건립 등에 관한 내용임

- 무성서원 임원으로 임명된 망기(望基)와 고목(告目) 외에도 무성서원 기부 영수증, 무성서원에서 각 서원과 향교로 보낸 통문, 무성서원 방문자가 기록된 시도기(時到記)·심원록(尋院錄), 효자 및 열부의 행적을 알리는 상서(上書), 무성서원 근처에 남몰래 장사지낸(偷葬) 일과 관련한 각종 문서들이 존재

■ 무성서원 소장 자료의 집성 및 활용

○ 고서 및 고문서의 특성⁴⁷⁾

- 2010년에 무성서원의 고서와 고문서를 조사한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은 15종 15책의 성책고문서를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 크게 ①유생안류 4책, ②완문·절목 2책, ③심원록·봉심안 6책, ④기타로 연액기사와 중수일기, 무성서원제물책 등 15책으로 구분
- 특히, 『연액기사』는 연액에 관한 제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 다른 서원에서 발견되는 연액의절(延額儀節) 중 가장 빠른 형태는 1839년의 옥산서원인데, 이보다 150년 가량 빠르고, 더 많고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어 다른 자원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

① 유생안류 : 1618년과 1620년, 1622년, 1639년, 1659년의 태산서원유생안을 하나로 합철하였고, 1773년, 1800년의 원생안, 1801년의 노비안이 철되어 있음. 이는 사액 받기 이전과 이후의 유생안으로 당대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가치가 있음

② 완문·절목 : 1838년과 1845년의 완문은 전답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으로 무성서원의 경제 운영 등을 알 수 있음. 특히, 이 자료는 무성서원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부연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음

③ 심원록·봉심안 : 18세기 중반 - 20세기 초까지 약 200년 간 무성서원을 다녀 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 학맥과 인맥, 정치성향 등 인적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 이를 토대로 무성서원의 흐름이나 성향, 태인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④ 기타 : 『연액기사』는 1696년에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 특히, 연액행사를 진행할 때 예관 등이 왔던 내용, 홀기 등까지 기록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연액되었는지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 자료. 『중수일기』는 1783년에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중수하는 내용부터 이듬해 쌍계사로부터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의 모든 내용을 적은 일기체 기록으로 최치원 영정의 이안과 봉안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이러한 자료들은 타서원에 비해서 300년, 400년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

47)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9개 서원의 자료정리 현황과 과제』, 2012, 6-7쪽.

- 이외 무성서원의 강습례 자료 등도 서원 훼손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중요한 교육의 기관이었음을 보여주고, 갑을기사의 내용과 같이 실행 연도, 횟수,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음. 또한, 홀기 등을 통해 강습례를 실시하는 절차, 배치도 같은 것들도 많은 자료로 남아 있음.⁴⁸⁾ 이러한 자료들은 충분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고, 당대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 현판의 조사 및 활용

- 무성서원의 현판은 태산사(사우)에 2개(주련 2매 포함), 무성서원(강당)에 26개(주련 6매 포함), 현가루(문루)에 5개, 강수재에 9개(주련 4매 포함) 총 42개가 있음
- 이 가운데 강당에 걸려있는 ‘무성서원’의 편액은 1696년에 사액을 받을 때 받은 것이고, 이외 강당중창기, 중수기, 무성서원최선생중간기, 무성서원원자개간기 등이 있음
- 대부분은 화재 이후 중건 한 뒤인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전반기에 제작되었음. 즉, 19세기부터의 자료는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음

〈표 4-6〉 현판의 제작 연대 분포(주련 제외)

연대	수량
- 1800	1
1801 - 1850	3
1851 - 1900	12
1901 - 1950	16
1951 - 현재	5
합계	37

- 1825년(순조 25)에 무성서원은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현판은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보임
- 대부분 『무성서원원지』에 수록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15개 정도 있음
- 현판의 찬자는 대부분 서원의 원임과 원장을 역임한 관찰사와 현감
- 현판과 기문들이 연대·성격별로 내력이 적혀 있어 무성서원의 특징과 함께 연혁을 알 수 있음
- 현판은 다양한 성격과 내용이 있으며 서원의 유래와 역사성을 감고 있는 문화 콘텐츠이

48) 박종배, 「불우현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4,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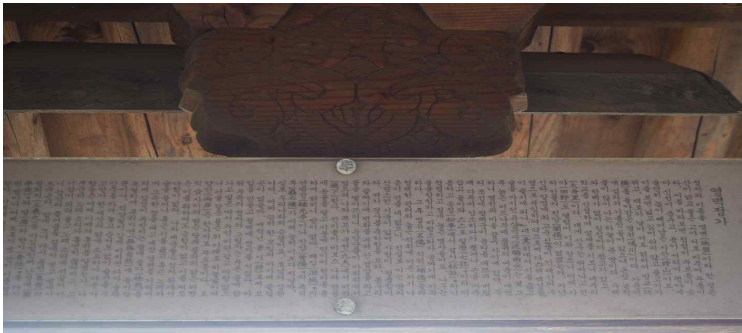
자 그 자체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음

- 현판의 번역을 실시하여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관람객에게 알릴 필요 있음. 근처의 영성정은 현판의 번역문을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계판하였고, 이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선례로 자리할 수 있음

〈그림 4-15〉 영벽정 현판과 번역문



〈그림 4-16〉 영벽정 현판 번역문



- 현판의 내용은 무성서원의 증진, 서원지 개간 등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스토리텔링 방안 마련을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 자극
- 이외 중요 서적과 문서 등을 복제하여 주변의 전시관 혹은 야외 전시, 무성서원의 강당 등에 키오스크(Kiosk)⁴⁹⁾ 혹은 조형물이나 상징물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홍보할 필요 있음

49)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며 일상생활에 디지털화가 공존한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뉴딜 등을 통해 문화유산 등에 디지털화에 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키오스크의 설치로 무성서원의 자료를 소개하는 방식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7〉 전라감영 선화당의 디지털 병풍과 관련 조형물



- 특히, 병오창의의 배경이 되었던 무성서원의 강습례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모습을 재현하거나 특강 등의 중심지로 의미부여할 필요 있음

○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사업 추진

-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9개 서원 가운데 서원별 소장 자료로 무성서원이 가장 적음

〈표 4-7〉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⁵⁰⁾

연번	서원명	현전 자료의 수량	합계
1	소수서원 (경북 영주)	1. 전적 : 三國史記(보물525호), 內賜本, 회재 手澤本 등 943종 3,977책 2. 고문서 : 院任·院生案, 土地·奴婢案, 尋院錄, 都錄, 通文, 所志 등 약 1,156점 3. 책판 : 晦齋先生文集 등 19종 1,123장	6,256
2	도산서원 (경북 안동)	1. 전적 : 퇴계 手澤本, 內賜本, 易東書院 藏書 포함 1,026종 4,605책 2. 고문서 : 完文, 尋院錄, 院任案, 土地·奴婢案, 通文 등 2,128점 3. 책판 : 退溪先生文集 등 57종 4,014점	10,747
3	병산서원 (경북 안동)	1. 전적 : 家禮諺解, 西厓集, 良齋集 등 1,071종 3,039책 2. 고문서 : 書院要覽, 院任錄, 入院錄, 居齋案, 講案,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58점 3. 책판 : 西厓先生文集·別集, 童蒙須知, 陶山及門錄辨訂 등 25종 1,907점	5,004
4	옥산서원 (경북 경주)	1. 전적 : 三國史記(보물525호), 內賜本, 회재 手澤本 등 943종 3,977책 2. 고문서 : 院任·院生案, 土地·奴婢案, 尋院錄, 都錄, 通文, 所志 등 약 1,156점 3. 책판 : 晦齋先生文集 등 19종 1,123장	6,256
5	도동서원 (대구 달성)	1. 전적 : 景賢錄 등 내사본 10종 26책 2. 고문서 : 道東重朔事蹟, 各處通文體草, 院任錄, 入院錄,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3. 책판 : 景賢錄 1종 71판 4. 기타 : 제기 30점	127+
6	남계서원 (경남 함양)	1. 전적 : 寒州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등 147점 2. 고문서 : 經任案, 院錄類, 哀寶錄類, 田畝案, 秋收記, 通文, 簡札 등 717건 3. 책판 : 一蠹先生文集·介庵先生文集 책판 377점	1,241
7	필암서원 (충남 논산)	1. 전적 : 家禮輯覽, 經書辨疑, 書傳, 樂學軌範 등 78종 245책(1969) 2. 고문서 : 奴婢譜, 院長先生案, 執綱案, 補講案, 文稷案, 西齋儒案書, 院籍, 長城府使下帖 등 68건 3. 책판 : 河西先生文集(舊·新), 草千字, 楷字, 墨竹, 筆法板木 등 7종 616판	929

50)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9-10쪽.

8	무성서원 (전북 정읍)	1. 고서 : 直軒集, 肯構堂遺稿, 武城書院誌(1930) 등 8점 2. 고문서 : 泰山書院院(生)儒案, 院生案, 尋院錄, 奉審錄, 完文, 延額記事, 重修日記, 慕賢稷案 등 49종	57
9	돈암서원 (전남 장성)	1. 고문서 : 金長生文廟配享教旨, 儒生到記, 院中賭地記, 齋中記簿, 節目, 學稷案, 田畝改量案, 齋任錄, 連山縣齋任錄 등 10종 2. 책판 : 沙溪先生遺稿, 沙溪全書, 慎燭齋先生遺稿 등 11종 1,841판	1,941

- 2012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의 자료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
- 무성서원은 원래 자료가 없었다기 보다 관리 소홀과 무관심 등으로 자료가 없어졌을 가능성 높음
- 『무성서원원지』 상(1884)의 <지산처사안재호장서기(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를 보면 안재호가 1872년의 남학당 증건과 1873년 무성서원의 강습례를 보고 집안에서 소장하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여 강습과 장수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록 있음. 이를 통해 무성서원에도 최하 수 백 권의 책이 있었을 가능성 높음
- 이외 무성서원에서 다른 향교 혹은 서원 등에 보낸 통문 등이 한국학자료센터 등에 남아 있음. 아울러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관련 자료를 집성하고, 웹서비스를 통해 전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성서원에 대한 연구가 두터워야 관련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음. 따라서 무성서원 등재 기념일에 맞추어 매년 정례적인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야 하고, 연구논총, 번역서 등의 출간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전라북도 혹은 정읍시에서 일정 재원을 마련해야할 필요 있음

2) 거점지역 구축

■ 태산선비문화수련관 건립

○ 태산선비문화권과 정읍시 도시기본계획⁵¹⁾

- 2004년 정읍시에서 지리적·관광자원 특성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권, 정읍시문화권, 역사문화유적지권, 태산선비문화권으로 나눠 도시기본계획을 세움
- 태산선비문화권은 칠보·산내·산외·용동·북·태인면 6개 면지역에 속함. 이곳에는 2원(무성서원, 용계서원) 5사(시산·송산·필양·남천·도봉) 등 유학 관련 성현을 모신 서원과 사우가 다수 존재
- 고운 최치원, 정극인의 상춘곡을 비롯해 무성서원에서 항일구국 병오창의가 일어나는 등 무성서원 일대는 호남 선비정신의 정수
- 정읍시는 호남의 선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무성서원 인근에 '고운 태산선비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움

○ 태산선비원 건립 필요성

- 유식공간인 현가루와 유상대 등 선비정신과 풍류를 즐기고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정읍시에서는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통칭 태산선비원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규모, 타당조사 편익추정 등의 이유로 행안부에서 부결됨
- 무성서원은 마을 안에 위치한 특이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육활동과 위기의 순간에 일어서는 등 실천적인 유학 정신을 보임
- 세계적으로 지켜나 가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심기관으로 '태산선비원' 건립이 필요

〈표 4-8〉 세계유산 가치에 공헌하는 '한국의 서원' 무성서원 등재기준 충족도

구분	등재기준(Ⅲ)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람활동
무성서원	교회활동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51) 「호남권 선비문화 '태산선비원' 국비확보 제도전」, 『케이렌뉴스』, 2019년 2월 14일.(http://www.klan.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45081)

〈표 4-9〉 태산선비원 추진 현황

구분	고운태산선비원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	무성서원 선비수련원
시기	2016년	2017년	2019년
위치	칠보면 무성리 396번지	칠보면 무성리 일대	칠보면 무성리 일대
규모	2만9395㎡	4만2492㎡	4만2492㎡
사업비	76억 2600만원	296억 2600만원	218억
추진 내용	지상 2층 1동 (선비체험관, 한옥체험관, 상춘곡공원 등)	선비체험관 6개관, 한옥체험관 3개관, 공원, 부대시설 등	선비체험관 5개관, 한옥체험관, 공원, 부대시설 등
추진 현황	x	x	x
특이 사항	-	정극인의 후손 영광정씨 문중에서 정읍시에 문중토지를 기부채납	2018년 행안부 심사에서 부결. 사업비 축소



※ 출처 : 정읍시청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사례

- 경상도 안동은 선비정신을 문화브랜드로 구축하여 2002년 도산서원 부설기관으로 전통 문화 수련 시설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건립
- 2006년에는 경북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며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외에도 민간기관, 사회단체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누적 1,232기 186,541명이 수료
- 중국, 일본, 해외 단체도 수련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임. 성인 중 94%, 학생은 89.4%가 만족도를 보임

〈그림 4-18〉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건물동과 방문자 수



자료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http://www.dosansunbi.kr/>)

- 하지만 다수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생태이동통로를 차단하고, 경관도 좋지 않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 다른 8개 서원은 주변을 정리하여 하천 등이 정갈하게 정비되어 있음

○ 정책동향

-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수질, 수량, 재해 관리 등의 물관련 업무가 2019년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
- 2020년 5월에 ‘물관리기본법’(2020.5.26. 시행령)이 제정
- 역사문화와 관련된 법안을 보면 크게 세 개의 항목을 주목할 수 있음
-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유량 측정, 환경 등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 문화와 생태를 입히는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해야할 필요성

〈자료 1〉 물관리기본법(2020.5.26. 시행령)

- ▶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 ▶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 물관리통합법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추진한 자료에 의하면 강문화와 생태문화 활성화 종합 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있음⁵²⁾

52)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기공식», 『전북도민일보』, 2008년 9월 24일.

53) 환경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2018, 162쪽.

- 강 생태문화 복원과 활성화에서는 단기적으로 고유 강문화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음. 그 기본방향은 강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증진하고 이들을 시민의 생활과 가까이 연결하여 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것
- 아울러 각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과 유산을 복원하여 국토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자산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강 역사문화의 조사복원 사업 추진 및 지역 상품화를 추진⁵⁴⁾
-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안에도 자연성 회복 추진 방향 및 과제 제시⁵⁵⁾
 - ‘더불어 사는 강’ 항목에 역사문화 복원과 주민참여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금강 종합계획 수립 제시
 - 향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역사와 문화 복원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적시 예정
- ※ 금강유역에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포함
- 무성서원 일대의 강점과 사업의 필요성
 - 110년 전에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는 이 지역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현재 훼손된 지역의 여건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1910년대에 작성한 이 일대의 지적도, 1930년대의 1:100,000지도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옛 모습을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음
 - 무성서원과 최치원, 후송정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태산선비문화이 지역은 칠보물테마유원지와 동진강생태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칠보수력발전소 등의 자원을 토대로 하천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음
 -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주변의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강문화’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태산선비문화권은 관련 사업의 최적지로 판단
 - 구술 자료 등에 의하면 은석천에서 물고기 잡이(川獵)를 했다는 내용 등을 통해서도 생태하천 복원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할 필요성 있음

54) 환경부, 앞의 보고서, 2018,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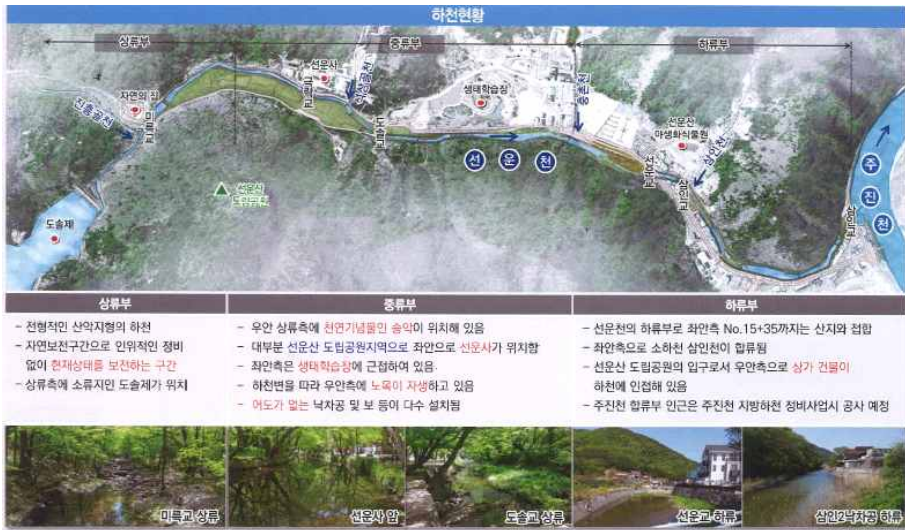
55) 금강유역환경청, 『제안요청서-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안』, 2020, 11쪽.

- 아울러 최치원과 유상대리는 상징성을 토대로 동진강 주변을 유상대생태공원 등으로 명명하여 광역사업화 할 필요성 있음

○ 관련 사례

-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 2017년 3월 20일 - 2020년 9월
 - ▶ 생태하천 복원 사업 : 2021년 - 미정 / 예산 : 152억 3840만원
 - ▶ 사업 범위 : 선운천(1.90Km), 충춘천(0.50Km)
 - ▶ 추진 내용 : 선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하고, 생태하천의 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청정의 하천공간 제공. 하천개수 및 보축 : L=2.40Km. 생물서식처조성, 생태탐방로, 수변생태관찰원, 친수공간 조성

〈그림 4-20〉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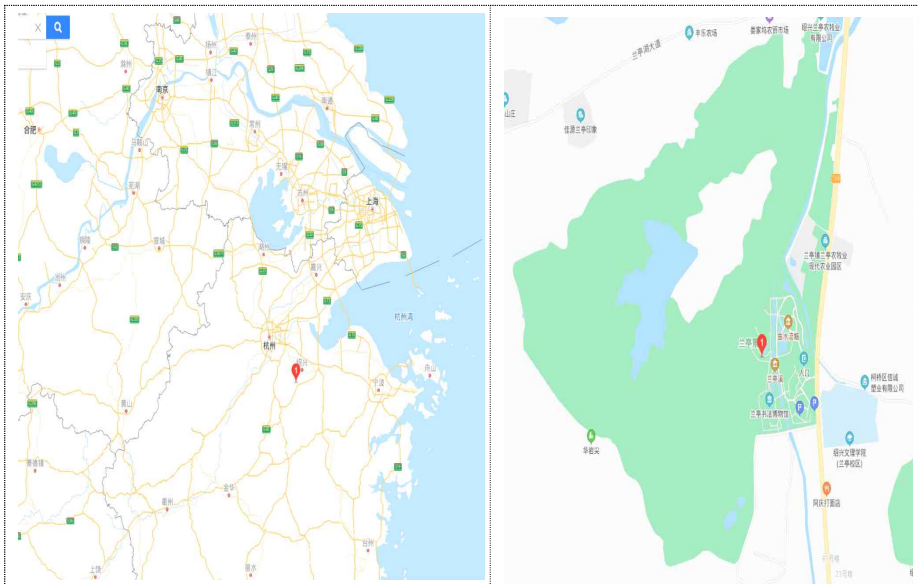
※ 출처 : 고창군,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2020

■ 풍류지구 조성 : 유상대의 복원과 랜드마크화

○ 유상대는 최치원이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였다는 곳으로 현재 동진강변의 감운정이 그 장소로 지목

- ‘유상곡수(流觴曲水)’는 한중일 문화권의 선비와 귀족들이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를 읊던 곳
- 4세기 경 명필로 유명한 왕희지가 절강성 소흥(紹興)의 난정(蘭亭)에서 즐기고 기록에 남긴 난정서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새로 조성하며 많은 관광객 유입의 계기 마련

〈그림 4-21〉 난정의 위치(<https://map.baidu.com> 참조)



- 경주의 포석정은 현재 남아 있는 유상곡수의 가장 오래된 유적
- 일본의 야리미즈(瀧水) 코스쿠이(曲水)로 구성된 모츠지(毛越寺)나 헤이안(平安)이 대표적
- 『무성서원원지』의 유상대증수비, 유상대비문 등에 최치원이 이곳에서 유상곡수를 즐긴 흔적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음
- 『무성서원원지』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도 유상대를 그렸고, 심지어 일부 지도에서는 무성서원은 없다 해도 유상대는 기입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4-22〉 현재 난정의 모습(<https://www.baidu.com> 참조)



〈그림 4-23〉 고지도에 보이는 유상대



동여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해동지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편집)

○ 유상대를 복원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최치원과 연관성 강조 및 랜드마크화

- 현재 칠보물테마유원지에 유상곡수가 조성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아울러 규모 자체도 작아서 관람객들조차 유상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음. 따라서 역사적 현장에 규모를 확장하고, 유상대외에 최치원과 관련된 동상과 기념물, 시설물들

〈그림 4-24〉 칠보물테마유원지의 유상대



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 있음

- 2005년의 발굴 조사 결과 약 300㎡ 규모의 단일암반이 감운정 일대에 있으며 표면에 오목함과 볼록함이 나타난 요철(凹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⁵⁶⁾
- 발굴조사 결과와 『무성서원원지』의 유상대비문의 내용에 ‘울퉁불퉁한 바윗돌, 그 아래 강물이 흐른다’는 내용은 일치

〈사료 10〉 『무성서원원지』 2, 「유상대비문, 1884

- 태인군(泰仁郡)은 바로 신라의 태산군(泰山郡)이다. 이곳은 문창후(文昌侯) 최공(崔公)이 옛날에 태수로 재직한 곳이다. 관아의 남쪽 7리쯤 되는 곳에 울퉁불퉁한 바윗돌이 있고 그 바위 아래로 강물이 휘돌아 흐르는데, 문창이 매번 여기에서 술잔을 띄우고 노래하며 일소(逸少)의 고사를 흥내냈다고 지금도 부로(父老)들이 전한다.

泰仁郡 卽新羅之泰山郡 文昌侯崔公舊所莅也. 郡南七里許 巖石盤陀 巖下流水環廻. 文昌每觴詠於斯 倣逸少故事 至今父老相傳焉. 臺歲久荒廢 余友趙使君子直 視篆之暇 逍遙乎臺上 悠然有曠世之感. 累石增築 立小碑以識之 屬余爲記.

〈그림 4-25〉 칠광도의 유상대



- 따라서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은 유상대에서 최치원과 관련성을 노래하는 시를 지었음. 예) 정지유 등
- 감운정에는 유상대중수비도 위치하고 있어 유상대의 복원을 한다면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아울러 무성서원원지에 유상대비문도 있는 만큼 이 내용을 새긴 비석도 세울 필요 있음

〈그림 4-26〉 장수 뜰봉샘 생태공원의 조형물



- 유상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만큼 조각상, 유상대의 복원, 선비와 관련된 조형물

56) 전북문화재연구원, 『유상대지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약보고서』, 정읍시, 2006.

제작,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무성서원과 함께 랜드마크화 할 필요 있음

- 단순히 유상대만 복원하는 형태를 넘어 고현향약이 가지고 있는 '향음주례'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음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 아울러 유상곡수연을 토대로 한 문화예술을 프로그램의 개발로 예술가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배려

〈그림 4-27〉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금강의 조형물



■ 가사문학지구 조성 : 상춘곡 꽃 동산

○ 가사문학57)

-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나온 다행성율문(多行性律文)의 문학형식으로, 작자는 사대부, 승려·부녀자 등 다양
- 가사문학의 발생기 : 고려 말 - 조선 성종. 나옹화상(懶翁和尙)의 <서왕가(西往歌)>와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
- 전성기 : 성종 이후 - 임진왜란. 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향유. 전원과 강호의 생활을 노래하는 강호가사, 공무의 틈을 내어 임지 곳곳을 둘러보며 임금에게 충성과 자신의 감흥 등을 노래한 기행가사, 유배지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고독함을 노래한 유배가사 등이 있음. 당시 송순과 백광홍, 정철 등이 대표적
- 보편화 : 숙종대 이후. 이전의 형식의 계승과 함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같은 실용가사,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평민가사 및 애정가사, 남인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가사, 그리고 규방가사 등 새로운 점들이 많이 나타남

○ 가사문학공원 조성

- 정극인은 원촌마을에 초가집으로 지은 불우헌(不憂軒)을 짓고 여기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했고, 그 발현물이 상춘곡임
- 현재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앞에 정극인 동상이 있고, 그 뒤에 상춘곡이 새겨진 문학비가 세워져 있음. 그리고 성황산에 상춘곡의 일부를 적은 안내판을 통해 산책로를 조성. 향후 정읍시는 무성서원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
- 이 일대에는 한정, 송산사, 송정, 필양사 등이 밀집해 있어 항일독립지구와 가사문학지구를 병행하여 조성
-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일대에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가비를 세우고, 관련 작품들을 QR코드로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정읍의 가사문학을 즐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 필요
- 가사문학공원을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영성정, 후송정 일대까지 확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가사문학관의 건립 추진
- 주변에 가사 혹은 정극인과 관련된 조형물을 작성하여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 필요성 있음

57) 한국고중세사전, 가사문학(<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9091&cid=62047&categoryId=62047>) 2020년 10월 16일 검색.

- 후송정 주변을 정비하고, 휴게와 산책 등이 가능한 시설을 동선에 맞추어 배치하고 상춘곡의 이미지 극대화

○ 꽃동산 조성

- 현재 정읍시의 캐치프라이즈는 ‘향기나는 정읍’
- 현실에서 물러나 봄의 경치를 구경하고 즐기며 자연과 하나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상춘(賞春)’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곡의 배경인 성황산과 동진강 일대의 경관을 가꾸어야 함
- 성황산과 가시문화공원, 동진강변을 꽃동산으로 만들어 상춘객의 유입 강화할 필요
- 기존 동진강변의 벚꽃과 연계 가능
- 봄에 철쭉, 꽃잔디, 가을에 국화, 코스모스 등을 심어 봄과 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관광지로 조성

〈사례 1〉 진안 원연장 마을 꽃잔디 축제⁵⁸⁾

- 매년 꽃잔디 축제 기획
-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대표적 관광·체험 마을
- 2019년 4월 13일 - 5월 12일
- 입장료 형식(3000원)의 쿠폰으로 음식을 구입하거나 체험하는 시스템 구축
- 전북투어패스권 할인 행사와 연계한 서비스 진행(진안고원 치유숲, 진안 가위 박물관,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
- 주변 마이산 등과 연계한 코스 마련 가능

58) 전라북도공식블로그, 2019 진안꽃잔디축제, 2020년 10월 19일 검색. <그림 4-22>도 이 블로그에서 참조.

〈그림 4-28〉 진안 원영장 마을 꽃잔디 축제 관련 사진 및 안내도



○ 정극인 묘역 정비

- 정극인 묘역은 원촌마을 서편 끝에 있어 가사문학공원과 정 반대에 위치하지만, 정극인이라는 인물을 고려했을 때, 그의 묘역을 관리하여 관람객에게 같이 참배의 의미를 공유할 필요성 있음
- 이를 통해 현장 학습과 역사 문화 계승의 장으로 활용하여 후손들의 자긍심뿐만 아

나라 시민의 자존감을 제고하고, 관람 거리를 증대

- 향후 정극인 묘역을 전북도기념물로 지정하고, 안내판, 조형물, 화장실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 등을 추진
- 정읍시에서 추진중인 태산선비원의 위치가 정극인 묘역 주변이므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서라도 재정비할 필요 있음

〈그림 4-29〉 정극인선생 묘



- 사례 : 이항복선생묘

구분	내용
대표명칭	이항복선생 묘
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산4번지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24호
지정일	1975년 9월 5일
시대	조선시대

■ 항일 독립운동 역사지구 조성

○ 무성서원의 '병오창의'

- 최익현은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이듬해인 1906년 무성서원에 방문하여 임병찬, 김영상, 김기술, 김직술 등의 협조를 얻어 무성서원에 유림을 모음
- 무성서원에서 강습례를 마친 후 여러 지사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킴
- 이곳은 1906년 6월 12일(음력 윤4월 21일)에 호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의병이자 전국 천 여개 서원중 유일하게 일제의 을사늑약에 항거한 대표적인 독립운동사적지
- 태인 지역의 선비들뿐만 아니라 호남 각지의 인물들이 함께 모여 창(倡義)
- 1992년 정읍군수 김성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병오창의기적비'를 세움
- 이후 정읍시는 거사일인 6월 12일에 맞추어 매년 추모제를 실시

○ 병오창의에 참여한 최익현과 김기술, 김직술을 배향한 시산사

- 1906년의 병오창의로 순국한 최익현을 추모하기 위하여 1907년 5월에 태인 유림들의 발의로 태산사(현재의 칠보초등학교 자리)가 세워짐⁵⁹⁾
- 일제의 탄압으로 태산사 훼손되었다가 1970년에 이르러서야 성황산에 시산사(詩山祠)를 다시 세움
- 이때 병오창의에 참여했던 이 지역 인물인 김기술과 김직술도 함께 배향

<p>김기술(金箕述)</p> <p>연도 : 1849 - 1929</p> <p>본관은 도강, 호는 국현(菊軒), 자는 정범(正範)으로 고현내에서 출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간에 반동학군으로 활약하였고, 1906년에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끝까지 최익현을 지킨 12명 중 한명으로, 2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태형(笞刑) 1백대를 맞고 풀려났다. 남긴 유고로는</p>	<p>김직술(金直述)</p> <p>연도 : 1850 - 1920</p> <p>본관은 도강, 호는 화개현(和介軒), 자는 정도(正度)으로 고현내에서 출생하였다. 1889년에 동몽교관을 역임하였고, 1899년에 후송정 건립을 주도하였다. 1903년에 7월 15일에 내장산에서 열린 호남 유림대회에 참석하였고, 1906년 6월에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킬 때</p>
--	---

59) 태산사 유허비가 칠보초등학교에 있다.

『갑오동비창의유사』, 『태인고현면창의토포소사실책』, 『국헌유사』 등이 있다. 1907년에 김직술 등과 함께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 고장이라며 그를 배향한 사당을 현재의 칠보초등학교 자리에 태산사를 세웠다. 일제 강점기에 태산사는 훼손되고 1970년에 성황산에 시산사를 세웠을 때 김직술과 함께 배향되었다.

〈그림 4-30〉 시산사



참여하였다. 1907년에 김기술 등과 함께 태산사를 세웠다. 일제 강점기에 태산사는 훼손되고 1970년에 성황산에 시산사를 세웠을 때 김기술과 함께 배향되었다.

〈그림 4-31〉 필양사



○ 일제의 은사금을 거절한 김영상을 모신 필양사

- 필양사는 한말 유학자 김영상을 배향하는 사당으로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제2호이자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51-1-19)
- 김영상은 1836년(헌종 2)에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에서 태어났으나 16세에 무성리 원촌으로 이사
- 노사 기정진, 간재 전우 등과 교류하였고, 을사늑약 후 의병운동에 투신
- 경술국치(1910)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의 선비들을 화유하기 위하여 은사금을 주었는데 김영상은 이를 거절하고, 사령장을 찢어버림. 이 때문에 불경죄로 일본 헌병에게 연행되어 산의면에 있던 동국헌병대를 거쳐 군산감옥으로 이송되었음. 이때 김제 청하면에서 군산으로 건너가는 배안에서 몸을 던져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본 헌병이 구해내어 군산감옥에 수감되었음. 하지만 8일간의 단식 끝에 1911년 5월 9

일에 순절

- 이를 기리기 위해 석지 채용신은 김영상 투수도를 그림
 - 1945년에 지방 유림들이 김영상을 기리기 위해 필양사를 건립
 - 1963년 독립유공 대통령 포상을 받고, 1991년 8월 15일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됨
 - 1978년 김제군 청하면 동지산리에 '춘우정 투수 순절 추모비를 세움
 - 2009년에 새로운 건물을 세움
- 무성서원과 필양사, 시산사를 연계한 공원 조성
- 반경 300m 이내에 밀집한 이 세 곳을 토대로 필양사 앞에 있는 연꽃 생태공원을 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
 - 이 지역의 의병 운동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조형물, 김영상 투수도 같은 내용 등의 시설물 정비, 조경과 휴게공간의 확충
 - 최익현과 김영상 등의 주요 일대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사건 등을 전시
 - 무성서원에서 매년 치러지는 병오창의 행사 기획
 - 무성서원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역사체험프로그램 등 모색

〈그림 4-32〉 김영상투수도
(출처 : 이종근의 한국문화 스토리 블로그)



3) 연계시설 조성

■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현재 시설 현황

- 현재 무성서원의 고직사에 무성서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상주하며 관광객을 안내하는 형태
- 무성서원 일대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
- 칠보물테마유원지에 종합안내소가 있음

○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신청⁶⁰⁾

-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한 종합안내센터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 조성과 관광 향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조성 중
-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 목적
- 2015년에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추진 후 전북은 전국 대비 37%의 높은 비율로 공모에 선정되었음
- 2021년에도 20개 중 군산(2), 익산(2), 순창(2) 등 6개 선정
- 기존의 주차장과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필수 이용시설의 개선과 연령, 장애와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표지판 설치
-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대상지로 신청

○ 종합관광안내센터의 건립 필요

- 현재 있는 무성서원 관리사무소와 칠보물테마유원지의 종합안내소만으로 이 일대를 종합적으로 알리기에 무리
- 전반적으로 이 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 필요
- 따라서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태산선비문화권을 종합적으로 알릴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할 필요성 있음

60) 한국관광공사, 2020년도 예비 열린 관광지 공모 참조, 『정읍토탈랜드 열린관광지』, 2020.

○ 관련 사례

-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의 관광객 편의개선 목적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⁶¹⁾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20년 5월 (1개년)
총사업비	1280백만 원 (국비 640, 지방비 640)
추진방법	장애인 등 관광 약자가 보행할 수 있는 관광동선을 구축하고, 오목대와 경기전, 안내소의 화장식 개선과 장애인들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보행길 정비 등 관광동선개선사업 등 진행

61) 「전주한옥마을, 문체부 주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일보』, 2019년 6월 20일.(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753&sc_section_code=S1N1&sc_sub_section_code=S2N4)

■ 마을기록관 건립

○ 향약의 시원지, 전통의 계승

- 남전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으로 알려진 고현향약이 창설되고 맥을 이어온 곳으로, 관련 문서들이 보물로 지정되었고, 관련 건물로 동각과 향학당이 남아 있음
- 현재 위치는 남학당이 재건축된 1854년부터 있던 곳으로 지방 교육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보유
- 특히, 향약관련 문서들은 남전마을을 포함한 시산리, 무성리 등 태산선비문화권의 마을 기록을 보관하는 역사성을 가질 수 있음
- 주민의 집단 기억은 현재의 역사문화자원이면서 미래의 문화유산

○ 주민이 주체가 된 생활 기록 자료 수집

- 고현동향약의 내용을 포함한 전근대 자료뿐만 아니라 근현대 사진, 문서, 생활도구 등을 수집하여 태산선비문화권 주민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
- 공동의 기억을 전승한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과 교류 시설을 만들 필요
- 생활 기록 자료는 민간기록물로 이를 체계적 수집과 보존, 마을기록관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 필요. 예)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과 보존
- 최근 지역학이 확립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역학의 뿌리로서 작용 가능



〈그림 4-33〉 현재의 동각

○ 마을 기록관의 건립

- 위치는 현재 방치되다시피한 동각과 향학당의 공간을 최신식으로 수리하고 활용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마을 주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음

-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 현재 이 지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 여기에 사업을 추가할 때 이와 같은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마을 기록물 조사 사업 등을 실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미술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근현대 사진자료 수집 확대
- 구축된 자료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전시 등에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마을 전시회·문화재야행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현재 남원은 남원다움관을 조성하여 남원의 지난 모습과 그 모습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시·관람·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정읍시에서 선제적으로 마을 기록관을 조성할 필요 있음

○ 관련 사례

- 청주시는 2019년 대통령 직속 제2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덕촌리 독립운동 마을’을 조성
-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은 청주시의 1호 마을 아카이브 사업으로 선정. 독립운동가 정순만⁶²⁾ 선생의 고향으로 독립운동사와 이 지역 신교육의 산실이 되었던 덕신학교의 역사를 기록
- 이곳에는 충북과 청주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운동 마을 표지석과 태극기 거리, 애국의 길, 정순만 선생 기념관, 3·1운동 만세광장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며 청주시 기록관 기록문화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는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⁶³⁾



〈그림 4-34〉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 입구⁶⁴⁾



〈그림 4-35〉 덕신 학교 원경

62) 정순만(1873-1911) 선생은 종중의 재산을 중심으로 1906년에 덕신학교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민족교육에 참여하였다. 2015년 4월 17일에는 정순만기념사회가 창립되었다.

63) 「옥산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체험장소 '인기」, 『충청일보』, 2020년 8월 20일.

■ 칠광도 전망대 조성

○ 칠광도의 배치⁶⁵⁾

- 칠광도는 무성서원을 포함한 태산선비문화권을 그리고 있음. 여기에는 상당수의 유적과 유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역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자료로도 중요한 자원
- 칠광도를 보면 우측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진강이 흐르고, 여기에 은석천과 철보천이 합류. 지세로 중앙에 조산(祖山)인 성황산, 안산(案山)인 시산이 있음. 구도상이 그림은 시산에서 성황산 방향을 바라보고 그렸음. 하단에 송산마을, 중단에 동편·남전마을, 상단에 원촌으로 크게 3개의 마을이 보임. 이외 무성서원과 후송정, 영당 등이 있음
- 칠광도와 현재 위치는 살짝 다르지만 시산에서 바라보고 그린 그림으로 추정. 이를 지도로 대입하면 북동쪽으로 50도 가량 기울어져 있음

○ 전망대 조성

- 현재 이곳은 송현섭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산정상에 전망대와 함께 공원을 조성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임

〈그림 4-36〉 송산 중턱에서 바라본 고현내



- 〈그림 4-36〉은 산 중턱에서 찍은 것으로 현재 산 정상은 대나무 등으로 가려 마을이 보이지 않지만, 하단에 송산마을, 중단에 동편, 남전마을, 상단에 원촌마을 등 칠광도의 구도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64) 관련 사진은 청주시공식블로그,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정순만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덕신 학교, 2020년 10월 19일 검색.

65)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2020.

- 따라서 시산의 정상에 전망대를 조성하고, 전망대에서 칠광도의 위치와 함께 현재 마을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구성할 필요성 있음
- 전망대 내부에는 석지 채용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가 고현내에서 그린 것으로 알려진 송정십현도, 김영상투수도, 김직술 초상화 등의 전시를 통해 이 지역성과 채용신의 관계 조명
-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림 4-38>의 형태로 한정하고, 키오스크,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전망대 건립



<그림 4-37>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조감도



<그림 4-38> 구절초 테마공원의 전망대

○ 관련 사례

- 강화군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6월 - 2021년 5월 (1개년)
총사업비	850백만 원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장소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33번지
추진방법	강화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비상을 기본 컨셉 스카이워크 형 전망대를 통해 북쪽에 연백평야, 남쪽의 석모도 등의 도서지역을 조망할 수 있고, 내부는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간 마련
내용	스카이워크 형 전망대 조성 북한의 황해도와 2.6Km 거리로 북한의 조망이 가능한 특성과 화개산성, 연산군 유배지, 교동 향교 등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보유 우수한 환경자원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장소

■ 마을 가꾸기 사업⁶⁶⁾

○ 노후화된 경관의 교체

- 노후화된 마을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한 주민의 거주 환경 개선과 관광객 증대 목적
- 칠광도에 포함된 마을을 활용하여 초가집을 기와집 형태로 개조하고, 선비 등의 캐릭터를 담벼락에 벽화로 그리고, 건물 도색과 태산선비문화권과 관련된 경관 조경 물을 설치하는 사업 실시
-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간 개선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전라북도 주관 사업
-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증가 등으로 악화된 주거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주요사업 : 30호 이상 산재되지 않은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설치 비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사업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시설 정비 등
-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와 역량강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추진
- 전북도의 1차 평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 후 최종 선정
- 주요사업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낮은 담장과 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안전시설 정비 등으로 안전한 마을 조성

○ 2020년 원촌마을 주거경관 개선사업 선정

66) 관련 내용 및 사진은 정읍시 보도자료 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이 자리한 칠보 원촌마을」, 「전북도 주관 ‘아름다운 주 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 2020년 3월 27일 : 정읍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선정」, 2020년 3월 6일. 2020년 10월 20일 검색.

- 전라북도 주관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선정(2020.03.26.)
 - 사업비 : 10억(도비 5억, 시비 5억)
 -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휴식 등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기대
- 2020년 동편마을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선정(2020.03.07.)
 - 사업비 : 12억(국비 8억, 시비 4억)
 - 사업 기간 : 2020년 - 2022년(3년)
 - 동편 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64%로 매우 높고, 슬레이트 지붕 비율도 47%로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
 - 인근의 태산 선비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기대



〈그림 4-39〉 원촌마을 사업 계획도



〈그림 4-40〉 동편마을 사업 계획도

- 추가로 태산선비문화권의 남전마을과 송산마을을 순차적으로 등재
- 향후 태산선비문화권인 남전마을과 송산마을의 정비로 특색 있는 마을
 - 무성서원과 향약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여 사업 경쟁력에서 강점 보유
 - 2021년과 2022년의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신청

■ 경관 개선 사업

○ 경관조명 개선 사업

- 태산선비문화권에 난간조명, 간접조명 등을 설치하여 조망공간의 안전조도 확보
- 미디어 파사드 공연, 건물 도색, 태산선비문화권과 관련된 경관 조경물을 설치하는 사업 실시
- 마을의 벽에 선비, 최치원, 상춘곡, 향약, 의병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의 벽화를 그려 관광객의 유입 유도과 마을의 상징성 강조
-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의 재발견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수 있음
- 향후 장기적 활용 콘텐츠로 운영하여 무성서원을 비롯한 태산선비문화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간 개선
- 2022년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운영'에 신청

※ 미디어파사드 공연

-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
-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과 캔버스로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색칠하여 미디어 기능을 구현
- 건축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활용 가능
- <멕시코 테오이우아칸 라이트쇼>, <프랑스 랭스 대성당 멀티미디어쇼> 등

○ 관련 사례

구분	내용
사업명	전라감영 선화당 미디어파사드
사업기간	2020년 10월 28일 - 2020년 10월 31일(4일간)
장소	전라감영 선화당
주요내용	전라감영 선화당을 배경으로 조선 태조 이성계와 전라감영의 역사 이야기를 빛의 영상으로 구현. 회당 20분
후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전주시
사업	문화재청 국보·보물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

〈그림 4-41〉 전라감영 선화당 미디어 파사드 공연



○ 관련 사업

-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운영 및 공모⁶⁷⁾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개년) ※ 최소 운영 일수 30일 이상
총사업비	건별 국비 6억 - 1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장소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서원
추진방법	세계유산 향유를 위해 미디어 디지털 IT 기술을 세계유산에 접목하여 새로운 활용 콘텐츠 개발 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향유 방안 도입·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야외 관람형 콘텐츠 개발 필요
내용	문화유산을 소재 및 주제로 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형 공공예술'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소의 제작 및 운영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운영 21년의 경우 8월에 공고, 9월에 발표

67) 문화재청,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공모 알림, 2020년 8월 7일.

■ 포토존 설치

- 최근 관광객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등을 통해 업로드를 활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재방문 하는 형태
-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경관 혹은 역사적 경관이 뛰어난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사진공유 SNS인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이라는 영단어 'able'을 합쳐 만든 조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의 신조어인 '인스타그램어블'이 주목할 만한 키워드
 - 주요 관광지와 경관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음
- 관련 사례



- 무성서원의 주요 지점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흥미와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
 - 다음 사진과 같이 무성서원의 정면 현가루 앞, 무성서원 뒤편 등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나 경관이 좋은 곳에 포토존 설치 필요



○ 기타

- 관련 시설 표시 안내판 정비
- 푸드트럭 등 관련 민간협업 Zone 설정 및 정비
- 마을 벽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 관련 사업 기획

■ 신(新) 향음주례 행사

○ 향음주례의 상징성 보유⁶⁸⁾

- 『무성서원원지』에도 중요하게 기록되었지만, 해당 지역은 정극인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최초의 향약으로 유명
- 향음주례(鄉飲酒禮)는 매년 음력 10월에 향교나 서원 등에 모여서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주빈(主賓 ; 손님 가운데 주된 분)으로 모셔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유교 의례이자 향촌의 의례. 즉, 마을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유생들이 어른을 모시고 예법에 따라 술을 마시며 모임하는 것
- 『불우헌집』 「동중향음주서(洞中鄉飲酒序)」에 의하면 정극인은 향음주례를 정하여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규정을 세움. 이를 통해 마을 전체를 유교적 윤리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함
- 단순한 술자리, 술모임이 아닌 예교(禮敎)의 목적으로 한 의식
- 1475년(성종 6)경부터 주민들과 향음주민들과 향음주례를 실시하였고, 이 향약은 조선 최초의 향약
- 태인 고현동 향약은 향음주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여기에 무성서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향음주례가 이루어 졌고, 향음주례의 상징성을 가짐

〈사료 11〉 동중향음주례서(『불우헌집』 권2)

향음주례(鄉飲酒禮)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고을에서 서로 친목하면 능범(凌犯)과 쟁송(爭訟)의 기풍이 그친다. 옛날 주(周)나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군자(士君子)의 행실이 있었던 것은 이 예를 강론하여 밝혔기 때문이다. 모(某) 등은 다행히 태평한 세상에 태어나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도록 인접하여 사는 사람들이 모두 30여 가구이다. 어린아이들이 계속 태어나 자라는데 안일하게 지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장차 행실이 어긋나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이 되므로 먼저 가숙을 열어 어린이를 깨우치는 법을 엄하게 하고, 또 향음주례를 정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규정을 세웠다. 예(禮)의

68)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박종배,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4, 2013, 67-71쪽)

문(文), 기(器), 용(用)을 비록 다 고법(古法)에 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경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쳐 엄결(廉潔)하고, 효도하고, 공손하고, 겸손한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치함을 가르치고 음란함을 가르치어 욕심을 방자하게 하는 것은 경계하고 삼가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다만 고을에만 서로 친목할 뿐이겠는가? 그 효험이 천리(天理)에 지극하고 인심이 바로 잡히니 충신과 효자와 사람들과 사귀기를 잘함이 계속 이어져 다하지 않아 주나라의 풍화를 오늘 다시 볼수 있을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밖의 약속한 조목은 다음에 열거한다.

○ 향음주례의 전통 간직

- 1998년에 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고현 향약 추진위원회”가 시비 2,500 만원을 받아 시산리 남전마을에서 10월에 개최⁶⁹⁾
- 현재 (사)태산선비문화보존회를 주축으로 태산선비문화재를 매년 4월에 실시
- ※ 2020년은 코로나로 연기
- 고현향약을 바탕으로 한 전통혼례와 상춘곡 암송대회, 상춘곡 노래 부르기 등의 실시
- 무성서원에서 향음주례를 재현
- 하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고, 큰 호응이 없는 점은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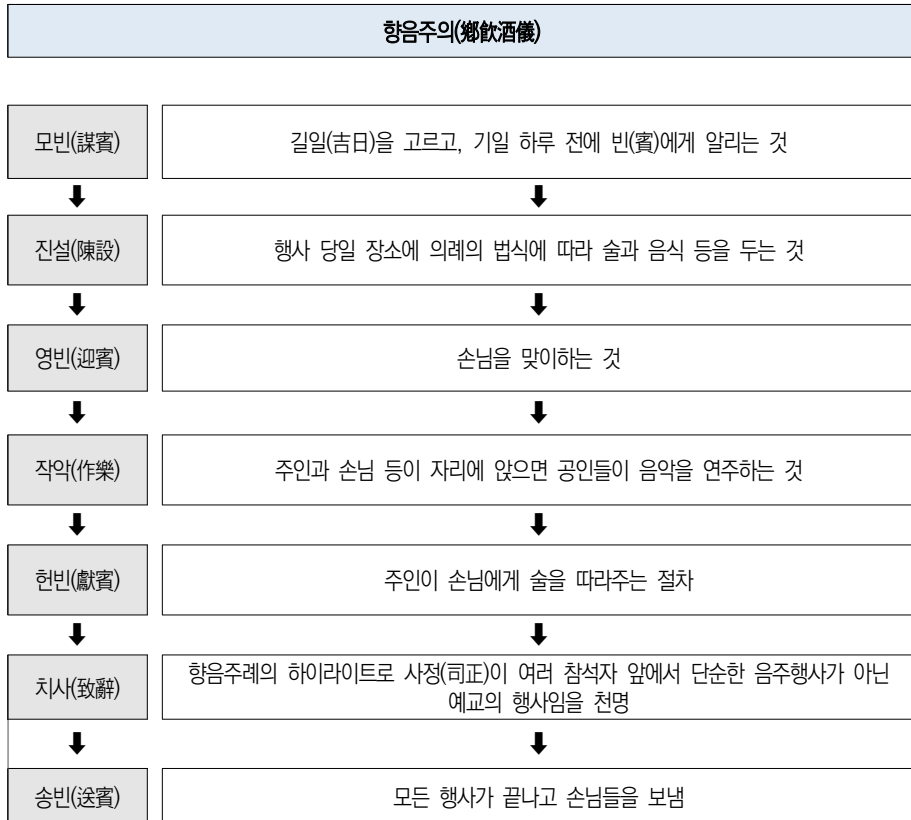


(그림 4-46) 무성서원원지의 향음주례도

69) 「정극인의 향음주례 재현」, 『연합뉴스』 1998년 1월 23일. 2020년 11월 18일 검색.

○ 현대식 향음주례 행사 마련

- 무성서원 혹은 고현향약의 향음주례를 현대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재편집



- 사업주체는 무성서원의 모성회 혹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태산선비문화보존회 등을 주축으로 진행
- 관련 의복 등을 입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향음주례와 관련된 용어 등을 간략하게 설명
- 도내 대학의 관련학과(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관련 사범계열) 등과 MOU를 맺어 성년의 날 행사로 향음주례 행사를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관광객과 체험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내 방송 및 전국방송에 소개하여 홍보의 극대화 필요

■ 문화유산 보전 협약

○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업과 업무협약

- 최근 각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과 협약식을 맺고 임직원들이 직접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며 주변 정화활동을 펼치는 행사를 기획
- 2018년에 재규어랜드로버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협약을 맺어 3천 만원 후원. 직접 해당 지역을 답사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네버 스탱 디스커버링'(Never Stop Discovering) 캠페인을 진행⁷⁰⁾
- 2020년에 신협은 무형문화재 유지 및 전승을 위한 포괄적 후원을 위해 문화재청·전주시와 문화유산보전 협약 맺음. 전주한지 장인이 전주산 닥 원료로 제작한 제품으로 4대궁(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및 종묘의 창호 보수에 사용.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50여 곳에 안면인식 발열감지장치,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등 코로나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마지막으로 문화재를 가꾸고 주변 정화활동⁷¹⁾을 통해 기업의 가치 구현

○ 학교와 연계한 문화재지킴이 행사

- 문화재청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특성화 학교(동아리)'⁷²⁾ 실시
- 청소년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운동'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활동 지원
-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순찰과 감시활동, 문화재 홍보 및 교육활동 등
- 여기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문화재지킴이 학교 혹은 동아리를 15-20개 규모로 모집하여 이들의 활동 지원

70) 「재규어랜드로버, 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 보전활동」, 『연합뉴스』, 2018년 6월 28일. 2020년 11월 18일 검색.

71) 「신협, 문화유산 보전 앞장」, 『시사브리핑』, 2020-11-18. 2020년 11월 18일 검색.

72) 문화재청, 2020년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특성화 학교(동아리) 연장 공고, 2020년 4월 20일.(http://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9366&no=26026&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earchWrd=%eb%ac%b8%ed%99%94%ec%9e%ac%ec%a7%80%ed%82%b4%ec%9d%b4&sdate=&edate=&mn=NS_01_01)

- 사업을 마무리 하는 11월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국 청소년들이 모여 한 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하는 행사로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단체 우수 활동 사례발표,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우수 성과와 공로 시상, ▲ 축하공연 등이 있음⁷³⁾
- 관내의 칠보초등학교·칠보중학교·칠보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정읍시에 속한 학교 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관심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며 자존감 고양



〈그림 4-47〉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73) 2020년 6월 18일에 열린 행사에서는 최태성 강사와 문화재청장, 정읍시장, 문화재지킴이 등이 내장산 용굴암을 방문하여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역사적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을 상영한 적이 있다.(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 <https://www.youtube.com/watch?v=P9xEb-q9DEU>)

■ 둘레길 조성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둘레길 조성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 언택트 시대 안전을 염려하여 장거리 관광목적지보다 수도권 및 지방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⁷⁴⁾
- 특히, 패키지 여행보다 소규모 여행이 대세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걸을 수 있는 언택트 여행인 트래킹이 확산
- 따라서 둘레길을 정비하고, 단순히 풍경만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덧입힐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할 필요성 있음. 즉,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과 그 실체로서 문화유산 등을 보여준다면 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 될 수 있음
- 현재 무성서원은 전북의 숨은 관광지 43개소 가운데 역사 유적지 5곳 중 한 곳으로 편입되어 있음. 하지만 주변 자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무성서원만 다녀갈 우려가 있으므로 둘레길 정비를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읍시는 2020년에 무성서원 뒤편 성황산을 송정과 연계하는 둘레길을 정비⁷⁵⁾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개년)
총사업비	257,143천원(국비 181,000, 도비 38,572, 시 38,571)
장소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서원 뒤편 성황산 일대
내용	둘레길 정비(L=1,100m / 무성서원, 필양사, 한정, 송정 연계) 야자매트 설치(750m), 수목정비,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

- 현재 둘레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
- 하지만 사업 대상이 1.1Km밖에 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 유인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
- 주변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 등으로 활용하여 둘레길을 확장할 필요 있음

74) 김형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북관광 진흥방향」,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232, 2020, 5쪽.

75) 정읍시청, 2020년 무성서원 보존·활용사업 계획(안), 내부자료



〈그림 4-48〉 무성서원 둘레길(2020년 12월 현재)

○ 둘레길의 확장

- 관련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
- 가능하다면 “태산선비문화권 역사·문화 둘레길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 학계, 전문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역사와 문화 관련 스토리텔링북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으로 스탬프/포토존을 설치
- 녹지축과 길 정비 등을 통한 시설 확충
- 둘레길 걷기대회 등의 추진
- 코스 확장(크게 3개의 코스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 1안

- 칠보물테마유원지(주차장)→정극인동상→향토문화사료관→송산사→시산사→필양사→한정→무성서원→무성리 3층석탑, 석불입상→정극인 묘소

구분	내용
칠보물테마유원지 ⁷⁶⁾	<p>옥정호와 동진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체험학습 놀이공간으로 평가 2층 규모의 물테마 전시관, 유상대, 야생화 관찰원, 수생식물원, 분수대,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동진강의 생태와 주변 이야기 수록 놀이터와 분수대 등이 있고, 한여름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p>
정극인 동상과 상춘곡 비석	<p>정극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상춘곡을 새긴 비석 가사문학의 효시로 평가 받는 상춘곡을 테마로 한 관련 스토리텔링 마련으로 정극인 선생에 대한 설명 필요 향후 정극인을 테마로 한 공원 계획 수립 필요</p>
향토문화사료관	<p>1998년 11월에 건립된 건물면적 205㎡의 작은 편에 속하는 전시관 태산 선비문화권의 향토문화와 사료를 전시해 놓은 곳으로 충분히 해당 지역의 강점을 보일 수 있음 다만 전시물의 노후화로 시설과 내용을 교체할 필요 있음</p>
송산사	<p>1788년(정조 12)에 창건하여 김대립, 김응빈, 김정, 김강, 김급, 송치중 등의 인물을 배향 배향인물은 칠광 십현에 속하는 인물들로 광해군의 폐정에 세속을 버리고 유유자적한 인물들로 관련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제작 가능 송치중은 송정수계지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후일 채용신이 그린 송정십현도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무궁한 이야기 거리가 있음</p>
시산사	<p>1906년(광무 10)에 병오창의를 일으킨 최익현을 기리기 위하여 1907년에 현재의 칠보초등학교에 태산사 건립 일제가 훼손한 뒤 1970년에 다시 시산사로 이름을 바꾸고 최익현과 이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인 김기술, 김직술을 추가 배향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최익현을 배향한 곳으로 상징성 가질 수 있음 칠광도에 나타나는 태산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가능 지역의 인물인 김기술과 김직술 관련 내용 추가 가능</p>
필양사	<p>1910년에 일본의 은사금을 거절하고 군산형무소에서 순절한 김영상을 배향한 곳 해방 이후 지역 유림들이 발의하여 1945년에 창건 생태연못과 연계하여 향일독립역사지구로 만들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p>
한정	<p>조선 중종대 김약회가 자신의 호를 따서 1520년에 만든 정자 김약회는 성균관에 있다가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와 한정을 짓고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 최치원으로부터 정극인, 칠광십현으로 이어지는 풍류의 거점이므로 재조명할 필요 있음 현재의 건물은 정유재란때 불타서 사라졌다가 1920년에 후손인 김함정이 다시 세움</p>
무성서원	<p>세계문화유산으로 태산선비문화권의 거점 이곳을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p>
무성리 3층석탑	<p>조성 기법 등을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 탑 자체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 원래 해당 지역에 많은 사찰들이 있었으나 척불을 주장한 정극인이 정착하면서 다 훼손하고 이 탑만 남았음.</p>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를 짓기 위해 일본인에게 이 탑을 팔았지만 흥순석이라는 인물이 논과 밭을 팔아 다시 찾아왔고, 이를 1974년에 칠보초등학교에 옮겼다가 1981년에 지역 출신 재일교포 김진섭의 후원으로 현재 위치에 복원시킴
무성리석불입상	제작 기법 등을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 무성리 3층 석탑 뒤에 있는 미륵사라는 민가 안에 모셔져 있음 불상의 하반신은 땅 속에 묻혀있고, 상반신만 노출되어 있음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에도 석불입상이 초가 안에 모셔져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므로 향후 관리 필요
정극인 묘	가사문학의 효시이자 최초의 민간 향약을 만든 정극인이 이 지역에서 활약하고 생을 마감한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 보유 그의 무덤이 앞에 있고, 아내인 구고 임씨의 묘는 바로 뒤에 있음 정극인과 부인의 봉분은 다른 무덤과 달리 상당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불우현 묘제인 영모당과 짝을 이룸 정극인과 이 지역에서 활약을 담은 내용을 주위에 조성할 필요 있고, 뒤편의 산을 둘레길 코스로 개발하여 체류시간을 늘릴 필요 있음

○ 2안

- 정순왕후 태생 유허지(주차장)→고현동각→연시각 및 도봉사→남천사→김후진유허비

구분	내용
정순왕후 태생 유허지	정순왕후는 조선 단종의 비인 여산 송씨 이 지역은 여산 송씨가 대대로 살던 지역으로 1440년(세종 22)에 이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임 계유정난 이후인 1454년(단종 2)에 왕비로 책봉. 폐위나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혼인 생활 시작 1456년에 단종이 폐위되면서 왕비가 아닌 부인(夫人)으로 강등되어 살다가 1521년(중종 16)에 타계한 풍부한 서사를 가진 인물 후손들은 1988년에 정순왕후의 태생지인 시산리에 '유허비각'과 옛날에 머문 터라는 뜻의 '유지비'를 세움 바로 앞에 10면 이상의 주차장이 있고, 동각이 있어 둘레길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적합
고현동각	원래 정극인이 세운 교육기관의 형태였으나 무성서원에 그 기능을 넘기고 침체되었음. 하지만 1724년(경종 4)에 향리 노인들이 양사재를 만들어 환육하였고, 18세기 후반에 남학당으로 이름을 바꿈 고현동각 중수기에 의하면 1835년-1844년 사이에 큰 흥수로 남학당이 무너지자 1844년에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다시 준공하여 1854년에 완공하며 원래 이름인 남학당에서 동각으로 바뀜. 다만 편액은 남학당을

76) 대한민국 구석구석, 칠보물테마유원지, 2020년 11월 18일 검색.(<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2XXX1627632>)

	<p>그대로 사용 칠광도에도 동각은 그려져 있고, 당시에도 기와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동각 안에 고헌향약으로 알려진 규약집 29책이 소장되어 있었고, 이는 보물 제1181호로 지정 고헌동각 앞에 시산리 비군이 있음</p>
연시각과 도봉사	<p>이 지역 명족인 도강 김씨의 입향조인 김회련이 1871년(고종 8)에 '충민'의 시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제각 김회련은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으로 1395년(태조 4)에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고, 이때의 녹권과 왕지가 각각 보물 제437호와 438호로 지정 바로 이 녹권과 왕지 등 관련 문서가 모셔진 곳이 연시각으로 칠광도에도 그 존재가 드러남 1932년에 도강 김씨들이 연시각 옆에 김회련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한 사우가 도봉사이고, 바로 앞에 사세충열비가 있음 김회련이 이 지역에 입향하게 된 내용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조화할 필요 있음</p>
남천사	<p>1676년(숙종 2)에 김후진과 안의, 손홍록, 김만정 등을 배향 안의와 손홍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화를 면함 덕분에 유일하게 전주사고본만 남아 조선 전기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었음 바로 안의와 손홍록이 이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 있고, 조선왕조실록을 지키는 답사 프로그램에 남천사를 넣어 이들을 봉안하는 코스를 넣고, 무성서원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칠광도에 서원훼철 이후 단을 세운 모습이 드러나기에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p>
김후진유허비	<p>김후진은 도강 김씨로 남천사에 배향된 인물 그는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 창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병장. 그 공으로 군기시정이라는 관직에 추증되었음 고종대 호조참판에 추증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임진창의 원모당 김공 후진 유허비'가 있음 이는 이 지역 선비 정신의 실체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자 증거이므로 관련 역사적 사실과 설화 등을 가공할 필요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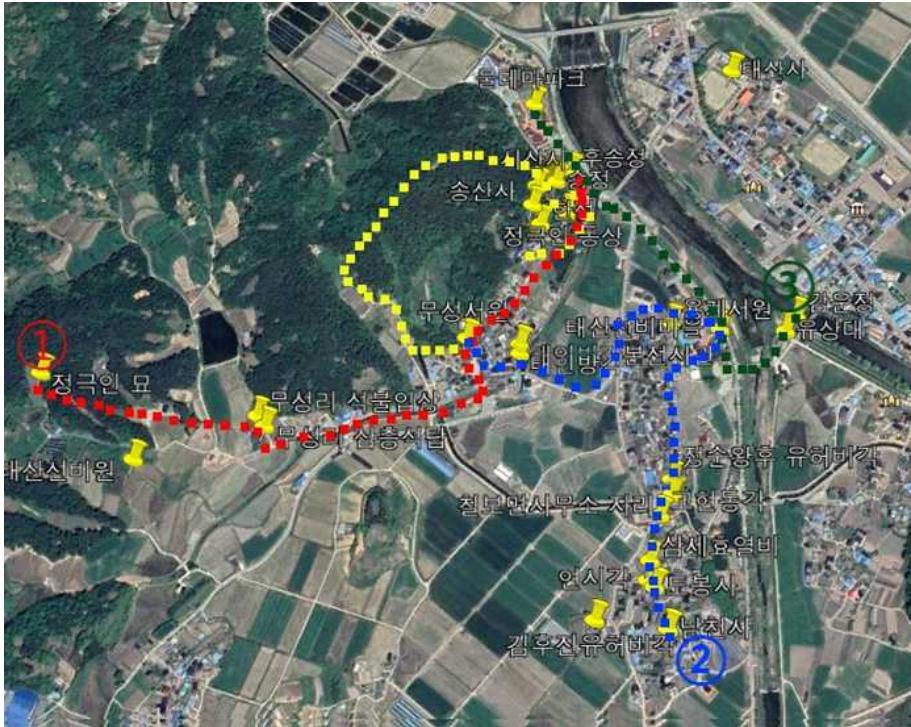
○ 3안

- 칠보물테마유원지(주차장)→후송정→동진강변→태산선비문화관→용계서원→감운정(유상대)→수변공원→영벽정→송현섭 공원(칠광도 구도 전망대)

구분	내용
후송정	<p>후송정은 도강 김씨를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계를 만들어 공부하던 중 1898년에 짓기 시작하여 1899년에 완공 정면 2칸, 측면 1칸, 팔작지붕 형태</p>

구분	내용
	<p>건물 뒤 암벽에 간재 전우가 '후송(後松)'이라고 쓴 암각화가 있음. 이를 통해 간재 전우와 이 지역 유림들의 관계 등을 알 수 있고, 간재와 관련 유적으로 피력할 수 있음</p> <p>특히, 칠광도에 후송정이 그려져 있으나 현재의 모습과 다른 양상. 즉, 그 앞에 물길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매립되어 있음</p> <p>원형의 모습은 칠광도를 통해 구현하고, 이곳에서 머물렀던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가능</p>
동진강변	<p>동진강변에는 도로에는 벚꽃나무가 있어 봄에 수려한 경관</p> <p>이 지역은 칠보수력발전소가 있어 일정한 유량이 흐르는 곳으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 있음</p> <p>솔뫼다리에서 시산교까지 약 200m 가량 정비하여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p> <p>활쓰기 체험, 게이트볼장 등이 있으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p> <p>강변 고수부지에 꽃을 심거나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볼거리 및 체류 가능</p>
용계서원	<p>1701년(숙종 27)에 최서림의 학문 등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p> <p>이후 김만정과 은정화, 김습, 한백유, 유충흥과 김정호 추가 배향</p> <p>용계서원에 배향된 최서림과 은정화는 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목-김관 등 무성서원에 배향된 향선생의 학맥을 이은 것으로 인식⁷⁷⁾</p> <p>최서림은 문하에 180여 명이 있었고, 이 중 약 100명이 태인 사람. 특히, 15명이 생진시, 김명형, 김순형, 김도연이 문과 급제인 점을 보면 이 지역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음⁷⁸⁾</p> <p>무성서원이 주자학의 연마와 사회실천윤리 실현의 중심지라는 이항의 인식을 계승했다면, 용계서원은 이를 따르면서 현실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인 곳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있음</p> <p>1872년 태인지도, 해동지도 등 다수의 지도에도 용계서원이 기재되어 있음</p>
감운정(유상대)	<p>지역 유림들이 최치원을 사모하여 그가 노닐었다는 유상대 터에 1919년에 세운 정자</p> <p>감운정에서 봄과 가을에 음풍영월(吟風詠月) 하였다고 함</p> <p>이곳이 유상대였다는 점은 칠광도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바로 옆에 유상대중수비(1798)가 있음</p> <p>글씨는 거의 마모되었지만, 유상대와 관련된 상징성 보유</p> <p>후에 유상대를 재현할 필요 있음</p>
영벽정과 송현섭 공원 ⁷⁹⁾	<p>솔뫼다리 옆에 송현섭공원이 있음</p> <p>이곳에 영벽정이 있고, 이는 1840년에 동진강의 석벽 위에 처음 지어졌다가 훼손되었음. 1939년에 여러 주민들이 중수</p> <p>현재 공원이 조성되고, 동진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하기 좋음</p>
시산	<p>송현섭 공원에서 시산으로 올라가서 보면 칠광도의 구도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음</p> <p>따라서 시산을 개발하고, 이곳에 전망대를 건설하여 랜드마크 필요성</p>

〈그림 4-49〉 무성서원 일대 둘레길 코스(안)



※ 출처 :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2020

- 77) 『불우현집』의 ‘유명 조선국 고 통정대부 행 사간원 정인 불우현 정공 행장(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을 쓴 황윤석에 의하면 정극인의 학맥이 송세림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 무성서원에 배향된 인물부터 용계서원에 배향된 최서림과 은정화까지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고을의 서당 가운데 풍운(風韻)이 이어짐이 있어서 송세림(宋世琳), 정언충(鄭彦忠) 김약목(金若默), 김관(金灌)으로부터 관곡(寬谷) 최서림(崔瑞琳), 백계(柏溪) 은정화(殷鼎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듣고서 알고 보고서 아는 이들이 대대로 결핍되지 않았으니, 어느 것인들 공이 끼친 은혜가 아니겠는가. 아, 성대하도다.(故公鄉塾之中 風韻有繼 自宋鄭二 迄於崔寬谷瑞琳 殷柏溪鼎和 而聞知 見知 代不乏其人者 夫孰非公之賜也 噫其盛矣)”(정극인, 『불우현집』 권수, 부록)
- 78) 백승중, 『한국사회사연구』, 일조각, 1996.
- 79) 정음시 공식 블로그, 영벽정과 흘러가는 동진강이 보이는 정음 송현섬공원, 2020년 12월 2일 검색.(<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ongeupnews&logNo=221327792241>)

■ 한 달 살기 프로그램

○ 정책 동향

- 최근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는 인구유출이라는 당면 문제에 놓여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단적으로 정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2019.7.2.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로 지원

○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의 시행

- 해당 지역은 수 백 년 간 자치를 이룬 경험이 있고, 현재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강원도형과 같이 한 달 간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제주도와 같이 한 달간의 혁신적인 인재의 유입과 체류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사업 운영
- 이외 선비문화의 중심지라는 아젠다로 어른에게는 수려한 풍광과 유풍(儒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유교 관련 체험(다도·예절·서예 등), 칠보물테마유원지의 시설 이용, 농촌 체험, 물고기 잡이 등을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음
- 긍정적인 경우 인구유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최소한 1개월 - 수개월 간의 체류로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경제적 효과 누릴 수 있음

○ 사례

-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 사업’⁸⁰⁾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4년 12월 (5개년)
총사업비	52,500,000원
장소	강원도 전역
추진방법	숙박비 1인/일 4만원, 체험비 1인/1만원 지급 만18세 이상 타 지역민으로 관내 거주 희망자로서 평소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자에게 농촌체험프로그램 제공 민간보조 형태
내용	추진 근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영농경험 및 정보제공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 제주도 체류지원산업 “제주다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계속
장소	제주도 전역
추진방법	<p>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주도 체류지원사업 “제주다움”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혁신인력과 제주도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꿈꾸는 전국의 인력들을 연결해 제주도에서 1달간 머물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p>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로 이전 또는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스타트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제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팅·IT교육·로컬기획 분야 전문가 - 제주에서 리모트워크를 실험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스타트업·기업 <p>※ 주민등록상 제주도와 거주자에 한함</p>
내용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체류를 위한 숙소 제공 - 센터 내 지정 업무 공간과 회의실 제공 -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지원 <p>주요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주차별 체류활동 결과 공유 - 제주지역 스타트업과 네트워킹, 우수참여자 사례 공유

80) 강릉시 홈페이지, 사업 및 예산정보, (<http://www.gangneung.go.kr/www/selectTeCurrAmtDescView.do?year=2020&dbizCd=420000020203012A&searchFisFg=&key=1673&fisYear=&fisFgCd=&deptNm=&dbizNm=&pageUnit=10&pageIndex=17>) 2020년 12월 2일 검색

■ 문화재 야행

○ 정책 동향⁸¹⁾

-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 지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음
- 문화재가 밀집·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재 야간 관람과 체험 및 공연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이 사업은 매년 관람객의 수가 증가하며 예산도 확대. 이러한 선순환의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 결과 있음

〈그림 4-50〉 문화재 야행 심사기준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문화재 야행 특성화 콘텐츠 (40점)	문화재 정체성 반영 정도	-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사업 개념, 목적, 방향, 내용의 적합성 등) - 문화재 야행의 주제가 지역 문화재의 정체성 반영 여부 - 콘텐츠의 적절성(이동형, 아간형, 채류형, 해설 체험형)
	대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력	- 대표 문화재를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여부 - 대표 문화재에 대한 해설/답사/야간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여부
	인근 문화재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 대상 문화재 전체 활용 여부 - 인근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개방 여부 -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연계 프로그램 구성 여부
사업운영체계 (40점)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사업담당 조직구성의 체계성 - 전담조직의 사업 전문성 정도 - 사업참여 조직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 지역 상권과 연계한 협의체 구성 및 추진 여부 - 지역주민,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의 협력적 추진 정도
	사업관리 역할	-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 문화재 보존방안이나 대응체계의 적절성 - 사업장소의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의 적절성
지속발전 가능성 (20점)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 문화재 야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 문화재 및 개발된 콘텐츠의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가능성
	자체평가 계획 및 환류	- 자체평가 수립·실행 계획의 체계성 - (해당사업) 전년도 컨설팅 의견 반영 노력 및 개선도

○ 무성서원 일대의 경쟁력

- 무성서원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되어 평가시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림 4-50〉과 같이 심사 기준표를 보면 문화재 야행 특성화 콘텐츠(40점) 중 문화재 정체성 반영 정도와 대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력, 인근 문화재 및 문화시

81)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사업 평가체계 개선 용역』, 문화재청, 2019.

설과의 연계성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사업운영체계(40점) 중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는 2020년의 경우 20점일 정도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 부분 역시 태산선비마을 등 기존 주민 자치회 등을 통해 어필 할 수 있음
- 문화재 야행의 시기는 7-8월이 적당함. 무성서원 일대에 연인원 4만 여 명이 다녀가는 칠보물테마유원지가 있음. 따라서 물놀이를 즐긴 인원이 문화재 야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를 통해 체류 효과를 더욱 늘릴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이 선순환을 이루면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홍보를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음

〈표 4-10〉 칠보물테마유원지(전사관) 2017·2018년 월별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7	27	44	78	211	64	38	16,863	15,894	208	118	161	50	33,756
2018	52	54	88	151	90	204	26,655	16,445	68	112	86	32	44,037

V

결론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 유네스코 등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은 세계유산 14개, 기록유산 16개, 무형유산 20개가 등재
- 2019년 7월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총회에서 소수·남계·옥산·도산·필암·도동·병산·무성·돈암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포함되어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 각 서원은 특색에 맞춰서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연구원⁸²⁾을 제외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차원에서 향교·서원 활용사업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한국서원연합회의 “향교·서원 활용 실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성서원은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 강좌, 서원 스테이, 강학당 운영, 유교문화 답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정읍시에서 각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 자원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무성서원의 연혁

○ 무성서원의 연혁

연도	주요내용
880년대 후반	최치원 부임
1400년대 중반	정극인이 가숙을 세움
1483(성종 14)	생사당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

82) 김성실, 『대구경북 서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9.

1510(중종 5)	송세림이 가숙을 향학당을 발전. 강당과 동서재 건립
1549(명종 4)	신잠 배향(추정)
1615(광해 7)	태산서원 창건
1630(인조 8)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추배
1675(숙종 1)	김관 추배
1696(숙종 22)	무성으로 사액
1783(정조 7)/1784(정조 8)	최치원 영정 이안 및 중수
1868(고종 5)	서원철폐령에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
1884(고종 21)	무성서원원지 간행
1906(광무 10)	병오창의
1930	무성서원원지 간행
1968	사적 지정(제166호)
201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 무성서원의 특징

○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고, 유상곡수를 실현했다는 각종 기록과 설화들이 있음
- 고려 현종 11년(1020)에 문묘에 배향되어, 동방의 유종(儒宗)이 되는 계기 마련
- 이 지역 주민들은 최치원과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무성서원에서 배향한 것은 1696년에 사액서원으로 지정받은 주요 근거로 작용
- 이후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 영정의 봉안, 『계원필경』 개간 등을 통해 유종을 배향한 곳이라는 상징성 보유
- 『무성서원원지』(1930)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원 설치는 무성서원에서 시작되었고, 문화의 창업 역시 최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의 교화와 관련된 것이 중국의 백록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자부할 정도
- 호남 제일의 정자 피향정은 최치원이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후대의 선비들도 이를 공유하는 시를 지어 그 상징성 보유

○ 선비문화의 중심지

- 조선 초기에 정극인이 처향인 고현내로 이주하면서 기숙을 열어 고을의 자제를 가르쳤고, 이는 후일 무성서원의 모태
- 고현내 주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 성립
-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손꼽히는 상춘곡을 비롯한 각종 시와 가사문학을 남기며 안빈낙도의 삶을 표현
- 송세림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 나머지 배향인물들도 모두 고현향약을 주도
- 송세림은 정극인의 가숙에 강당과 동서재를 세워 향학당으로 발전
- 이들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향약으로 마을의 풍속을 교화하며 선비문화를 발전
- ‘은일자중(隱逸自重)’하는 선비들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7광(狂)과 10현(賢)’. 이들과 관련된 유적이 송정, 영당, 후송정 등에 남아 있고, 송정의 영모당에는 <칠광도>, <송정수계지도>, <송정십현도> 등의 그림이 있음
- 1910년에 어용화사 채용신이 <칠광도>와 <송정십현도>를 새로 그림
- 이와 같은 선비문화의 문화적 전통이 남아 고현내를 ‘조선 유학의 시발지(始發地)’ 혹은 ‘호남사림의 중심지’라고 평가

○ 선비문화의 실천지

- 이 지역 선비 안의와 손홍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 등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서 보존
-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음
- 후손들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1676년(숙종 2)에 남천사(藍川祠)를 건립하여 이들의 ‘분충거의(奮忠擧義)’를 추모. 이는 지역에 내려오던 선비정신과 관련 있고, 그 실천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이외 김후진과 김대립 등은 임진왜란, 김감과 김정은 호란에 참전
- 1906년에 최익현을 중심으로 무성서원의 유림들이 모여 병오창의. 이때의 주역이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참여한 유림들로 상당수가 이 지역 인물들
- 이처럼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1천 년 넘게 내려오는 지역의 선비정신과 관련 깊음. 그리고 그 중심지는 바로 무성서원

■ 태산선비문화권

○ 태산선비문화권의 재설정

- 태산선비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 2002년에 『“태산선비문화권” 개발계획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개념 확립
- 공간적 범위를 정읍시 칠보면 일대로 하고, 대상 지역에 칠보·태인·북면·용동·산내·산외면 등으로 선정. 즉, 조선시대의 태인현 일대로 범위 설정
- 현재 정읍시는 “정읍 동북권역을 관광하는 코스로 보물 제 289호인 피향정을 비롯하여 신리팔의 유현인 고운 최치원과 조선시대 태인현감이던 신잠을 기리는 무성서원, 옥정호 일원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라고 소개
- 하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동선이 먼 단점이 있고, 하나의 테마로 묶기에 이질적인 면들도 있음. 따라서 광의의 태산선비문화권과 협의의 태산선비문화권을 재설정해야할 필요
-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브랜드 파워와 선비문화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성서원이 포함된 고현내를 중심으로 신(新)태산선비문화권으로 정립
-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은 대부분 고현내를 기반으로 활동하여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함. 고현내 가운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자원의 밀집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칠광도’에 포함된 지역을 태산선비문화권으로 설정
- 이 지역에는 보물 3점, 사적 1점, 도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9개, 보존성을 가진 3개의 역사문화유산, 잠재성을 가진 27개의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역사문화자원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 아울러 태산선비마을,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칠보물테마유원지 등의 문화시설을 보유

■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

○ 기초자료 집성 및 문화재 지정

- 석지 채용신이 그리고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칠광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이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토대 마련
- 『무성서원원지』를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의 기본 콘텐츠로 삼아야 함. 아울러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공신력을 높여야 함
- 무성서원의 고문서와 고문헌, 전적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가운데 가장 적은편이지만 유생안류와 완문, 심원록, 연액기사, 중수일기 등은 무성서원만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 있음
-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활용한 콘텐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키오스크의 설치 및 현판 등에 번역문 등을 게재하는 작업 필요

○ 거점지역 구축

- 태산선비문화권을 확장하고 무성서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태산선비문화수련관을 건립할 필요 있음
- 최근 제정된(2020년 5월) ‘물관리기본법’의 물문화 항목을 토대로 환경부 예산을 받아 무성서원 주변의 동진강, 칠보천, 은석천 등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정비
- 최치원의 상징성을 지닌 유상대를 원위치에서 복원하고 랜드마크화할 필요 있음. 최치원이 이곳에서 유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지역 주민들은 그 기억을 공유하고, 전승했다는 중요성을 가짐. 이러한 점들이 최치원과 무성서원, 고현내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 따라서 최치원과 관련된 상징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주요 지역
- 정극인의 상춘곡과 관련하여 무성서원 뒤편의 성황산과 동진강 일대를 상춘(常春)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꽃동산으로 만들 필요 있음. 이는 정읍시의 시책인 ‘향기나는 정읍’과 일맥상통하고, 새로운 명소로 관광객 유입의 효과를 높이며 정극인과 상춘곡에 대한 위상 제고
- 병오창의에 참여한 김지술, 김직술을 배향한 시산사, 일제의 은사금을 거절하고 순국한 김영상을 모신 필양사 등이 밀집해있는 연꽃생태공원에 이들의 의병운동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과 조형물, 김영상 투수도 같은 내용 등의 시설물 정비 등을 확충하여 항일 독립운동 역사지구로 조성

○ 연계시설 조성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정읍시는 이 사업에 공모하여 태산선비문화권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 등을 설립할 필요 있음
- 태산선비문화권은 향약의 시원지이자 전통의 계승지라는 상징성 있음. 따라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 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할 필요 있음. 최근 트렌드는 마을 기록관 설립 등을 통해 지역민의 자존감을 제고하고 있음. 향약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동각을 리노베이션하여 마을 기록관으로 만들어 주민의 자존감 제고
- 현재의 송현섭 추모공원이 있는 시산은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와 거의 일치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이곳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도하고, 칠광도의 우수성을 더 알릴 수 있음. 전망대 내부에 채용신 관련 회화를 전시하고, 칠광도와 현재 문화유산의 위치 등을 알리는 자료 등을 배치할 필요 있음

- 전라북도 주관 ‘아름다움 주거경관 개선사업’, 국가균형발전위 주관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남전·송산마을을 순차적으로 등재할 필요 있음
-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을 통해 미디어 파사드 공연, 건물도색, 경관 조경물 설치 등을 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수 있음
- 최근 핫플(핫플레이스)의 가능자 중 하나가 경관적 요소임. 특히, 주요 지역마다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무성서원의 주요 지역에 포토존을 설치할 필요 있음

○ 관련 사업 기획

- 향음주례의 전통을 가진 지역인 만큼 현대식 향음주례 행사를 마련하여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 지역의 전통을 강조
- 최근 기업 등에서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음. 정읍시도 도내기업 혹은 정읍시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업무협약을 맺을 필요 있음. 아울러 문화재청에서 학교와 연계한 문화재 지킴이 행사를 시행하는데 관내의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
- 코로나 19 등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 따라서 둘레길을 정비하고 역사와 문화를 입힐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할 필요 있음. 해당 지역은 관련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3가지 코스로 확장할 수 있음. 향후 정읍시에서 활용 제안
-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인구유출이라는 문제가 심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7.2.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로 지원. 따라서 강원도처럼 한 달 간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고, 제주도와 같이 혁신적 인재의 유입과 체류를 통한 지역 자원 활요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운영 가능
- 문화재청의 대표적 지원사업인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무성서원을 주무대로 하고, 태산선비권역을 포함한다면 충분한 경쟁력 있음. 아울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칠보물테마유원지를 활용한다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외 무성서원이 강습례의 전통을 가진 정신사와 지성사의 중심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특강, 중요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적 상징성을 부여할 필요 있음. 그렇다면 후일 태산선비문화원에서도 그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아울러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무성서원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위상 강화
- 병오창의 체험 운동 등을 토대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참고문헌

『不憂軒集』

『燃藜室記述 別集』 권4

『月城世稿』 권2

『典故大方』 권4

『武城書院院志』(1884)

강지혜(2014),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2

김동영 외(2018),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전북연구원

김성실(2019), 『대구경북 서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방향』, 대구경북연구원

문화재청(2019), 문화유산 유유자적(290선)

문화재청(2019), 문화재 야행사업 평가체계 개선 용역

박미선(2018),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활용방안」, 『지역과 문화』 5-4

박영주(2014), 「사대부 가사의 선구자, 불우헌 정극인」, 『오늘의 가사문학』 3

박정민(2020), 「영천자 신잠의 생애와 활동 : 태인현감 시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9

박정민(2020),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박정민(2020),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박종배(2013),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4

백승중(1996), 한국사회사연구, 일조각

오병무(2000), 「韓國儒林의 발생과 정읍 태산-최치원의 유상대(流觴臺)를 중심으로-」, 『태산 문화조명 학술대회 발표문』

이강오(1992),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이수환(2013),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이재운(1995), 「崔致遠의 生涯 研究」, 『전주사학』 3

이해준(2012),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9개 서원의 자료정리 현황과 과제』

-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2017), 전북의 구비설화
- 정읍문화원·성균관대학교 신학협력단(2007), 『정읍 원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기본계획』
- 정읍문화원(2009), 『정읍의 정려』
- 정읍문화원(2017), 『정읍문화재지』
- 정읍문화원(2017), 『고운 최치원 자료집』
- 정읍시(2002), 『“태산선비문화권” 개발계획 연구』
- 정읍시 내부자료(2020), 2020년 무성서원 보존·활용사업 계획(안)
- 정훈(2012), 「정읍 피향정(披香亭) 제영시(題詠詩) 연구」, 『국어문학』 52
- 조성욱(2006), 「지역 중심지의 역할 변화와 지리적 관성-전라북도 정읍시 칠보 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202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 한문중(2013), 「임진왜란 시기 장성 남문의병의 활동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45
- 환경부(2018),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s://www.gn.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 (<http://www.dosansunbi.kr/>)

대한민국 구석구석, 칠보물테마유원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2XXX1627632>)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https://www.youtube.com/watch?v=P9xEb-q9DEU>)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main.html>)

시사브리핑, “신협, 문화유산 보전 앞장”,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6>)

연합뉴스, “정극인의 향음주례 재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04070>)

연합뉴스, “재규어랜드로버, 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 보전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8053900003?input=1195m>)

은퇴자공동체마을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g_subsite/maeul/index.jsp)

- 전라북도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jbgokr>)
- 전북도민일보, “태산선비문화 재조명”,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522&replyAll=&reply_sc_order_by=1)
- 전북일보, “전주한옥마을, 문체부 주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753&sc_section_code=S1N1&sc_sub_section_code=S2N4)
- 정읍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jeongeupnews>)
- 정읍시 보도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이 자리한 칠보 원촌마을, 전북도 주관 ‘아름다운 주 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
- 정읍시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
- 정읍시청 (www.jeongeup.go.kr)
- 청주시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cjcityblog>)
- 충청일보, “옥산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체험장소 인기”,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463>)
- 케이랜뉴스, “호남권 선비문화 ‘태산선비원’ 국비확보 재도전”,
(http://www.klan.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45081)
- 태산선비마을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http://www.taesanin.com/html/intro.html>)
- 한국고중세사전, 가사문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9091&cid=62047&categoryId=62047>)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intro.html>)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홀수형,
(<http://www.suneung.re.kr/boardCnts/list.do?type=default&page=8&m=0403&C06=&boardID=1500234&C05=&C04=&C03=&C02=&C01=&s=suneung>)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일보, “조선 성리학의 요람’ 서원 9곳, 세계유산 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41031372702?did=DA&dtype=&dtypecode=&prnewsid=>)

부록

1. 무성서원 관련 자료 현황

부록. 무성서원 관련 자료 현황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	고서	1930년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	1930	미상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사부; 지리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	고서	1891년 직헌집(直軒集)	1891	김종순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집부; 시문평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3	고서	1899년 긍구당유고(肯構堂遺稿)	1899	김중정	미상	무성서원	미상	o	집부; 시문평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4	고서	일제시대 한음집(漢陰集)	일제시대	이덕형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집부; 별집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5	고서	1921년 동곡집(東谷集)	1921	김재희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집부; 시문평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6	고서	1932년 외암집(畏庵集)	1932	김도명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집부; 시문평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7	고서	1933년 전주이씨일효삼렬록(全州李氏一孝三烈錄)	1933	미상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사부; 전기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8	고서	1939년 고현동약지(古縣洞約誌)	1939	미상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사부; 지리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9	고서	1942년 병천사지(秉天祠誌)	1942	미상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사부; 지리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10	고서	1964년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1964	미상	미상	무성서원	미상	x	사부; 전기류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11	근현대문서	1927년 장대영(張大榮) 등 고목(告目)	정묘년	장대영 (張大榮) 등	김 승지 (金承旨)	무성서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명령·보고; 고목	武城書院의 張大榮 등이 金承旨에게 올린 고목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12	근현대문서	1934년 강병선(姜炳先) 등 고목(告目)	갑술년	강병선 (姜炳先) 등	최 생원 (崔生員)	무성서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명령·보고; 고목	武城書院 西齋의 姜炳先 등이 崔生員에게 보낸 告目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과, 현황, 과제참조)
13	고문서	무진년 최낙균(崔珞均) 무성서원 장의 망기(望記)	무진년	무성서원 유희소 (武城書院 儒會所)	최낙균 (崔珞均)	무성서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무진년2월에무성서원의유희소에서고창군벽사 면에살고있는參奉崔珞均을장으로추천하는망 기이다.
14	고문서	1927년 김용덕(金溶憲) 무성서원 장의 망기(望記)	정묘년	무성서원 유희소 (武城書院 儒會所)	김용덕 (金溶憲)	무성서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金溶憲 武城書院 掌議 薦望單子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 과, 현황, 과제참조)
15	고문서	갑자년 무성서원 도내 색장 망기(望記)	갑자년	무성서원 유희소 (武城書院 儒會所)	박봉규 (朴奉圭)	무성서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武城書院 道內色掌 薦望單子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 과, 현황, 과제참조) 갑자년에武城書院의道內色掌으로朴奉圭를추 천하면서작성한望記이다.
16	고문서	갑술년 최규화(崔圭華) 훈장 망기(望記)	갑술년	무성서원(武城書院) 서재(西齋) 강병선(姜炳先) 등	최규화(崔圭華)	무성서원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소송·청원; 소지	道內 儒林의 訓長 薦望單子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 과, 현황, 과제참조) 갑술년에武城書院의도내유림의訓長으로幼學 崔圭華를추천하면서작성한望記이다.道會所에 서작성하였다.
17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김환풍 (金煥豐)	미상	미국 하버드대 연칭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18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미상	미상	국민대 성곡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19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김인기 (金麟基)	미상	전남대 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20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29	김인기	미상	고려대	x	x	사부; 지리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金麟基)		도서관				
21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 續. 卷3	1936	무성서원	미상	성암고서박물관 물관자료실	x	x	사부; 지리류	
22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1	무성서원	미상	성암고서박물관 물관자료실	x	x	사부; 지리류	
23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884	최성재 (崔成在)	미상	계명대 동산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24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박봉주 (朴鳳柱)	미상	계명대 동산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25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卷3	1936	김인기 (金麟基)	미상	국립중앙도 서관	x	x	사부; 지리류	
26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1	김환풍 (金煥豊)	미상	국립중앙도 서관	국립중앙 도서관	x	사부; 지리류	
27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884	무성서원	미상	미국 UC버클리대 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28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김인기 (金麟基)	미상	전남대 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29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김인기 (金麟基)	미상	전남대 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30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김인기 (金麟基)	미상	전주대 중앙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31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김인기 (金麟基)	미상	성균관대 존경각	x	x	사부; 지리류	
32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884	미상	미상	장서각	x	x	사부; 지리류	
33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884	미상	미상	정읍시립박 물관	x	x	사부; 지리류	
34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미상	미상	국립전주박 물관	x	x	사부; 지리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35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1930	미상	미상	국립전주박물관	x	x	사부; 지리류	
36	고서	무성서원원지(武城書原院誌)	미상	미상	미상	교과서박물관	x	x	사부; 지리류	
37	고서	무성서원서원지(武城書院院誌) 下	1884	무성서원	미상	정읍 응계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사부; 지리류	
38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1936	김인기 (金麟基)	미상	국립중앙도 서관	국립중앙도서 관	x	사부; 지리류	
39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1930-3 6	김인기 (金麟基)	미상	국립중앙도 서관	국립중앙도서 관	x	사부; 지리류	
40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1884	무성서원	미상	국립중앙도 서관	국립중앙도서 관	x	사부; 지리류	
41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下	1930	미상	미상	동신대 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42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1930	미상	미상	동신대 도서관	x	x	사부; 지리류	
43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1935]	김상수 (金相洙)	미상	춘호재	x	x	사부; 지리류	
44	고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1884	최성재 (崔成在)	미상	모덕사	x	x	사부; 지리류	
45	근현대문서	1925년 온성하(溫聖河) 최치원 영정 봉안 배종원 망기(望記)	1925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온성하 (溫聖河)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1925년에 전북 정읍 칠보에 있는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작성한 망기이다. 溫聖河를 문창후 최치원의 영정 봉안 배종원으로 천거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46	근현대문서	1933년 온성하(溫聖河) 진신재장 망기(望記)	1933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온성하 (溫聖河)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1933년 무성서원 도회소에서 전 장의 溫聖河를 도내 진신재장으로 천거하면서 작성한 망기이다. 당시 온성하는 김제군 금구면 상신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47	고문서	갑술년 안순항(安淳恒) 무성서원 향재관 망기(望記)	갑술년	유회소 (儒會所)	안순항 (安淳恒)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갑술년 정월에 유회소(儒會所)에서 도집례(都執禮) 안순항(安淳恒)에게 발급한 망기이다. 안순항을 무성서원(武城書院)의 향재관(享祭官)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무성서원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서원으로 신라 때의 유학자인 최치원을 모시는 곳이다.
48	고문서	갑진년 박노석(朴魯錫) 무성서원 도내색장 망기(望記)	갑진년	무성서원	박노석 (朴魯錫)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갑진년에 武城書院의 道內色掌으로 朴魯錫을 추천하면서 작성한 望記이다.
49	고문서	1903년 안규용(安圭容) 무성서원 도내장의 망기(望記)	계묘년	무성서원	안규용 (安圭容)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계묘년 10월에 도회소(道會所)에서 장흥(長興)에 살고 있는 유학(幼學) 안규용(安圭容)에게 발급한 망기이다. 안규용을 무성서원(武城書院)의 도내장의(道內掌議)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무성서원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서원으로 신라 때의 유학자인 최치원을 모시는 곳이다.
50	근현대문서	1942년 김윤곤(金允坤) 무성서원 재장 망기(望記)	임오년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김윤곤 (金允坤)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임오년 정월에 도회소(道會所)에서 전(前) 직원(直員) 김윤곤(金允坤)에게 발급한 망기이다. 김윤곤을 무성서원(武城書院)의 재장(齋長)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무성서원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서원으로 신라 때의 유학자인 최치원을 모시는 곳이다.
51	고문서	임오년 조영우(趙泳愚) 무성서원 도내장의 망기(望記)	임오년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조영우 (趙泳愚)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 시스템	x	과거·임용; 망기	임오년에 도회소에서 幼學 趙泳愚에게 발급한 망기이다. 조영우를 무성서원의 도내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무성서원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서원으로 신라 때의 유학자인 최치원을 모시는 곳이다.
52	고문서	1903년 김상호 등 소지(所志)	1903	김상호(金 相浩) 등	무성서원 의	호남기록문 화시스템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x	통고; 통문	全羅道の 儒生 金相浩 等이 武城書院의 院貳에게 올린 所志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원이(武城書院의院貳)		록문화시스템)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53	고문서	1903년 무성서원도회소 통문(通文)	계묘년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전주향교 (全州鄉校)	국립전주박 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道會所에서 순주(順州)로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전주출신의 고(故) 통정대부 유정삼(柳鼎三)의 효행과 학식의 뛰어난을 들어 전주향교에서 그의 실제 행적을 모아 서울에 전보(轉報)하여 천양(闡揚)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54	근현대문서	1924년 무성서원도회소 통문(通文)	1924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익산향교 (益山鄉校)	국립전주박 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道會所에서 순주(順州)로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고(故)임영술(林永述)의 아내인 엄(嚴)씨의 효열(孝烈)에 대해 사례를 들며 서술하면서 군지(郡誌)를 편찬할 때에 빠뜨리지 말고 실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55	고문서	병진년 무성서원도회소 통문(通文)	병진년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김제향교 (金堤鄉校)	국립전주박 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道會所에서 금堤(金堤)로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탁영선생김일손(金弼孫, 1464-1498)의 후손 인김남복(金南福)의 딸이며 고(故)유홍규(柳興奎)의 아내인 김해(金海)씨의 효열(孝烈)을 세세하게 거론하며 이러한 행적을 청사(淸史)에 길이 남겨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56	고문서	병진년 무성서원도회소 통문(通文)	병진년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김제향교 (金堤鄉校)	국립전주박 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道會所에서 금堤(金堤)로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김제군의 효릉참봉(孝陵參奉) 유인성(柳寅聖)의 지극한 효행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소대(昭代)의 흠전(欠典)이라 하여 이를 천양(闡揚)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통문이다. 유인성은 유백영(柳伯永)의 아들인데 같은 시기에 유인성의 조모(祖母)이며 유백영의 어머니인 김해김씨에 대한 추천통문도 있다.
57	고문서	1903년 무성서원남북도유회의 사시(私誌) 요청 통문(通文)	계묘년	무성서원 남북도유회 (武城書院 南北道儒 會)	성균관 (成均館) 첨존(僉尊) 각하(閣下)	국립전주박 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南北道儒會에서 成均館에 私誌 요청하는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계묘년3월에무성서원(武城書院)남북도유회(南北道儒會)에서고(故)정은거사(淸隱居士)안규옹(安圭容)의사호(私諡)를받기위해성균관(成均館)첨존(僉尊)각하(閣下)에게보낸통문(通文)이다. 안규옹은죽성군(竹城君)문혜공(文惠公)안원형(安元衡)의20세손 안규(安規)의15세손 병자호란때의병을일으킨한강(縣監)안신일(安信一)의9세손, 성균학사(成均學士)를지낸 안세환(安世煥)의만아들로, 전제(全燾)임문경(任文敬)선생의문제(門弟)이다. 안규옹의사호에 대해서는이미장흥향회에서가결된것이고이제향중에서'효혜(孝惠)'와'효정(孝貞)'으로시호를가올라왔지만, 첨존(參贊)송영대(宋榮大)의논정(論定)이미미있었고또'효혜'가같은점수를받았기때문에안규옹의시호를'효혜'로의정하는것이나을듯하니첨존께서특별히살펴서허가해주어영원히시행할수있게해달라는내용이다. 발문에참여한사람은다사(多士)54명등이다.
58	근현대문서	1924년 무성서원유회소의 효열 표창 통문(通文)	1924	무성서원 유회소 (武城書院 儒會所)	익산향교 (益山鄕校)	국립전주박 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泰仁 武城書院儒會所에서 孝烈 표창건으로 益山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1924년12월에전라북도(全羅北道)태인(泰仁)무성서원유회소(武城書院儒會所)에서고(故)사인(士人)임영술(林永述)과그의처(妻)파평염씨(波平廉氏)의효열(孝烈)을표창하고자익산향교(益山鄕校)에보낸통문(通文)이다. 임영술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신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본관은조양(兆陽)이고임사수(林士壽)의후예이며임기풍(林基豊)의이들로.그효성이왕상(王祥)과도같이세상사람들이모두호자라일컬었고, 그의처파평영씨는부모에게효도하고이름미루어시부모를섬김에잘봉양하였으며, 지아비를잘 받들어따르고자식을잘가르치며집안의화목을 이루었다. 그러나남편이병에걸려위독해지자그를살리기위해백방으로힘썼지만끝내죽게되자 또한그예를다하여슬퍼하였으니,이러한두사람의효열을칭송하기위해표창해야한다는내용이다. 발문에참여한사람은모두17명이고, 작성연도부분에 '무성서원'이라는사각형의서원인(書院印)이검은색으로찍혀있다.
59	고문서	임진년 무성서원도회소의 효행 표창 통문(通文)	임진년	무성서원 도회소 (武城書院 道會所)	김제향교 (金堤鄉校)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道會所에서 孝行 표창으로 金堤鄉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임진년2월에무성서원도회소(武城書院道會所)에서사인(士人)김국구(金國龜)의효행(孝行)을 표창하자는내용으로김제향교(金堤鄉校)에보낸통문(通文)이다. 김국구의본관은김해(金海)이고김국일(金克一), 김일손(金貽孫)의후예로 어려서부터천성이순후하였다. 부모님이일찍돌아가심에거성(居喪)의예를다하였으며, 서모(庶母)김씨(金氏)가홀로집안에있을때에서도한국진히봉양하였으니이같은사실을표장(褒獎)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문(發文)에 참여한 사람은 유학(幼學) 김학흠(金學欵) 외 35인 등이다.
60	고문서	임신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임신년	무성서원 유림(武城 書院 儒林)	함평향교 (咸平鄉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 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이 咸平鄉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임신년에무성서원의유림들이함평향교에보낸 통문이다. 함평사인故金箕稷의아내昌寧成氏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효열(孝烈)을포창하는데힘을같이할것을요청하고있다.
61	고문서	1902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임인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금구향교 (金溝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들이 金溝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임인년에태인무성서원에서금구향교의유림들에게보낸通文이다. 무성서원의유림들이금구출신인溫聖河의효행을전해듣고금구의유림들에게적극적으로정려를내려주도록건의할것을촉구하였다.
62	근현대문서	1942년 무성서원 통문(通文)	임오년	무성서원(武城書院)	금구향교 (金溝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泰仁 武城書院에서 金溝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임인년에태인무성서원에서금구향교의유림들에게보낸通文이다. 무성서원의유림들이금구출신인溫聖河의효행을전해듣고금구의유림들에게적극적으로정려를내려주도록건의할것을촉구하였다.
63	고문서	1903년 무성서원 통문(通文)	1903	무성서원(武城書院)	금구향교 (金溝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에서 金溝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계묘년에태인무성서원에서금구향교의유림들에게보낸통문이다. 무성서원의유림들은금구출신인金七齋의효행을전해듣고금구의유림들에게적극적으로金七齋의효행을드러내어褒揚이 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줄것을촉구하는통문이다.
64	고문서	갑술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갑술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모성공회 (慕聖公會)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들이 慕聖公會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갑술년에무성서원의유림들이모성공회에보낸 통문이다. 武城書院의儒林들이御賜閣에모여 金堤郡의前訓導郭契의 부친에 대한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효성을 포양하기 위하여 立碑建閣할 것을 청하였다.
65	고문서	갑술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갑술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금구향교 (金溝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泰仁 武城書院 儒林들이 金溝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갑술년에태인의무성서원유림들이금구향교에 보낸통문이다. 處士權溫錫의孝行을기려立碑建閣할것을청하는내용을담고있다.
66	고문서	갑술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갑술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김제향교 (金堤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들이 金堤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갑술년에무성서원유림들이김제향교에보낸통문이다. 金堤郡의前訓導郭獎烈의 孝行을기려 立碑建閣할 것을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7	고문서	무신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무신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태인향교 (泰仁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들이 泰仁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무신년10월에무성서원의유림들이태인향교에 보낸통문이다. 泰仁郡의士人林權鎭의妻慶州金氏의뛰어난孝行을郡과府를통해조정에알려褒揚之典을받을수있도록분발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
68	고문서	무신년 무성서원 유림 통문(通文)	무신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태인향교 (泰仁鄕校)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들이 泰仁鄕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무신년10월에무성서원의유림들이태인향교에 보낸통문이다. 泰仁郡의士人金采燮의妻韓山李氏의뛰어난孝行을郡과府를통해조정에알려褒揚之典을받을수있도록분발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
69	고문서	1892년 무성서원도회소 효행	임진년	무성서원	김제향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x	통고; 통문	武城書院都會所 權鍾豐 등이 金堤鄕校에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정려 통문(通文)		도회소(武城書院都會所) 권중풍(權鍾豐) 등	(金堤鄉校)	박물관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壬辰年8월에權鍾豐黃基煥등 武城書院都會所의사림9명이金堤鄉校에보낸通文이다. 이들은 김제군의선비宣邦學의뒤어년孝行을전해두고 김제향교의유림들에게의문을모아관에이사를알려정려의특전을내려주도록건의할것을촉구하였다.
70	근현대문서	1928년 무성서원 김택 등 통문(通文)	무진년	무성서원(武城書院) 김택(金澤) 등	모성공회(慕聖公會)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金澤 등이 京城의 慕聖公會에 올린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무진년에武城書院의金澤등여려선비들이全羅道沃溝郡聖山面內興里에서는前參議朱鎭國의 妻인淑夫人金氏의孝勲과그이년祕書丞朱化英의孝行을찬양하기위하여立碑建閣할것을요청하는通文이다. 김씨는주씨문중에서집안이래시부모를지성으로모셨으며, 그남편의병환을정성껏구한하였고, 그아들주화영역시偏母에대한孝行이다른이들의모범이될만하다고찬양하고있다.
71	근현대문서	1927년 무성서원 김기술 등 통문(通文)	정묘년	무성서원 유림(武城書院 儒林) 김기술(金箕述)	임피향교(臨陂鄉校)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武城書院 儒林 金箕述 閔在鎬 朴齊大 金澤 등이 臨陂鄉校에 보낸 通文 서원소장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자료정리성과, 현황, 과제참조) 정묘년11월에武城書院의유림金箕述閔在鎬朴齊大金澤등이작성하여臨陂鄉校의유림들에게 보내는통문이다. 臨陂郡聖山面內興里에서는 前兵曹參議朱鎭國의처淑夫人金氏의호행과열행을소개하고있다. 김씨는金聖熙의딸로어려서부터행동이반듯했고시아버지와시어머니를정성으로모셨으며남편이병들었을때는갖은약을구해봉양하고손가락을질라소생시켰으며죽은후에는오두막에거처하며애도하였다. 그이들前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祕書丞化英역시어머니를따라상장례예외와정성을다하였으므로이를널리기려후세의모범으로삼자는내용이다.
72	근현대문서	1925년 모성공회 통문(通文)	1925	모성공회(慕聖公會)	무성서원	원광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1925년(대정14)9월에모성공회에서무성서원 유림들에게보낸통장이다. 忠肅公朴堉선생은평소忠君愛親의뜻이남달랐는데, 난리를당해의기를침지못하고전쟁에참여하여적과싸우다힘이 다하여전장에서소절하였다. 그동안모성공회에서는선생의구국충정을경모하여제사를모셔오다가,이번에선생을배향하는사당을무안군지도에짓는일에대해인근정읍의무성서원유림들에게전하였다. 무성서원은전북정읍에있는서원으로, 최치원·정극인·송세립등을제향한다.
73	근현대문서	1959년 용산사 배향 관련 통문(通文)	1959년	무성서원	용산사(龍山祠)	원광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통고; 통문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1959년2월에武城書院에서龍山祠에보낸통문이다. 鄭先生부자의配享에관한내용이다.
74	근현대문서	1925년 무성서원도회소 임명장(任命狀)	1925	무성서원도회소(武城書院道會所)	온성하(溫聖河)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과거·임용; 임명장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1925년에전북정읍칠보에있는무성서원도회소에서작성한망기이다. 溫聖河를문장후 최치원의 영정봉안배증원으로천거하면서작성한것이다.
75	근현대문서	1933년 무성서원도회소 임명장(任命狀)	1933	무성서원도회소(武城書院道會所)	온성하(溫聖河)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x	과거·임용; 임명장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1933년무성서원도회소에서전장의溫聖河를도내진신재장으로천거하면서작성한망기이다. 당시온성하는김제군금구면상신리에거주하고있었다.
76	고문서	미상 무성서원도회소 상서(上書)	미상	무성서원도회소(武城書院道會所)	미상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o	소송·청원; 상서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城書院道 會所)						
77	고문서	20세기 무성서원 서재 강병선 등 통문(通文)	20세기	무성서원 서재 강병선(姜 炳先) 등	최 생원 (崔生員)	국립전주박 물관	국립전주박물 관	o	통고; 통문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78	고문서	연대미상 제문(祭文)	미상	무성서원(武城書院)	미상	국립전주박 물관	국립전주박물 관	o	관훈상제; 제문	서원소장 고서(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79	회화	1814년 송정수계지도	1814	송민고(宋 民古)	-	정읍시립박 물관	정읍시립박물 관	x	도면·서화; 서화	1621년 송민고가 그리고 1814년 모사됨
80	회화	1910년 송정삼현도	1910	송민고(宋 民古)	-	정읍 송산사	정읍시립박물 관	x	도면·서화; 서화	송민고가 그리고 1910년 채용신 모사
81	회화	칠광도	1910	채용신(蔡 龍臣)	미상	정읍시립박 물관	정읍시립박물 관	x	도면·서화; 서화	
82	고지도	18세기 해동지도 태인현	18세기	미상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83	고지도	18세기 비변사印 방안지도 태인현	18세기	비변사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84	고지도	1872년 지방도 태인현	1872	미상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85	고지도	19세기 광여도 태인현	19세기	미상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86	고지도	1834년 청구도 태인현	1834	김정호	미상	국립중앙도 서관, 영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87	고지도	시기미상 지승(地乘) 태인현	시기미상	미상	미상	규장각한국	규장각한국학	x	도면·서화;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학연구원	연구원		지도	
88	고지도	19세기 청구요람(靑邱要覽) 태인현	19세기	김정호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89	고지도	1872년 태인현지도	1872	미상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태인현읍지에 수록된 지도
90	고지도	18세기 호남지도 태인현	18세기		미상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x	도면·서화; 지도	
91	고문서	1773년 무성서원원생안(武城書院院生案)	1773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명단류; 유안	사액서원에 충족되기 위해 작성한 30명의 人名 院生案과 관련 關文
92	고문서	1880년 무성서원원생안 (武城書院院生案)	1800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명단류; 유안	사액서원에 충족되기 위해 작성한 30명의 人名 院生案과 관련 關文 및 무성서원 노비안
93	근현대문서	1929년 무성서원 통문(通文)	기사년	무성서원(武城書院) 권재일(權在-), 김택(金澤) 등	모성공회 (慕聖公會)	전남 강진군 도룡리 마을회관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전북 무성서원의 유생 박제대, 민재호 등 28명이 연명하여 모성공회(慕聖公會)에 보낸 소지이다. 강진군 고군면 도룡리에 사는 정부인 김해김씨는 한재홍(韓在鴻)의 처인데,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남편이 죽은 후 자식들을 잘 키웠으며, 두 아들은 효자로 알려진 사람이니, 정부인을 찬양해주길 바란다는 청원서이다.
94	근현대문서	1938년 무성서원 통문(通文)	무인년	무성서원(武城書院) 진사 김택(金澤) 등	각군 향교	전남 강진군 도룡리 마을회관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1938년에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각 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에 사는 효열부 하동 정씨 재인(在仁)의 딸은 한종효(韓宗孝, 1863-1945)의 아들인 한석림(韓哲簾)의 부인으로, 효애가 뛰어나고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공덕이 크니, 그의 효행실적을 드러내주길 바라는 내용이다.
95	근현대문서	1939년 무성서원 통문(通文)	기묘년	무성서원(武城書院) 진사	모성공회 (慕聖公會)	전남 강진군 도룡리 마을회관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이 통문은 전라도 무성서원에서 유생들이 모성공회(慕聖公會)에 보낸 통문이다. 강진군 병영면에 사는 효열부 하동정씨는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김택(金澤) 등						정재인(鄭在仁)의 딸이며, 한중효(韓宗孝, 1863-1945)의 아들인 한석림(韓皙簾)의 부인으로, 효애가 뛰어나고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공덕이 크니, 그의 효행실적을 찬양해주길 바라는 내용이다.
96	근현대문서	1929년 무성서원 통문(通文)	기사년	무성서원	고산서원	광주 남구 기호중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무성서원에서 고산서원에 노사제자인 동오 조익근의 문집을 간행하자는 일로 보낸 통문
97	고문서	무술년 완문(完文)	무술년	태인군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증빙·공증; 완문	서원재산에 대하여 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내용이다. 절목부기.
98	고문서	을사년 완문(完文)	을사년	태인군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증빙·공증; 완문	서원재산에 대하여 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내용이다. 절목부기.
99	근현대문서	1939년 통문(通文)	1939	강진항교	무성서원	전남 강진군 도룡리 마을회관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1939년에 강진항교에서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이다.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에 사는 효열부 하동 정씨 재인(在仁)의 딸은 한중효(韓宗孝, 1863-1945)의 아들인 한석림(韓皙簾)의 부인으로, 효애가 뛰어나고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공덕이 크니, 그의 효행실적을 찬양해주길 바라는 내용이다.
100	근현대문서	1928년 통문(通文)	무진년	광주항교	무성서원	용계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광주항교에서 장익선의 효행을 찬양하고자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이다.
101	근현대문서	1982년 시도기(時到記)	임술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관훈상제; 시도기	제례 참석자 명단이다.
102	근현대문서	1979-1980년 시도기(時到記)	기미- 경신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관훈상제; 시도기	추향제 참석자 명부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03	근현대문서	1974-1979년 시도기(時到記)	갑인-기미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관훈상제; 시도기	제례 참석자 명단
104	근현대문서	1981-1985년 제수기(祭需記)	신유-을축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관훈상제; 제수물목	
105	근현대문서	1928년 품고(禀告)	1928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명령·보고; 품고	권재일이 개인적으로 서원 도장을 파서 유인을 작성하고 있는 폐단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다.
106	근현대문서	1957년 통문(通文)	1957	김용기(金龍基) 등	각위(各位) 존좌(尊座)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면암 최익현을 모신 태산사 복설 통문
107	고문서	1902년 고현동각수계안(古縣洞閣修繕案)	1902	고현동 향약계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약회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조선시대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된 향약에 대한 자료집이다.(보물 1181호)
108	근현대문서	1928년 동각계안(洞閣稽案)	1928	고현동 향약계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약회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조선시대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된 향약에 대한 자료집이다.
109	근현대문서	1954년 고현동약(古縣洞約)	1954	고현동 향약계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약회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조선시대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된 향약에 대한 자료집이다.
110	근현대문서	1974년 고현동약안(古縣洞約案)	1974	고현동 향약회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약회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조선시대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된 향약에 대한 자료집이다.
111	고문서	1801년 고현동약안(古縣洞約案)	1801	고현동 향약회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약회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조선시대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된 향약에 대한 자료집이다.
112	근현대문서	1928년 고현향약규례(古縣鄉約規例)	1928	고현동 향약계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약회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조선시대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된 향약에 대한 자료집이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전자사료관			
113	고문서	1860년 완문(完文)	1860	관	고현동 향회	태인 고현동 향악회중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증빙·공증; 원문	고현동각 관련해 관에서 발급해준 원문
114	근현대문서	1938년 동각복구안(洞閣復舊案)	1938	고현동 향악회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악회중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절목류; 절목	고현동각 복구 중수를 청한 글과 의연금 명부
115	근현대문서	1962-1977년 상선록(賞善錄)	1962- 1977	고현동 향악회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악회중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기타	고현동향회에서 효자 등을 포상한 내용 수록
116	근현대문서	1955년 태산고현동약비원문(泰山古賢洞約 碑原文)	1955	고현동 향악회	미상	태인 고현동 향악회중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고현동 향악을 기념하는 비 원문
117	근현대문서	1919년 동학당전답안(洞學堂田畵案)	1919	고현동 향악회		태인 고현동 향악회중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전답안	고현동향회 소유 전답안
118	근현대문서	1923년 통문(通文)	1923	정읍군칠 보면태산 사중건소 유회(井邑 郡七寶面 泰山祠重 建所儒會)	김사문기 솔씨(金 斯文箕述 氏)	전북 정읍 김석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계해년(1923) 정읍군 칠보면 태산사중건소에서 보낸 통문으로 최익현이 거의한 곳에 태산사를 지어 영정을 보안하고 제향을 올리기로 하고 임시로 무성서원에 봉안하였으니 사우견립에 대동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119	근현대문서	1928년 서신	무진년	임현주(林 顯周)	김백기 (金伯基)	전북 정읍 김석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서간; 간찰	무진년 8월 10일에 林顯周가 정읍군 칠보면 무성리 金伯基에게 보낸 편지로 주자의 영정을 鳳山祠에 이안했는데 최익현을 종향하자는 의문이 나왔으니 무성서원에서 이를 상의해달라는 내용이다.
120	고서	1906년 창의일기(倡義日記)	1906	미상	미상	전북 정읍 김석	국사편찬위원 회	x		병오년(1906) 윤4월 13일 무성서원에서 최익현이 창의격문을 배포하면서부터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전자사료관			최익현의 죽음이후 정미년 4월까지의 일기이다.
121	근현대문서	1966년 정읍군내 유적지 정읍군대관	1966	미상	미상	전북 정읍 광형주	국사편찬위원회 회 전자사료관	x	근현대시기문서; 군지	정읍군내 행정 및 사업 각 분야를 소개한 사진첩으로, 1966년에 간행한 정읍군대관이다. 여기에는 앞에 우암송시열 유희비각, 피항정, 무성서원, 동학혁명기념탑, 칠보발전소 등의 사진이 실려 있고, 이어 정읍군청 건물, 군수와 직원 등을 비롯하여 1963년 '새로와저가는 정읍군' 책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읍 제반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실어 놓고 있어 당대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읽어보는데 도움이 된다.
122	고문서	1830년 김헌태 등 산송 상서	1830	김헌태(金憲泰) 외 98인	전라도 관찰사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회 회 전자사료관	x	소송·청원; 상언	경인년(1830) 3월 金憲泰외 98인이 金羅道 觀察使에 올린 上書로 武城書院 근처에 偷葬한 李氏憲을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123	고문서	1830년 김헌태 등 산송 상서	경인년	김헌태(金憲泰) 외 23인	전라도 관찰사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회 회 전자사료관	x	소송·청원; 상언	경인년(1830) 3월 金憲泰외 23인이 泰仁縣監에 올린 上書로 이민현이란 자가 武城書院 근처에 어미의 무덤을 偷葬하였는데 관에서 이를 파 가도록 처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묻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놓아두었다.
124	고문서	1830년 김헌일 등 산송 상서	경인년	김헌일(金憲一) 외 71인	전라도 관찰사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회 회 전자사료관	x	소송·청원; 상언	경인년(1830) 3월 金憲一외 71인이 泰仁縣監에 올린 上書로 무성서원 근처에 투장한 李氏憲과 金正欽을 처벌해 줄 것을 泰仁縣監에게 청원하는 내용이다.
125	고문서	1844년 송치덕 등 산송 상서	갑진년	송치덕(宋致德) 외 17인	태인현감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회 회 전자사료관	x	소송·청원; 상언	갑진년(1844) 12월 송치덕외 17인이 聯名으로 泰仁縣監에 올린 上書로 泰仁古縣內面 雲山 武城書院 근처에 누군가 偷葬함에 따라 이를 처리해 줄 것을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泰仁縣監에게 청원하고 있다.
126	고문서	1845년 김민 등 산송 상서	을사년	김민(金玟) 외 24인	태인현감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소송·청원; 상언	을사년(1845) 10월 金玟의 24인이 聯名으로 泰仁縣監에 올린 上書로 泰仁 古縣內面 雲山 武城書院 근처에 金石斗가 偷葬함에 따라 이를 처리해 줄 것을 泰仁縣監에게 청원하는 내용이다.
127	근현대문서	1946년 민병승 등 김회련 추모 사당 관련 통문	병술년	필암서원 민병승(閔 丙承) 외 24인	무성서원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병술년(1946) 11월 筆巖書院 閔丙承외 24인이 發文하여 武城書院에 보낸 通文으로 忠敏公 金懷練을 추모하는 사당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축하하는 의미에서 보낸 통문이다.
128	근현대문서	1946년 송영창 등 김회련 추모 사당 관련 통문	병술년	고현동향 약소(古縣 洞約所) 송영창(宋 榮昌) 외 12인	무성서원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병술년(1946) 11월 古縣洞約所 宋榮昌외 12인이 發文하여 武城書院 유림들에게 보낸 通文으로 忠敏公 金懷練을 추모하는 사당을 건립하는데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뜻을 전하자는 내용이다.
129	근현대문서	1945년 송영창 등 김회련 추모 사당 관련 통문	을유년	태인향교 송영창(宋 榮昌) 외 48인	무성서원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을유년(1945) 10월 泰仁鄕校 宋榮昌외 48인이 發文하여 武城書院에 보낸 通文으로 忠敏公 金懷練을 추모하는 사당을 짓는데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130	고문서	을묘년 도강김씨 대문중 산송 관련 산도(山圖)	을묘년	도강김씨 대문중(大 門中)	미상	전북 정읍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소송·청원; 상언	道康金氏 大門中에서 작성한 것으로 武城書院 근처 道康金氏 先山の 형태를 그려 偷塚한 곳을 표시하고 있다. 작성년대는 1860년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131	근현대문서	1949년 흥덕향교 만화서원건사(萬化書院建祀) 통문	1949	흥덕향교	무성서원	만화서원	x	x	통고; 통문	武城書院에 보낸 萬化書院建祀
132	근현대문서	1943년 고창향교 통문	1943	고창향교	무성서원	전북 고창 월암서원	x	x	통고; 통문	고창향교에서 무성서원으로 보낸 통문
133	고문서	을해년 김재수(金在秀) 망기(望記)	을해년	도회소(道 會所)	김재수 (金在秀)	강릉 원주 무릉박물관	국사편찬위원 회	x	과거·임용; 망기	金在秀를 武城書院 道內 掌議로 천망하는 문서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전자사료관			
134	고문서	병자년 김시중(金時中) 망기(望記)	병자년	도회소(道會所)	김시중(金時中)	강릉 원주 무릉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과거·임용; 망기	金時中을 武城書院 道內 儒林掌議로 천망하는 문서
135	고문서	19세기 각서원예식(各書院禮式)	19세기	무성서원	미상	전남 강진군 용두리 마을회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각 서원(書院) 예식(禮式) 필사본으로, 여기에는 태인 무성서원 통문과 기호통문, 후록 절목, 청주정사 석채출기, 석채의절(釋菜儀節) 등이 실려 있다. 무성서원 통문은 서원 훼손령 이후 단을 설하고 향사(享祀)하는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논의는 어떤지 여러 곳에 들어본 내용이다. 이에 기호통문에서는 자기네는 훼손된 곳에 곧바로 설단하고 1년에 한 번 사천(私薦)하고 있음을 알렸다. 후록 절목(節目)은 설단할 때 필요한 절목이다.
136	근현대문서	1928년 신현태 작성 효자 찬양문	무진년	신현태(申鉉台)	모성공회(慕聖公會)	전남 강진군 용두리 마을회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기타	찬양문(讚揚文)은 필사본으로, 한중호(韓宗孝, 1863-1945)에 대한 찬양문이다. 무성서원 유림 24명이 연명하여 천장(薦狀)한 강진군 고군면의 효자 오위장 한중호의 효행 등의 사실이 민물되지 않고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찬양하는 글을 만든 것이다. 이 책자는 1928년에 모성공회(慕聖公會) 회장 판서 김중환 등 23명의 이름을 연명되어 있으며, 표지안에는 경성부 창신동에서 신현태가 만들었다는 표기가 붙어있다.
137	근현대문서	1928년 전주향교 태인 장익선 효행 천거 통문	무진년	전주향교	무성서원	용계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전주향교에서 태인 장익선의 효행을 천거하여 보낸 통문에 대한 답통이다.
138	근현대문서	1927년 기타 자료(김택이 무성서원에 보낸 자료)	1927	김택(金澤)	담대현	광주 남구 기호중	x	x	기록류; 기타기록류; 기타	무성서원에서 보낸 글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39	근현대문서	1939년 무성서원 고현동약지(古縣洞約誌)	소화14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규약류; 향약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 시행한 향약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동약좌목, 세칙, 원문, 선진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140	근현대문서	1957년 무성서원 태산사복설추진회통문 (泰山祠復設推進會通文)	1957	무성서원	각위(各位) 존좌(尊座)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면암 최익현을 모신 태산사 복설 통문
141	고문서	갑술년 고목(告目)	갑술년	무성서원 서재(西齋)	노당의주 (魯堂議主)	노진무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이용가능)	x	명령·보고; 고목	武城書院西齋에서 掌議를 선정하는 문제로 魯堂議主에게 보낸 告目. 本院에 행차하여 살펴 달라고 청할.
142	근현대문서	1925년 무성서원 경통(敬通)	1925	무성서원	미상	만화서원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이용가능)	x	통고; 통문	
143	근현대문서	1925년 무성서원 경통(敬通)	1925	무성서원	미상	만화서원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이용가능)	x	통고; 통문	高麟相 褒狀
144	근현대문서	1925년 무성서원 경통(敬通)	1925	무성서원	미상	만화서원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이용가능)	x	통고; 통문	各校院儒林에게 萬化書院建記
145	근현대문서	1914년 무성서원 통문	갑인년	무성서원 유회(儒會)	도강김씨 대문중	전북 정음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갑인년(1914) 9월 武城書院 儒會 金邦勳 외 6인이 發文하여 道康金氏 大門中에 보낸 通文으로, 道康金氏 中始祖 雲溪公 道彦이 英祖로부터 御書를 받았는데 이를 위하여 齋閣을 건립할 것을 도강김씨 대문중에 제안하고 있다.
146	고문서	1856년 무성서원 품목(稟目)	병진년	무성서원 재임(齋任)	태인현감	전북 정음 김환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명령·보고; 품목	병진년(1856) 5월 27일 武城書院 齋任이 泰仁縣監에게 올린 稟目으로 金斑欵과 李啓鳳의 偷塚事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泰仁縣監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147	근현대문서	1915년 무성서원 통문	1915	무성서원	임실향교	순창 한성희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x	통고; 통문	무성서원 김직술 등이 한동수의 처 순흥안씨의 효행을 표창하자고 임실향교에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이용가능)			보낸 통문
148	근현대문서	1923년 계해년 무성서원 통문	계해년	무성서원	공부자성 적도(孔 夫子聖蹟 圖) 오른행실 중간소	전북 정음 검색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계해년 2월에 무성서원에서 공부자성적도오른행실중간소(孔夫子聖蹟圖五 倫行實重刊所)에 보낸 통문이다. 태인군의 김운(金煥)의 처 金海金氏의 열행을 포양하자는 내용이다.
149	근현대문서	임술년 추감기(秋監記)	임술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치부류; 치부	무성서원 소유전담 경작자 징수 장부.
150	근현대문서	1933-1957년 봉심록(奉審錄)	1933- 1957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무성서원 제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부. 본관, 출생년, 주소, 봉심일 등 수록
151	근현대문서	1938년 계산서	소화13	정음군 司法書士 日高金市	무성서원 김백년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식민시기문서; 증서	무성서원 대표자 김백년에게 정음군 司法書士日高金市가 발행한 계산서
152	고문서	1875-1915년 무성서원 봉심록(奉審錄)	을해- 신축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1875년부터 40년 동안 무성서원을 찾아와 참배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봉심이란 원래 임금의 명을 받들어 능이나 종묘를 보살피는 일을 이르던 말이지만 여기서는 사당에 참배하러 왔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최익현으로 제주도로 귀양갔다가 풀려나자 바로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153	고문서	1636-1794년 연액기사(延額記事)	1636- 1794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기타	1636년(인조 14) 이후, 무성서원에 대한 사액을 신청할 때부터 1794년까지 건물외 수리, 위패의 봉안, 이안 등에 관한 사항 정리.
154	고문서	1780-1813년 심원록(審院錄)	1780- 1813	-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1780-1813년 무성서원 참배자 명부.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55	고문서	1813-1831년 심원록(尋院錄)	1813-1831	-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1813-1831년 무성서원 참배자 명부
156	고문서	1609-1778년 심원록(尋院錄)	1609-1778	-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157	근현대문서	1927년 전주향교 통문	1927	전주향교	무성서원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태인(泰仁)에 사는 김현형(金顯炯)의 뛰어난 행적을 찬양(闡揚)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8	근현대문서	1927년 민순호 통문	1927	민순호(閔 珣鎬)	무성서원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태인향교의 유생 閔珣鎬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이다.
159	근현대문서	1927년 민재호 통문	1927	민재호(閔 在鎬)	전주향교 (全州鄕校)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무성서원의 유생 閔在鎬 등 10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주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0	근현대문서	1927년 전주향교 통문	1927	전주향교 유생	무성서원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들이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보낸 통문(通文)으로, 태인(泰仁)에 사는 김현형(金顯炯)의 뛰어난 행적을 찬양(闡揚)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1	근현대문서	1928년 황유 통문	1928	황유(黃瑜)	각군향교 (各郡鄕校)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남원향교의 유생 黃瑜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여러 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2	근현대문서	1928년 기세철 통문	1928	기세철(奇 世楫)	각군향교 (各郡鄕校)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광주향교의 유생 奇世楫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炯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여러 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3	근현대문서	1928년 나태균 통문	1928	나태균(羅 台均)	태인향교 (泰仁鄉校)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나주향교의 유생 羅台均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燾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4	근현대문서	1928년 홍순병 통문	1928	홍순병(洪 淳柄)	태인향교 (泰仁鄉校)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필암서원의 유생 洪淳柄 등 15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燾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5	근현대문서	1928년 박노풍 통문	1928	박노풍(朴 魯豊)	정읍향교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남고서원의 유생 朴魯豊 등 17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燾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읍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6	근현대문서	1928년 윤자균 통문	1928	윤자균(尹 滋均)	정읍향교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돈암서원의 유생 尹滋均 등 15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燾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읍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167	고문서	1636년 무성서원 연액기사(延額記事)	1636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기타기록류; 문기	조선시대에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있었던 '무성서원'은 본래 명칭이 '태산서원'이었다. 1636년 부터 도내 유림들이 조정에 사액, 즉 서원의 헌관을 내려주고 전답과 노비를 주는 '사액서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들의 뜻이 1696년에 이루어 졌다. 이 문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사안별로 정리한 것이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68	고문서	1740년 무성서원 무성서원원생인(武城書院生案)	1740	미상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명단류; 기타	1740년에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있는 무성서원에서 작성한 원생인이다. 여기에서 원생은 서원에 적을 두고 있는 유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원의 잡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모두 30명이 기재되어 있다.
169	고문서	1773년 무성서원 무성서원원생인(武城書院生案)	1773	미상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명단류; 기타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위치한 무성서원에서 작성한 원생명단이다. 여기에서 원생은 서원에 적을 두고 있는 유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원의 잡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모두 30명이 기재되어 있다.
170	고문서	1783년 무성서원 중수일기(重修日記)	1783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치부류; 중수기	1783년에 전라도 태인현에 있는 무성서원은 경상도 하동의 쌍계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최치원의 영정을 유림들의 여론에 따라 옮겨 와서 봉안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를 위해 사당을 다시 고쳐짓게 되었다. 이 문서는 이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171	고문서	1858-1879년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1858- 1879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국사편찬위 원희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1858(무오)부터 1879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위치한 무성서원의 사당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의 방명록이다.
172	근현대문서	1932년 무성서원모현계(武城書院慕賢稷) 무성서원모현계인(武城書院慕賢稷 案)	1932	무성서원 모현계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명단류; 계안	1932년에 武城書院慕賢稷을 조직하기 위해서 모현계 발기인들이 각 지역의 유림들에게 보낸 편지와 규례가 수록된 문서
173	근현대문서	1933년 무성서원모현계(武城書院慕賢稷) 무성서원모현계인(武城書院慕賢稷 案)	1933	무성서원 모현계	무성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명단류; 계안	1933년 정월에 무성서원에 배향된 선현의 저손과 도내 유생 83인이 무성서원의 보수 유지를 위해 계를 조직하고 비용을 추렴하였는데 이 문서는 계원명단과 추렴액수를 적어놓은 것이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74	근현대문서	1917년 임공기(任公藪) 망기(望記)	1917	무성서원	임공기 (任公藪)	김제 신평 임창남(현소 장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17년 무성서원에서 도내 훈장(訓長)으로 부경 임공기를 천거하는 망기이다.
175	고문서	1899년 임공기(任公藪) 망기(望記)	기해년	무성서원	임공기 (任公藪)	김제 신평 임창남(현소 장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899년에 집강 최한호 등이 무성서원 장의(掌議)로 임공기, 김기화, 최학권 등 3인을 천거하여 정음군수에게 보낸 망기이다. 정음군수는 임공기를 최종 낙점하였다.
176	근현대문서	1927년 무성서원 김기술 통문	정묘년	김기술(金 箕述) 등	강진향교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정묘년 8월에 무성서원 다사(多事) 김기술 등이 강진군에 거주했던 고 강진수의 효행과 학생을 알리기 위해 강진향교에 보낸 문서이다.
177	근현대문서	1927년 무성서원 김기술 통문	정묘년	김기술(金 箕述) 등	각 읍 향교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정묘년 9월에 무성서원 다사 김기술 등이 강진군에 거주했던 고 강진수의 효행과 학생을 알리기 위해 각 군 향교에 보낸 문서이다.
178	근현대문서	1928년 무성서원 김기술 통문	무진년	무성서원 김기술(金 箕述)	모성공회 (慕聖公會)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무진년 7월에 무성서원 다사 김기술 등이 모현공회에 보낸 문서이다. 전라남도 강진군 운천면 봉림리에 거주했던 고 강진수의 효행과 학생을 알리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비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좋은 평판을 전하기를 부탁한 것이다.
179	고문서	[1900년] 무성서원 김기동 통문	경자년	김기동(金 箕東)	강진향교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경자년 11월 1일에 무성서원 다사 김기동, 이호춘, 박정규 등이 강진군에 거주했던 진주강씨 3현자, 즉 강창화와 그의 손자 강진수, 그리고 강진수의 아들 강대홍의 효행과 학생의 뛰어난을 찬양하고 이들이 행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강진향교에 보낸 문서이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180	고문서	신사년(辛巳年) 무성서원 통문	신사년	무성서원	나주향교	신안 안좌도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신사년 7월에 무성서원 유림들이 오도에 사는 남평문씨 문익수의 호행을 칭찬하고 정려하기 위해 나주향교 유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181	근현대문서	1927년 무성서원 통문	1927	김기술(金箕述) 등	무안향교	신안 하의 김해김씨 덕봉강당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27년 11월에 무성서원의 여러 선비들이 하의도에 사는 김석련의 행적을 무안향교에서도 널리 알려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보낸 문서이다.
182	근현대문서	1931년 무성서원 통고(通告)	신미년	무성서원	박민교 (朴敏敎)	장흥 용산 밀양박씨 박철환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31년 정월에 무성서원에서 박민교에게 면암 최익현선생 영정을 봉안하는 祭官으로 임명하였다고 통고하는 문서이다. 무성서원은 2월 초정일 태산사에 면암 최익현 선생 영정을 봉안하는데 박민교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183	근현대문서	1922년 무성서원 통문	임술년	김기술(金箕述) 등	전주향교 (全州鄕校)	태인 상허 인동장씨가(현소장처 : 정읍 시산 최재필가)/ 정읍 용계서원	한국학자료센 터/국사편찬위 원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1922년에 무성향교 유희소의 김기술 등 17명이 호자 장익선의 표창을 위해 전주향교 유생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통문이다.
184	근현대문서	1938년 무성서원 통문	무인년	무성서원	장수향교	장수 침곡 충주박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33년 무성서원에서 장수향교로 보낸 통문이다. 장수군 계북면에 사는 주병국이 사족의 후예이고, 학문과 덕이 뛰어나 유계(儒契)에 들어가기 충분하다는 내용이다.
185	근현대문서	1934년 무성서원 통문	갑술년	무성서원	모성공회 (慕聖公會)	정읍 장명 동래정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874년(고종 11) 7월 무성서원의 유생들이 경성부의 모성공회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태인군 감곡면 통석리에 사는 고 士人 鄭敎栢의 처 파명윤씨의 효열을 천거하는데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186	근현대문서	1926년 태인향교 통문	병인년	태인향교	무성서원	정읍 박산	한국학자료센	x	통고; 통문	1926년 3월, 태인향교(泰仁鄕校)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이희봉(李 喜鳳) 등		김해김씨가	터			유생들이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보낸 통문(通文)으로, 전(前) 의관(議官) 김문식(金文植)의 처(妻) 밀양박씨(密陽朴氏)의 뛰어난 효열(孝烈)을 천양(闡揚)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7	근현대문서	1927년 김현형(金顯炯) 망기(望記)	정묘년	무성서원 유회소(武 城書院 儒會所)	김현형 (金顯炯)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27년 2월, 무성서원(武城書院) 유회소(儒會所)에서 태인면(泰仁面) 박산리(朴山里)에 사는 전(前) 참봉(參奉) 김현형(金顯炯)을 무성서원 도내훈장(道內訓長)으로 추천하는 망기(望記)
188	근현대문서	1928년 김현형(金顯炯) 망기(望記)	무진년	무성서원(武城書院) 유회소(儒 會所)	김현형 (金顯炯)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28년 2월, 무성서원(武城書院) 유회소(儒會所)에서 태인면(泰仁面) 박산리(朴山里)에 사는 전(前) 참봉(參奉) 김현형(金顯炯)을 춘향제전사관(春享祭典祀官)으로 추천하는 망기(望記)이다.
189	근현대문서	1930년 김현형(金顯炯) 망기(望記)	경오년	무성서원 유회소(武 城書院 儒會所)	김현형 (金顯炯)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30년 10월, 무성서원(武城書院) 유회소(儒會所)에서 태인면(泰仁面) 박산리(朴山里)에 사는 전(前) 참봉(參奉) 김현형(金顯炯)을 무성서원 도내(道內) 유림장의(儒林掌議)로 추천하는 망기(望記)이다.
190	근현대문서	1934년 김현형(金顯炯) 망기(望記)	갑술년	무성서원 도회소(武 城書院 道會所)	김현형 (金顯炯)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34년 12월, 무성서원(武城書院) 도회소(道會所)에서 참봉(參奉) 김현형(金顯炯)을 무성서원 중수찬성장(重修贊成)으로 추천하는 망기(望記)이다.
191	고문서	1905년 무성서원(武城書院) 민영원(閔永元) 등 상서	을사년	무성서원 민영원(閔 泳元) 등	무성서원 원장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 터	x	소송·청원; 상서	1905년 3월에 무성서원에서 전라도 유생 민영원, 유종규, 고성규 등 24명이 무성서원 원장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라도 임피군 서면에 사는 이창영과 그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박물관)				처 南平文氏의 효행과 효열을 포상해 달라고 하였다. 무성서원 원장은 마땅히 임금에게 아뢰어 정려의 특전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192	고문서	1903년 김경술(金慶述) 등 상서	계묘년	김경술 (金慶述) 등	내부대신 (內部大臣)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소송·청원; 상서	1903년에 전라북도의 유생 김경술 등 32명이 내부대신에게 올린 상서이다. 김경술을 비롯한 32명은 전라북도 임피군 서삼면 발산리에 사는 사인 이장영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을 포상하여 정려를 내려줄 것을 내부대신에게 요청하였고, 효행이 가상하나 임금에게 이를 알리는 일은 시일을 두어야 한다는 제사를 내렸다.
193	근현대문서	1934년 남원향교 통문	갑술년	남원향교 허병(許柄) 등	태인향교	정읍 장명 동래정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874년(고종 11) 4월에 남원향교의 유생들이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土人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행과 열행이 포양 받을 수 있도록 태인의 유생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194	근현대문서	1934년 전주향교 통문	갑술년	전주향교 이병교(李 炳敎) 등	태인향교	정읍 장명 동래정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874년(고종 11) 3월에 전주향교의 유생들이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土人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행과 열행이 포양되도록 태인의 유생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195	근현대문서	1934년 광주향교 통문	갑술년	광주향교 고인주(高 彦柱) 등	태인향교	정읍 장명 동래정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3월에 광주향교의 유생들이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土人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행과 열행이 포양되도록 태인의 유생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196	근현대문서	1934년 나주향교 통문	갑술년	나주향교 나병준(羅 秉準)	태인향교	정읍 장명 동래정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874년(고종 11) 4월에 나주향교의 유생들이 태인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土人 정교백의 처 파평윤씨의 효행과 열행이 포양되도록 태인의 유생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197	근현대문서	1928년 김공술(金孔述) 등	무진년	김공술	모성공회	강진	한국학자료센	x	소송·청원;	1928년에 무성서원 유생 김공술 등이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상서(上書)		(金孔述)		진주강씨 강성민	티		상서	모성공회에 전라남도 강진군 음천면 봉림리에 살았던 고 강창회의 행적을 알려서 포장이 이루어지길 청하는 문서이다. 이에 모성공회는 그 행실이 탁월하여 후인이 의리하니 표창은 규율에 따라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98	고문서	1607년 태산서원(泰山書院) 심원록(尋院錄)	1607-1658	태산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1607년부터 1658년까지 약 50년간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위치한 태산서원을 참배하러 온 사람들의 방명록이다. 첫장 맨 처음에 기재되어 있는 태인현감은 의병장 고경명의 여섯째 아들이다. '태산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명칭이다.
199	고문서	1902년 김광흠(金光欽) 등 통문(通文)	임인년	무성서원 김광흠 (金光欽)	임피향교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02년 4월에 무성서원의 유학 김광흠 등 25명이 연명으로 임피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임피군 서삼면 발산리에 살았던 고 이기동의 처 남평문씨의 열행과 그 아들 이재선의 효행을 감영을 통해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다.
200	고문서	1903년 백익수(白益洙) 등 상서(上書)	계묘년	무성서원 백익수 (白益洙)	함열군수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03년 2월에 무성서원의 유학 백익수 등 34명이 연명으로 함열군수에게 올린 상서이다. 고 시인 이기동의 처 문씨의 효행을 감영을 통해 조정에 알려 정려의 특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군수는 마땅히 감영에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제사를 내려주었다.
201	고문서	1900년 임기인(任基仁) 망기(望記)	경자년	최모(崔某)	임기인 (任基仁)	김제 신흥 임창남(현소 장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00년에 장의 최모가 무성서원 유사(有司)로 임기인, 최성희, 서봉술 등 3인을 천거하며 정읍군수에게 보낸 망기이다. 정읍군수는 임기인을 최종 낙점하였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02	고문서	1622년 태산서원(泰山書院) 태산서원유생안(泰山書院儒生案)	기묘년	태산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명단류; 유안	1622년에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있는 태산서원에서 작성한 유생안이다. 태산서원은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명칭이며 유생안은 서원에 적을 두고 있는 유림들의 명단이다.
203	고문서	1618년 태산서원(泰山書院) 태산서원유생안(泰山書院儒生案)	1618	태산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자료센 터	x	기록류; 명단류; 유안	1618년에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에 있는 태산서원에서 작성한 유생안이다. 태산서원은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명칭이며 유생안은 서원에 적을 두고 있는 유림들의 명단이다.
204	근현대문서	1937년 백성구(白性鉉) 망기(望記)	정축년	장의(掌議) 백성구(白 性鉉)	임일규 (任鎰珪)	김제 신평 임창남(현소 장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37년 장의 백성구가 무성서원 유사로 후보 3인을 천거하여 정음군수에게 올린 망기이다. 당시 정음군수는 적임자로 임종규를 낙점하였다.
205	근현대문서	1929년 강대홍(姜大鴻) 망기(望記)	기사년	유림도회 소(儒林道 會所)	강대홍 (姜大鴻)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29년 8월에 儒林道會所에서 강대홍을 무성서원 道內儒林掌議로 추천하는 문서
206	근현대문서	1931년 강대홍(姜大鴻) 망기(望記)	신미년	유회소(儒 會所)	강대홍 (姜大鴻)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과거·임용; 망기	1931년 10월에 儒會所에서 강대홍을 武城書院道內訓長으로 추천하는 문서.
207	근현대문서	1917년 장치복(長致福) 등 고목(告目)	정사년	무성서원 서재(西齋) 장치복(長 致福)	임공기 (任公藎)	김제 신평 임창남(현소 장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명령·보고; 고목	1917년 무성서원 장치복 등 3인이 부경 임공기에게 보낸 고목이다. 무성서원의 도내 훈장으로 천거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208	근현대문서	1929년 강대홍(姜大鴻) 고목(告目)	기사년	무성서원 서재(西齋) 장대영(張 大榮) 등	강대홍 (姜大鴻)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명령·보고; 고목	1929년 8월에 무성서원 서재의 장대영 등이 강대홍에게 도내 유림 장의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09	근현대문서	1931년 강대홍(姜大鴻) 고목(告目)	신미년	무성서원 서재(西齋) 강병선(姜炳善) 등	강대홍 (姜大鴻)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명령·보고; 고목	1931년 10월에 무성서원서재의 강병선 등이 강대홍에게 보내 훈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210	고문서	1903년 백익수(白益洙) 등 상서(上書)	계묘년	무성서원 유학 백익수(白 益洙)	무성서원 부원장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소송·청원; 상서	1903년 2월에 무성서원의 유학 백익수 등 29명이 연명으로 무성서원 부원장에게 올린 상서이다. 고 사인 이기동의 처 문씨의 효열을 감영을 통해 알려 정려의 특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무성서원의 부원장은 그녀의 행실이 극히 가상하지만 정려를 내리는 일은 널리 공의를 구해보자는 내용의 제사를 내려주었다.
211	고문서	1905년 무성서원(武城書院) 소휘식(蘇輝植) 등 상서(上書)	을사년	무성서원 유학 소휘식(蘇 輝植) 등	만경군 집강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소송·청원; 상서	1905년 3월에 무성서원에서 전라도 유생 진사 소휘식, 조병선, 김택 등 36명이 만경군의 집강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라도 임피군 서면에 사는 이창영과 그의 처 남평문씨의 효열을 감영을 통해 조정에 알려 정려의 특전을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집강은 공의가 있어야 하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212	고문서	갑자년 박봉규 망기	갑자년	무성서원 유학소(武 城書院 儒會所)	박봉규	호남기록문 화시스템	기초학문자료 센터	x	과거·임용; 망기	갑자년에 武城書院의 道內色掌으로 朴奉圭를 추천하면서 작성한 望記이다.
213	고문서	1902년 무성서원도회소 통문	임인년	무성서원 도회소(武 城書院 道會所)	옥과향교	전남 곡성 남양재갈씨 무후사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통고; 통문	諸葛先生의 影堂과 講堂을 세우는 일을 도와줄 것을 청하는 내용
214	고서	고산선생실기(孤山先生實紀) 무성서원통문	1936	김택민(金 澤閔) 등	무성서원	유교넷	유교넷	x	집부; 별집류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15	고서	완휴재선생실기(完休齋先生實紀) 무성서원답동	1924	무성서원 이방열(李 邦烈) 등		유교넷	유교넷	x	집부; 별집류	
216	고문서	1928년 나주향교(羅州鄕校) 통문(通文)	무진년	나주향교 임세규 (林世圭)	무성서원	태인 상허 인동장씨가(현소장처 : 정읍 시산 최재필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28년에 나주향교의 유생 임세규 등 15명이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으로, 효자 장익선의 효행을 표창하는 일에 사람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17	고문서	1903년 류덕근(柳德根) 등 상서(上書)	계묘년	유덕근 (柳德根)	무성서원	군산 발산 합천이씨가(현소장처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자료센 터	x	소송·청원; 상서	1903년 2월에 무성서원의 유학 류덕근 등 35명이 연명으로 무성서원의 강장에게 올린 상서이다. 고 사인 이기동의 처 문씨의 효열을 감영을 통해 조정에 알려 정려의 특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성서원의 강장은 문씨의 행실이 극히 순수하고 바르니 감탄할만 하지만 잠시 기다려보자는 내용의 제사를 내려주었다.
218	근현대문서	1928년 전주향교(全州鄕校) 통문(通文)	무진년	전주향교 유창근(柳 彰根)	무성서원	태인 상허 인동장씨가(현소장처 : 정읍 시산 최재필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28년에 전주향교의 직원 유창근 등 23명이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이다. 장익선의 효행이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함께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219	근현대문서	1927년 태인향교(泰仁鄕校) 통문(通文)	정묘년	태인향교 민순호 (閔珣鎬)	무성서원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1927년 3월에 태인향교의 유생 閔珣鎬 등 13명이 태인에 사는 金顯卿의 효성과 유학자로서의 뛰어난 덕행을 널리 알려 유학을 크게 일어나게 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이다.
220	고문서	1900년 강진향교(康津鄕校) 통문(通文)	경자년	강진향교 조규영 (曹圭英)	무성서원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경자년 4월에 강진향교 전교 조규영과 장의 최상규 등이 강진군 읍천면 봉림리에 거주했던 진주강씨 강창희와 그의 손자 강진수, 그리고 강진수의 아들인 강대홍의 효행과 학행을 천양하고자 무성서원에 보낸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문서이다.
221	근현대문서	1928년 남강서원 통문	무진년	남강서원 유희소 김석주 (金錫胄)	무성서원	강진 진주강씨 강성민	한국학자료센 터	x	통고; 통문	무진년 3월에 강진 남강서원 유희소 집강 김기술 등이 전라남도 강진군 읍천면 봉림리에 거주했던 고 강진수의 효행과 학행을 일리고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무성서원에 보낸 문서이다.
222	근현대문서	1962-1973년 무성서원 춘추제관록(武城書院春秋筮官錄) 제1호	1962- 1973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관훈상제; 시도기	1962년에서 1973년까지 춘하 무성서원 제관 명단
223	근현대문서	1933-1953년 무성서원수지부 (武城書院收支簿)	1933- 1953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기록류; 치부류; 회계	1933년에서 1953년까지 무성서원 수입지출 장부
224	근현대문서	1930년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	1930	김인기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사부; 지리류	무성서원에 관한 기록으로 상, 하권 합본으로 구성되었다.(1884년 발간된 무성서원지와 내용이 다름)
225	근현대문서	1968-1969년 무성서원 모현계안	1968- 1969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기록류; 명단류; 계안	의연금 명부와 액수
226	근현대문서	1972-2003 무성서원 수지부 제3호	1972- 2003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기록류; 치부류; 회계	무성서원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것
227	고서	1941년 병천사지(秉天詞誌) 건	1941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사부; 서지류	
228	근현대문서	1930년 무성서원기부영수증	경오년	무성서원	이경희, 이영두, 신자현	개인소장자(이진호)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이용가능)	x	근현대시기문서; 증서	이경희, 이영두, 신자현이 무성서원에 희사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229	근현대문서	1987-2004년 무성서원안(武城書院案) 제2호	1987- 2004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자료관	x	기록류; 명단류; 기타	무성서원 임원 명부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30	근현대문서	1946-1992년 무성서원안(武城書院案)	1946- 1992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명단류; 기타	무성서원 임원 명부
231	근현대문서	1961년 무성서원원안(武城書院院案)	1961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명단류; 기타	무성서원 임원 명부
232	근현대문서	1952-1956년 무성서원 토세미수기(武城書院土稅未收記)	1952- 1965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처부류; 처부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오년 무성서원 수입, 지출 장부
233	근현대문서	1973-1981년 무성서원 춘추제관록 제2호(武城書院 春秋祭官錄)	1973- 1981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관훈상제; 시도기	1973-1981 무성서원 제관 명부
234	근현대문서	1979년 무성서원고사 건축관계서류(武城書院庫舍 建築關係書類)	1979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처부류; 회계	무성서원의 창고를 건립하면서 받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이다.
235	근현대문서	1924년 무성서원원규 (武城書院院規)	1924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절목류; 절목	무성서원의 원장과 임원의 임용 기준, 수세(收稅)의 사용 등 11개의 규칙을 기록한 것이다. 전라남도 유생 139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236	근현대문서	1962년 봉심안	1962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무성서원 제례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감상기교수도 보인다.
237	고문서	1906년 무성서원 향수계안	1906	무성서원	무성서원	무성서원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기록류; 절목류; 절목	제향 절목, 규칙
238	고문서	1905년 무성서원 김공술 등 통문	1905	무성서원	전주향교	전북 김제 안중래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卓異之行 褒獎事
239	고문서	1900년 무성서원재회 통문	1900	무성서원 재회	흥덕향교	전북 고창 고석규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二東面 長興高氏宅 江陵劉氏의 孝烈을 다스려 주도록 권하는 내용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40	고문서	무자년 무성서원 통문	무자년	무성서원	미상	전북 김재 이정훈	국사편찬위원 회(기관 내 이용가능)	x	통고; 통문	국사편찬위원회 2005년 수집자료
241	고문서	1915년 무성서원 만성보간소 통문	을묘년	武城書院 萬姓譜刊 所	각 문중	충남 연기 연기향토박 물관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각 기문의 계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만성보 중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수단을 조속히 올려줄 것을 당부
242	고문서	1914년 무성서원 만성보간소 통문	갑인년	武城書院 萬姓譜刊 所	만성각가 (萬姓各家)	충남 연기 연기향토박 물관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x	통고; 통문	만성보 중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가로 하여금 수단을 올릴 것을 일림
243	근현대문서	1926년 무성서원 상서	병인년	무성서원 도내유생 김택(金澤) 등	모성공회	국립민속박 물관	e뮤지엄	x	소송·청원; 상서	홍언박(洪彦博)의 후손 천양(鬮揚)에 관한 일
244	중수기	무성서원 현우 중수기	신축년	민신호 (閔申鎬)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45	중수기	1892년 무성서원 중수기	임진년	윤제익 (尹濟翼)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46	기문	1882년 무성서원 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 還復記)	임오년	김직흠 (金稷欦)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기문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47	중수기	무성서원 강당중창기(武城書院講堂重創記)	무자년	김문 (金汶)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48	중수기	1886년 무성서원중수기	병술년	김영조 (金永朝)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49	중수기	1906년 무성서원중수기	병오년	김병술 (金秉述)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50	중수기	1888년 무성서원중수기	무자년	김광흠 (金光欵)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1	중수기	1879년 무성서원중수기	기묘년	송정순 (宋程淳)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2	중수기	1917년 무성서원중수기	정사년	이재우 (李在宇)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3	중수기	1932년 무성서원 기반중수기(武城書院塼盤重修記)	임신년	김택(金澤)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4	중수기	1928년 무성서원 장원중수기(武城書院塼垣重修記)	무진년	김환풍 (金煥豊)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5	중수기	1930년 현우중수금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 及典祀所創建記)	경오년	김환풍 (金煥豊)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6	기문	1937년 무성서원원자복구기(武城書院院址 復舊記)	정축년	김환풍 (金煥豊)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기문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7	중수기	1927년 무성서원중수기	정묘년	김환일 (金煥一)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8	중수기	무성서원중수기	을미년	윤병(尹秉)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59	중수기	1904년 무성서원중수기	갑진년	권직상 (權直相)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260	기문	1902년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임인년	김직술 (金直述)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기문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61	중수기	1905년 강수재중수기(講修齋重修記)	을사년	김인기(金麟基)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62	편역	1891년 헝가루창건기(絃歌樓創建記)	1891	민정식 (閔正植)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편역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63	중수기	1903년 헝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1903	정관구 (鄭寬求)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64	기문	1891년 헝가루기(絃歌樓記)	1891	김규홍 (金奎弘)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기문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65	중수기	1936년 헝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1936	고원훈 (高元勳)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중수기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66	주련	읍양진퇴행단우교(攄讓進退杏壇遺教)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재-주련	현장조사
267	주련	월삭참배항례남정(月朔參拜享禮南丁)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재-주련	현장조사
268	주련	춘추감마경의사자(春秋講磨經義四子)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재-주련	현장조사
269	주련	문예시습시서예악(文藝時習詩書禮樂)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재-주련	현장조사
270	주련	덕업일신호제종화(德業日新孝悌忠和)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재-주련	현장조사
271	주련	권규교홀남전고악(勸規交恤藍田故)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현장조사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신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約)							재-주련	
272	주련	성조역은(聖朝額恩)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3	주련	사림수선(士林首善)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4	주련	연원추소수사렴민(淵源追溯洙泗濂 閩)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5	주련	의인유덕업일신(依仁游藝德業日 新)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6	주련	규모이광심신가국(規模已宏心身家 國)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7	주련	신사독행륜리자명(慎思篤行倫理自 明)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8	주련	만국망지정(萬國罔知定)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79	주련	가가구태평(家家久泰平)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80	주련	승제망형처(承帝忘形處)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81	주련	분화영불명(芬華永弗明)	-	-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건축부재-장식부 재-주련	현장조사
282	비문(碑文)	1849년 현감 서후호순불망비(徐侯灑亭不忘碑)	1849	미상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83	비문(碑文)	1882년 현감 이정식불망비(李定植不忘碑)	1882	미상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84	비문(碑文)	1882년 영상 이공최응불망비(李公最應不忘碑)	1882	정세기 (丁世基),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기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송정순 (宋程淳)						참조)
285	비문(碑文)	1937년 전 감역 정문술중수의조비(丁汶述重修義助 碑)	1937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86	비문(碑文)	진사 최영대영세불망비(崔永大永世不忘 碑)	정묘년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87	비문(碑文)	1898년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廷碑) 창건의연방명록(創建義捐芳名錄)	1898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88	비문(碑文)	1898년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廷碑)	1898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89	비문(碑文)	1921년 흥학재창건비(興學齋創建碑)	1921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90	비문(碑文)	1925년 통정대부 전 비서감승 신용희불망비(申瑢熙不忘碑)	1925	윤용구 (尹用求)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91	비문(碑文)	1925년 전 의관 이경희불망비(李慶熙不忘碑)	을축년	김환풍(金 煥豐) 찬, 윤용구 서, 민영석(閔 泳碩) 서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92	비문(碑文)	사인 김인기불망비(金麟基不忘碑)	미상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93	비문(碑文)	1968년 무성서원중수기념비	1968	김인기 (金麟基)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번호	사료구분	사료명	생산기간	발급자/ 작성주체	수취자	소장처/출처	열람가능기관	출판정보	분류	비고
										참조)
294	비문(碑文)	1968년 무성서원사적기념비	1968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95	비문(碑文)	1992년 병오창의기념비	1992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서원소장 현판, 기문, 주련(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96	비문(碑文)	전 참봉 주찬형기념비(前參奉朱燦馨紀功碑)	미상	이병관 (李炳觀)	무성서원	무성서원	x	x	기념-비	현장조사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